

12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자은면 慈恩面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

# 자은면 慈恩面



도시문화연구원



신안군

## 책을 내면서

이 보고서는 신안군의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자은면 편) 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이다. 이 연구용역은 2003년 압해읍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이번 2014년 자은면과 장산면 편을 끝으로 14개 읍·면 13권의 보고서로 마무리 되었다.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자은면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자원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자연생태, 고고유적, 역사문화, 민속문화,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주거문화 등 8개의 분야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각각의 주제별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의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연생태 조사에서는 서부해안 전체에 걸쳐 형성된 9개의 해수욕장을 파악하고, 두봉산과 습지의 식생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고유적 조사에서는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지식묘 19기를 파악하고, 신안군에서는 자은도 한우리 일대에만 확인되는 도기요지에 대해 보고하였다. 역사문화유적으로는 고려말 수군진의 존재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하는 우물을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20여개의 토굴을 조사하였다. 민속문화 조사에서는 자은면 주민들이 전통시대부터 이어 온 가정신앙과 마을별 당제, 어로신앙, 세시풍속 등을 조사하였다. 어로문화로는 파시가 썼던 사월포의 그물어법을 중심으로 모래사장의 채취어로, 독살과 발어업 등의 함정어법 등을 조사하였다. 구비전승으로는 ‘자애롭고 은혜로운 섬, 자은도(慈恩島)’라는 지명을 유래시킨 두사충 전설, 승천을 앞둔 한 쌍의 용이 이별하면서 생겨났다는 용소 전설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화와 민요를 조사하였다. 방언문화 중에는 물고기 이름을 비롯한 지명과 택호, 해산물 이름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섬에서도 농경이 발달한 신안지역에서는 소와 관련하여 씨앗, 바넷소 등의 관행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거문화 분야에서는 1800년대에 건립된 민가의 1980년대 모습과 2014년의 모습을 비교하여 생활문화를 조명하였다.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는 신안군의 시간자원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첨단기술과 대중문화가 꿈과 미래를 찾아 자원화 하는 것이라면, 도서문화 지표조사는 섬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찾아 그것을 기억하고 자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신안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시간자원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그런 만큼 조사·연구의 기회를 부여해 준 신안군 고길호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성의껏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준 참여 연구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4년 11월

전체 연구진을 대표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송기태**





자은도 본섬 전경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

자은<sup>지명</sup>편



## 목 차 CONTENTS

- 자연생태  
홍선기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19
- 고고유적  
최성락 /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35
- 역사문화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51
- 민속문화  
한은선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89
- 어로문화  
고광민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23
- 구비전승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45
- 방언문화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
- 주거문화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25
- 관광자원화  
강봉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243
- 부록 261
- 문화자원 분포지도  
김재은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293



# 연구개요 및 기본현황

## 1. 연구개요

- 사업명 :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  
「자은면·장산면 편」
- 사업기간 : 2013.12.27. ~ 2014.11.22. (11개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신안군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으로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장산면·자은면 편)’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신안군의 자연자원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연생태, 고고유적, 역사문화, 민속문화,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주거문화 등 8개의 분야 전공자들이 모여 공동 조사와 전공별 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 사업은 지표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2차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전공 연구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활용방안을 집필하였고, 전체를 아우르는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자원화’ 항목을 별도로 집필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은면 조사는 2014년 1월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2월 19일~20일에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단은 압해도 송공항에서 배를 타고 압태도에 도착하여 자동차로 자은면사무소로 이동하였다. 면사무소에서는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사단을 맞이하여 면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후 조사단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동행하여 자은도 일대의 문화자원들을 돌면서 답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문화자원들을 돌아보면서 넓게 발달한 해수욕장들을 답사하였다. 자은도는 해안 사구가 발달하여 해수욕장 9개가 조성되어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조사단의 공동조사 이후 각 분야의 집필진들이 개별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야별로 2~4회 정도 답사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원고를 검토하고 집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연구진 구성

역 할	성 명	직 책	담 당
책임연구원	송기태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총괄
공동연구원	강봉룡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관광자원화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고고유적
	이기갑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언문화
	김지민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문화
	홍선기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자연생태
	최성환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역사문화
	김재은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연구교수	문화자원 분포지도
	홍순일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비문학
	고광민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위원	어로문화
	한은선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연구교수	민속문화
연구보조원	임은옥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주무관	예산 관리
	김은주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연구팀 관리

### 3. 공동답사

#### 1) 공동답사

- 기 간 : 2014년 2월 18일 ~ 20일
- 조사자 : 강봉룡, 송기태, 홍선기, 김경옥, 최성환, 홍순일, 김재은, 김인희,  
김경완, 한은선, 김은주 (이상 집필진 및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진)

날짜	시간	내용	장소	비고
2/18 火	09:20	압해도 송공항 집결	압해도 송공항	
	10:00 ~ 10:30	압해 송공 → 압태 신석	선상 이동	압태, 자은도로 이동
	10:45 ~ 11:40	자은면사무소 간담회	자은면사무소	
	11:40 ~ 13:00	점심식사	자은면 솔식당	
	13:00 ~ 18:30	분야별 조사	자은면	
	18:30 ~ 19:30	저녁식사	자은면 식당	
	19:30 ~ 20:30	자은면 조사팀 워크숍	자은면 밀알촌	
	20:30 ~	휴식	자은면 밀알촌	
2/19 水	08:00 ~ 09:00	아침식사	자은면 식당	
	09:00 ~ 11:00	분야별 조사 후 안좌면 복호항 집결	자은면	
	11:15 ~ 11:45	안좌(복호) → 장산(북강)	안좌면 복호항	장산도로 이동
	11:55 ~ 13:00	점심식사	장산면 강촌식당	북강선착장 부근
	13:00 ~ 14:00	장산면사무소 간담회	장산면사무소	
	14:20 ~ 14:30	장산(앤두) → 장산(막금)	장산면 앤두항	막금도로 이동
	14:30 ~ 18:00	막금도 공동답사 및 분야별 조사	장산면 막금도	
	18:00 ~ 18:10	장산(막금) → 장산(앤두)	장산면 막금항	장산도로 이동
	18:30 ~ 19:30	저녁식사	장산면 무지개식당	
	19:30 ~ 20:30	장산면 조사팀 워크숍	장산면 무지개민박	
	20:30 ~	휴식	장산면 무지개민박	
2/20 木	07:30 ~ 08:30	아침식사	장산면 무지개식당	
	09:00 ~ 09:20	장산(축강) → 장산(마진)	장산면 마진도	마진도로 이동 (마을이장 사선)
	09:30 ~ 10:30	마진도 간담회	마진도 마을회관	
	10:30 ~ 12:00	마진도 분야별 조사	마진도	말바위 등등
	12:00 ~ 13:30	점심식사	마진도 마을회관	
	13:30 ~ 16:00	마진도 분야별 조사	장산면 마진도	
	16:12 ~ 19:05	장산(마진) → 장산축강 · 상태동리 · 장산축강 → 목포	장산면 마진도 마진항	
	19:30	목포에서 저녁식사		



〈사진 1〉 자은도를 향해 출발

## 4. 기본현황

### 1) 지명유래

#### ■ 자은도 지명유래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선조의 요청에 따라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지원했던 명(明)나라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따라 참전했던 중국인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이 반역으로 몰려 피신 왔다가 자은도에 도착하여 본 바, 지형지세도 모난 데가 없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좋고 온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에 감사히 생각하고 베풀어준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못 잊어서 자은도(慈恩島)라 칭하게 되었다.

#### ■ 자은면 관내도



## 2) 여객선 및 마을버스

▪ 여객선 운항 시간표(암태, 자은, 팔금 방면)

신안농협: 061) 271-4005, 철부선소장님: 011-609-9105,  
 오도매표소: 061) 271-0052, 송공매표소: 061) 271-0090,  
 고산매표소: 061) 271-0183, 철부선 1호: 011-632-8234,  
 부선 3호: 010-5461-2922

항차	송공발	암태신석		암태당사		팔금고산		송공착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1	06:00(북항)					07:00	07:10	07:35
2	07:20	07:45	08:00	08:10	08:20			08:40
3	08:00	08:25	09:00					09:25
4	09:00					09:25	10:00	10:25
5	10:00	10:25	11:00					11:25
6	11:00	11:40	12:00	11:25	11:30			12:25
7	12:00							13:35
8	13:10					13:35	14:00	14:25
9	14:00	14:25	15:00					15:25
10	15:00	15:25	16:00	16:10	16:20			16:45
11	16:00	16:25	17:00					17:25
12	17:00					17:25	17:40	18:05
13	18:00	18:25	18:50					19:15
14	18:30					18:55	19:00	20:00(북항)
15	20:00					20:25	20:30	21:30(북항)

▪ 마을버스 운행 시간표

운행현황	운행시간	비고
대울-암태남강	07:40, 09:40, 13:40, 15:10	자은운수 271-8014, 8005
분계-남강	07:45, 09:30, 15:10	

### 3) 관내기관 및 자생조직

▪ 관내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면사무소	구영리 386-2	061) 271-8377	061) 271-0734	<a href="http://www.shinan.go.kr">http://www.shinan.go.kr</a>
자은파출소	구영리 125-9	061) 271-8112	-	
보건지소	구영리 388-2	061) 271-8154	061) 240-8834	
농업기술센터	구영리 388-2	061) 271-8064	061) 271-8064	
신안농협자은지점	구영리 394-1	061) 271-8000	061) 271-0843	
신안농협송산지소	송산리 289-5	061) 271-8676	061) 271-5584	
우체국	구영리 191-1	061) 271-8288	061) 271-1304	
자은중학교	구영리 120	061) 271-8043	061) 271-6330	<a href="http://jaeun.ms.jne.kr">http://jaeun.ms.jne.kr</a>
자은초등학교	구영리 44	061) 271-8040	061) 271-8452	<a href="http://jaeun.gne.go.kr">http://jaeun.gne.go.kr</a>
한전출장소	구영리 389	061) 271-8154	061) 260-6282	



〈사진 2〉 자은면사무소



〈사진 3〉 분계해수욕장

■ 자생조직단체

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자은발전협의회	권재순	한운리 676	061)271-8819
교회연합회	한상섭	백산리 83-1	061)275-8233
농촌지도자회	설이식	고장리 663	061)271-8502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배일순	백산리 456	061)275-8317
새마을부녀회	박옥단	구영리 157	061)271-5588
자원봉사회	정철순	유천리 339	061)271-8672
노인회	박시종	고장리 60	061)271-8554
청년회	배양창	백산리 451	061)271-5629
선거관리위원회	강대익	한운리 528	061)271-8821
생활축구회	최영배	유각리 138	061)271-8461
의용소방대	이경성	구영리 50	061)271-8116
농업경영인회	김재길	유천리 17-1	061)271-8640
자율방법대	김영식	유각리 46-2	061)271-9300
바르게살기위원회	김용선	대울리 362-3	061)271-8801
게이트볼동호회	박덕순	유천리 42-3	061)271-8527
생활개선회	박선자	백산리 630-1	061)275-6970
이장단협의회	윤용진	유각리 577	061)271-8097
여성단체협의회	정철순	유천리 339	061)271-8672



〈사진 4〉 도명사 대웅전



〈사진 5〉 둔장어촌체험마을

#### 4) 행정구역 및 인구

##### ▪ 위치

목포에서 41.3km 거리이며, 동쪽으로 임자·증도, 서남쪽으로 비금, 동남쪽으로 암태면과 은암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면적(k㎡)	구성비(%)	읍면동			통리		출장소	
		읍	면	동	리			
					행정	법정		
52.67	8.04	-	1	-	-	24	9	-

▪ 토지 지목별 현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52,669,576	10,241,169.50	7,829,449.70	9,945	9,070

▪ 해안선 및 도서

해안선(km)	도서현황					
	도서(개)	유인도(개)	무인도(개)	면적(km <sup>2</sup> )	세대	인구(명)
90.65	44	1	43	51.19	1,275	2,417

▪ 인구

세대수	인구					
	계	남	여	인구밀도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1,275	2,449	1,260	1,189	46.5	1.9	835



〈사진 6〉 둔장마을 독살



〈사진 7〉 둔장마을 독살

▪ 읍면리별 세대 및 인구

행정 구역	합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4	1,275	2,449	1,260	1,189	2,417	1,249	1,168	32	11	21
한운	40	70	39	31	69	39	30	1	-	1
둔장	44	86	47	39	86	47	39	-	-	-
고교	23	40	19	21	40	19	21	-	-	-
송산	67	128	68	60	125	68	57	3	-	3
두모	32	56	28	28	55	27	28	1	1	-
대울	72	153	81	72	152	81	71	1	-	1
신흥	18	29	17	12	29	17	12	-	-	-
진천	30	64	36	28	63	36	27	1	-	1
유천	47	84	40	44	83	40	43	1	-	1
욕지	32	67	36	31	67	36	31	-	-	-
창촌	24	40	17	23	40	17	23	-	-	-
유각	49	81	46	35	80	46	34	1	-	1
문평	32	56	32	24	56	32	24	-	-	-
금포	45	80	40	40	80	40	40	-	-	-
백길	41	73	40	33	73	40	33	-	-	-
면전	55	105	49	56	103	47	56	2	2	-
백산	39	83	43	40	80	41	39	3	2	1
와우	46	81	42	39	80	42	38	1	-	1
신성	47	101	49	52	101	49	52	-	-	-
분계	24	38	17	21	38	17	21	-	-	-
구영	232	462	238	224	448	233	215	14	5	9
장고	56	121	58	63	121	58	63	-	-	-
고장	107	212	110	102	211	109	102	1	1	-
외기	73	139	68	71	137	68	69	2	-	2



# I 자연생태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             |    |
|-------------|----|
| 1. 기후와 지질   | 20 |
| 2. 주요 식생    | 21 |
| 3. 해수욕장     | 26 |
| 4. 습지생태계    | 31 |
| 5. 생태자원의 활용 | 32 |

# I. 자연생태

## 1. 기후와 지질

기후는 신안군 내해 도서와 마찬가지로 해양성기후를 나타내며, 연평균기온 13.9℃ 내외, 1월 평균기온 2.1℃, 8월 평균기온 27.2℃ 내외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613mm정도이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안개가 많기 때문에 선박항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안군의 섬들은 대략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지각변동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전남 서남해안의 도서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자은면도 화산암 및 화산쇄설암(특히, 응회암)으로 구성되었다.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 마그마가 기존 암 석층을 뚫고 들어와 형성된 화강암 섬도 있는데 암태도와 자은도의 산들이 그러하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들은 자연식생이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생과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다. 자은면의 지형의 자은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특성은 東高西低이며, 서쪽은 주로 경작지와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발달되었다. 동쪽은 두봉산, 두모산, 꽃갈봉, 송곳산 등해발 100~300m이상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의 둔장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은암대교(자은면-암태면을 연결하는 연도교)에 이르기까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 2. 주요 식생

### 1) 산림식생과 식물

신안군 대부분의 산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지만, 1970년대 이전 땃감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곰솔, 사방오리나무 등 속성수로 조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후 관리 부족으로 칩이나 덩쿨류의 식물들이 번성하여 수목들이 훼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은면에는 두봉산(363.8m)을 비롯하여 두모산(227.1m), 꽃갈봉(123.9m), 송곳산(139.1m), 부영산(165.6m)의 낮은 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두봉산은 암태도의 승봉산(355m)과 마주보는 지세를 보이고 있다. 두봉산(자은면)과 승봉산(암태면) 등 도서지역에서 높은 산이 있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독특하다. 이들은 중생대 백악기 말기(약 6천 5백만년전)에 마그마가 암석층을 뚫고 들어와 만든 화강암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남권 도서의 산들은 100~200m정도의 해발고도를 보이고 있지만, 두봉산은 363.8m나 되어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 이호준 등(1991)은 자은도의 식생군락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상록활엽수림으로는 곰솔-사스레피나무군락, 곰솔-자귀나무군락, 곰솔-팔배나무군락의 세 가지 군락으로, 낙엽활엽수림으로는 떡갈나무-밀사초군락, 떡갈나무-산국군락, 굴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음나무군락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사 당시에는 신안군 섬들간의 연도교가 없었고, 특별한 외부 개발은 없었지만, 섬 주민들의 산림이용(예, 남벌, 방목, 개간, 솎)에 의하여 산림이 많이 감소되었다. 최근 국가적인 조림사업과 신안군의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목이 조림되었고, 또한 연료이용과 같은 산림이용이 줄어들면서 신안군의 잠재자연식생인 곰솔과 상록활엽수 등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두봉산 정상은 특히 바위절벽과 암벽이 많아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으며, 등산객을 위한 안전장치가 완비되어 있어서 등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사진 1).

등산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명사-정상-구영저수지, 유천리-천혜방-정상-형제봉-자은초교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요식생은 마을 주변의 식생과 정상부의 식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화강암반이고 토질도 산성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록활엽수나 낙엽활엽수 등 활엽수 식생은 열악하고 토양층 또한 빈약하여 식물상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능선부는 주로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고, 붉가시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이 혼재하고 있다. 남쪽 사면부에는 간혹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성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요 관목으로는 예덕나무, 검노린재나무, 청미래덩쿨, 등나무, 산벚나무, 진달래, 사스레피나무, 개웃나무, 짚레나무, 아까시나무, 노간주나무, 쥐똥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2014년 10월 4일 도명사입구에서 시작하여 두봉산 정상까지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식생군락을 교목층(수고 8m이상), 아교목층(수고 3~8m), 관목층(수고 1.5~3m), 초본층(수고 1.5m이하)로 구분하여 각 층별로 나타나는 식물종류를 기재하였다(표 1). 해발 120m부근에서는 소사나무 관목류가 주로 우점하고 있다. 소사나무군락 주변에는 졸참나무, 자귀나무, 검노린재, 진달래, 붉나무, 청미래덩쿨, 땅빛싸리가 관목층에 함께 나타났으며, 초본으로는 억새가 우점하였고, 주름조개풀, 골무꽃, 그늘사초 등이 출현하였다. 후박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조림되었으나 칩나무 등에 의하여 樹冠이 덮이고 있다.

〈사진 1〉 자은면 두봉산 전경. 정상부는 화강암 암반을 구성되어 있다.



190m에서 부터는 굴참나무-곰솔군락이 시작되었는데, 교목층에는 굴참나무, 곰솔이 우점하였고, 소사나무와 산벚나무도 교목으로 발견되었다. 아교목층으로는 곰솔, 소사나무, 사스레피나무가 발견되었다. 굴참나무-곰솔군락의 관목층에서는 소사나무가 우점하였고, 생강나무, 칩, 노간주나무, 굴참나무, 작살나무, 붉나무, 산딸나무, 청미래덩굴, 예덕나무, 참빛살나무, 팔배나무, 참싸리, 팽나무, 건노린재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으로 억새가 우점하였고, 새, 마삭줄, 골무꽃, 고사리, 용dung굴레, 소엽맥문동, 계요등, 그늘사초, 석곡(희귀, 멸종위기생물 II급), 노루발, 삼주, 보춘화 등이 발견되었다. 해발 300m까지 소사나무군락이 관목층에 우점하고 있으며, 생강나무, 산딸기, 감태나무 등이 함께 출현하고 있다. 초본류로는 마삭줄이 우점하였고, 새, 억새, 계요등, 무릇, 그늘사초, 넉줄고사리, 고사리 등이 출현하였다.

해발 363m 정상부근에서도 소사나무군락이 관목층에 우점하였으며, 졸참나무, 갈매나무, 땅빛싸리 등이 동반 출현하였고, 초본류에는 그늘사초가 우점하였다. 보춘화, 용dung굴레 등이 초본층에서 간혹 발견되었다. 구모동 두모산 북서사면 해발 120m 부근의 곰솔조림지를 조사한바 교목층 곰솔을 제외하고 다른 교목류는 없었으며, 관목층에는 진달래, 사스레피나무, 참싸리, 칩, 청미래덩굴, 굴참나무, 건노린재나무, 돌가지나무, 때죽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층에는 고사리, 새, 억새, 삼주, 골무꽃, 산박하, 참취, 잔대, 미역취, 제비쑥 등이 출현하였다. 이번 도명사입구-두봉산 정상 일대의 식생조사에서는 주로 곰솔, 소사나무, 굴참나무가 교목층과 아교목층을 이루고 있으며, 소사나무는 관목층까지 우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산불이 났던 흔적이 있었고, 주변이 초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초본류 식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희귀, 멸종위기생물 II급으로 구분되고 있는 석곡의 자생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사진 2).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채취되어 거의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는 석곡은 주로 남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그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 산림청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식물이다. 이러한 귀중한 식물이 두봉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표 1] 두봉산 일원 식생 (도명사입구에서 정상까지)

자료번호	조사지역	지형	식생형	우점종 (단위: m)			
				교목층 (8~)	아교목층 (8~3)	관목층 (3~1.5)	초본층 (1.5이하)
1	두봉산 120m	산지 능선부	소사나무 관목층			소사나무	역새
2	두봉산 300m	사면계곡	소사나무 관목층			소사나무	마삭줄
3	정상 363m	산정	소사나무 관목층			소사나무	그늘사초
4	두봉산 190m	사면 상부	굴참나무-곰솔군락	굴참나무	곰솔	소사나무	역새
5	도명사 옆 습지	습지	습지식생				송이고랭이
6	구모동 두봉산 북서사면 120m	사면 하부	곰솔 (조림지)	곰솔	곰솔	진달래	새



〈사진 2〉 열종위기생물 Ⅱ급. 석곡

## 2) 사구식생과 식물

자은면에는 9개의 해수욕장과 모래사장이 있다. 모래유출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석축으로 사구형상의 훼손을 막고 있다. 백길해수욕장과 면전해수욕장, 분계해수욕장, 양산해수욕장에는 사구식물이 잘 발달하였으나 나머지 해수욕장과 모래사장은 사구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계해수욕장의 경우, 아름다운 숲길로 지정된 곰솔군락지가 배후에 있지만, 해안선 침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성한 석축이 오히려 사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자은면 해수욕장의 사구식물로는 갯잔디, 통보리사초, 띠, 갯잔디, 갈대, 순비기, 갯그렁, 번행초, 칩(육지에서 점차 유입되고 있음), 쥐꼬리망초, 도깨비바늘, 매듭풀, 수송나물, 갯매꽃, 애기달맞이꽃(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외래종), 갯쇠보리, 망초, 가는갯능쟁이, 명아주 등이 있다. 사구식생의 중요성은, 원래 사구식물에 의하여 모래사장의 모래가 유출되지 못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백길해수욕장의 경우, 사구식생과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다(사진 3).

해수면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된 사구와 모래를 잡아주는 염생식물인 수송나물, 순비기, 그리고 사구식물인 띠, 통보리사초, 쯤보리사초, 그리고 곰솔군락으로 연결된 식생구조는 잘 보전된 사구생태계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3〉 백길해수욕장의 사구식생의 구조와 주요 식물상

### 3. 해수욕장

자은도 서쪽 해안에는 자연형 해수욕장과 모래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9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과 일반 휴양으로의 기능을 위한 모래사장으로 구분이 된다. 특히 둔장해수욕장은 “해안누리길”로 연결되어 있다. “해안누리길”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선정한 걷기 좋은 해안길이다. “해안누리길”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다와 마을, 주변 경관을 즐기면서 자은도의 문화와 역사, 생태,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해안누리길로 선정된 자은면 “해넘이길”은 송산리와 한운리 일대 12km의 해안길을 걸으면서 ‘천사의 섬’의 낙조를 즐길 수 있는 길이다.

#### 1) 백길해수욕장

자연형 해수욕장으로 자은도를 대표하는 모래사장이다. 주변 곰솔(40~50년생)숲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늘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일부 휴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백사장이 청결하고 앞 무인도의 전경과 함께 자은면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사구식물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해수욕장의 기능뿐 아니라 생태탐사의 장소로 활용되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사진 4〉 백길해수욕장 전경

## 2) 면전해수욕장

백길해수욕장 건너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마리포사리조트가 있다.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백길해수욕장과 동일하다. 마리포사리조트에서 바라본 면전해수욕장의 경관이 아름답다. 특별히 해수욕장시설이 없으나 양질의 모래사장이 있어서 휴양하기에 적합하다. 이정표가 없어서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곰솔식생이 잘 발달되었고, 백사장 환경도 양호하다.



〈사진 5〉 면전해수욕장 전경

## 3) 신성해수욕장

하수처리수로가 있어서 농업용수가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 접근 도로가 불명확하며, 이정표가 없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업용수가 빠져나가는 수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은면 여느 모래사장과 유사하지만, 해수욕장으로서는 정비와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 곰솔군락이 없고, 그들이 없기 때문에 수영객들이 햇빛에 바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수욕장이라기 보다는 마을 모래사장과 같은 형태이다.



〈사진 6〉 신성해수욕장 전경

#### 4) 분계해수욕장

분계해수욕장은 자은면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서 백길해수욕장과 함께 유명한 해수욕장이다. 지리적으로 매의 형상을 한 응암산과 소의 뿔을 닮은 우각도가 감싸고 있는 반월형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에 의한 모래유출이 타 모래사장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분계해수욕장은 모래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사구쪽에 석축이 조성되어 있다. 석축은 사구의 형상을 훼손하고 있지만, 배후에 있는 곰솔군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축이 오히려 해안선의 구조를 변경시켜서 모래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학술적 연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후 식생은 팽나무(직경 70cm)를 비롯하여 거목 곰솔(직경 최대 70cm)으로 되어 있다. 이 숲은 조선시대 바다와 주변 농경지 및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방풍림이다. 방형구조사(20x20m)를 실시한 결과, 팽나무 1그루(직경 70cm, 높이 12m), 곰솔 13그루(직경 25~70cm, 높이 8~15m)가 있었다. 이러한 직경급의 곰솔군락은 신안군에서 매우 드문 것으로서 잘 관리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 배산리 여인송숲은 (재)생명의 숲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통하여 “천년의 숲” 부분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하였다. 분계해수욕장은 오히려 이 숲에 의하여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7〉 분계해수욕장 전경

## 5) 양산해수욕장

신성리에 위치하며 자연형 모래사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양호한 백사장이다.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데크를 설치하여 사구유실을 예방하고 있다. 주변에 곰솔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 중에 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불편하고 시설은 없지만, 양호한 백사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구식물인 갯잔디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통보리사초, 띠, 갈대, 순비기나무 등이 생장하고 있다. 주변에 2013년 임시 개장한 “신안자연휴양림(정식명칭은 다도해자연휴양림)” 및 부대시설이 있다. 이 휴양림은 해수욕장 일대 33.2ha규모에 식재하여 조성한 곳으로서 산림휴양과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위하여 만든 곳이다. 주변 시설물로는 숙박시설, 세미나시설, 휴양관, 취사장 등이 있다.



〈사진 8〉 양산해수욕장 주변 신안자연휴양림 시설

신성리에 위치하며 자연형 모래사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양호한 백사장이다.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데크를 설치하여 사구유실을 예방하고 있다. 주변에 곰솔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 중에 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불편하고 시설은 없지만, 양호한 백사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구식물인 갯잔디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통보리사초, 띠, 갈대, 순비기나무 등이 생장하고 있다. 주변에 2013년 임시 개장한 “신안자연휴양림(정식명칭은 다도해자연휴양림)” 및 부대시설이 있다. 이 휴양림은 해수욕장 일대 33.2ha규모에 식재하여 조성한 곳으로서 산림휴양과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위하여 만든 곳이다. 주변 시설물로는 숙박시설, 세미나시설, 휴양관, 취사장 등이 있다.

## 6) 내치해수욕장

백산리의 내치해수욕장은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구유실을 예방하고 있다. 진입로가 불편하고, 위치가 불명확하여 찾기가 매우 어렵다. 주변 소류지에서 담수(농업용수)가 흐르고 있으며, 주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주변 식생은 통보리사초



〈사진 9〉 내치해수욕장 전경

와 띠 같은 사구식생이 일부 발달하였고, 아카시나무와 곰솔을 식재하였다. 해수욕장으로서 기능보다는 마을 모래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하다.

## 7) 외기해수욕장

백산리에 있으며, 이정표가 없어서 진입로 찾기가 매우 어렵다. 사구식생대 보호를 위한 모래유실 방지 데크가 없다. 농업용수로와 해안가가 연결되어 있다. 사구식생은 잘 발달되어 있고, 통보리사초, 줌보리사초, 띠와 같은 식물이 우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인프라의 부재, 진입로의 불편함, 농업용수의 배출 등 부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백사장이다.



〈사진 10〉 외기해수욕장 전경

## 8) 신돌해수욕장

사월포에 위치하는 자갈형 해수욕장이며, 주변 사유지인 교회가 방치되어 있고, 주변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 교회입구가 해수욕장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폐쇄되어 있다. 규모는 작으나 자은면의 유일한 자갈 해변이다. 사월포 선착장 앞 소룡산(89.1m 일전에 군부대가 있었음)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사진 11〉 신돌해수욕장 전경

## 9) 둔장해수욕장

백길해수욕장, 분계해수욕장과 함께 자은면의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양질의 백사장, 그리고 해수욕장으로서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곰솔 방풍림이 매우 양호하고, 모래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구식물이 잘 보전되어 있다. 둔장해수욕



〈사진 12〉 둔장해수욕장 전경

장 주변 마을은 둔장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살체험, 바지락이나 백합 캐기 등 어촌체험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주변에 축구장 시설이 있어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영과 함께 축구와 같은 구기스포츠도 할 수 있다.

## 4. 습지생태계

자은면 백산리에 위치하는 용소(龍沼)는 방죽, 혹은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서 용소양수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다(사진 13). 이러한 용소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수지나 저류지가 있기 이전에 조성된 둠병으로서 신안군의 비금면, 하의면 등 농사를 주로 하는 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浮葉식물(뿌리는 물 밑바닥에 내리고 잎은 물위에 뜨는 식물)로는 마름, 정수식물(挺水植物, emergent plant, 물에 사는 식물이나 얇은 물에서 자라며 뿌리는 물 밑의 토양 중에 있고 잎이나 줄기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공중으로 뻗은 생활형 식물)로는 여뀌, 갈대, 물참새피, 며느리배꼽, 흰꽃여뀌, 미국비짜루 등이 있다. 버드나무가 관목으로 수변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 용수는 주변 대파밭을 비롯하여 경작지에 물을 대는 용수 기능을 하고 있다. 도명사 부근에는 습지가 있다. 원래가 두봉산 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습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사진 13〉 자은면 백산리 용소의 전경

등산로가 개발되면서 그 물길이 끊겼다. 그러나 현재도 작은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습지는 면적이 15x25m<sup>2</sup>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송이 고랭이, 물달개비 등 습지식물이 자생하였다.

## 5. 생태자원의 활용

자은면은 신안군의 타 섬 보다도 양질의 백사장과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수욕장의 정비와 관리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도에 해수욕장으로서 명시될 정도라면, 접근로와 이정표는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수욕장과 일반 백사장과의 차이점이라면 해수욕장의 경우,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방가로, 주차장, 샤워시설, 화장실 등 기초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은면 9개 해수욕장 중 백길해수욕장, 분계해수욕장, 둔장해수욕장을 제외한 6개의 해수욕장은 이러한 기초적인 시설과 홍보가 매우 미비하다.

해수욕장 중 사구보호(모래유출)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해수욕장이 많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제방이나 석축 보다는 비교적 생태적 공법을 이용한 자연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현재 해안누리길이 일부분만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 면으로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 같은 면에 있지만,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적, 생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자원을 잘 발굴하고 살려서 생물문화적 네트워크화 시킨다면 자은면 전체의 문화적 콘텐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김준민, 김철수, 박봉규(역)

『식생조사법- 식물사회학적 연구법』, 171쪽. 일신사. 1987.

김종홍, 이호준

『한반도 도서의 식물자원연구 I - 동해, 동남해, 서해의 식물상과 식생』,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4.

양효식

『한국 서남해 도서의 소나무림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국생태학회 25(2): 127~134. 2002.

이우철, 이철환

『한국산 소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연구』, 한국생태학회지 12: 257~284. 1989.

이일구

『우리나라 소나무의 분포와 실태』, 자연보존 13 : 5~8. 1976.

이창복, 이용보, 이창희

『신안군 도서지역의 식물상』,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제16호: 31-54. 1980.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이호준, 양효식, 조은부

자은도의 식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이학논문 16: 58-72. 1991.

Hong S.-K

"Changes in landscape patterns and vegetation process in the Far-Eastern cultural landscapes: Human activity on pine-dominated secondary vegetations in Korea and Japan".  
Phytocoenologia 28: 45-66. 1998.



# Ⅱ 고고유적

최 성 략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              |    |
|--------------|----|
| 1. 조사개요      | 36 |
| 2. 고고유적      | 38 |
| 3. 보존 및 활용방안 | 48 |

## II. 고고유적

### 1. 조사개요

#### 1) 개요

신안군 자은면의 고고유적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 지표조사, 자료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사전에 각종 보고서와 학술잡지 등 문헌에 나타나는 기존의 고고유적을 찾아보는 준비작업이다. 현장 지표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고고유적의 확인과 더불어 새로운 고고유적을 찾기 위해 현지를 직접하는 답사를 말한다. 현장 지표조사는 2월 18일~20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는 현지에서 수습된 유물을 연구실에 가져와 세척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유물의 특성을 기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고유적에 대한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지조사에는 이승현(목포대학교 대학원)과 한정훈(세종대학교 대학원)이 동행하였고, 유물의 정리와 보고서의 작업에는 이승현의 도움이 있었다.

자은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유적은 모두 12개소로 지석묘 4개소, 유물산포지 1개소, 분묘군 2개소, 도기요지 3개소, 산성 1개소, 목장지 1개소 등이다. 이 유적들은 백산리에 4개소, 한운리에 4개소, 구영리에 2개소, 유천리에 1개소, 고장리에 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지금까지 보고된 각종 학술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은면의 고고유적의 현황과 성격을 파악한 후에 이들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답사일정

- 2월 18~20일 : 합동조사
- 4월 8일 : 개별조사
- 5월~9월 :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3) 고고유적 목록

번호	유적명칭	성격	위치	비고
1	자은면 고장 지석묘	지석묘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581	향토자료 제3호
2	자은면 구영리 구영산성	산성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두모산	
3	자은면 구영리 구영옹관고분	분묘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	자은면 백산리 백산 지석묘 ①	지석묘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5	자은면 백산리 백산 지석묘 ②	지석묘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6	자은면 백산리 신성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7	자은면 백산리 신성지석묘군	지석묘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8	자은면 유천리 목장지	지석묘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9	자은면 한운리 둔장도기요지	가마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10	자은면 한운리 한운도기요지 ①	가마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11	자은면 한운리 한운도기요지 ②	가마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12	자은면 한운리 한운 분묘군	분묘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그림 1〉 신안 자은면 유적 분포도

## 2. 고고유적

### 1) 조사현황

#### (1) 자은면 고장 지석묘

이 유적은 고장마을 입구의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송곳산(139.1m)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의 말단부로 ‘고장들’로 불리는 넓은 간척지가 내려다보인다. 지석묘는 총 5기가 있었으나 마을길을 내면서 1기가 훼손되었다. 4기는 산줄기 방향과 일치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1호 지석묘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280cm, 단축길이 130cm, 두께 70cm이다. 또한 상석의 상면에는 여러 곳에 걸쳐 성혈흔적이 관찰되며, 상석 아래에는 지석 3개가 노출되어 있다. 이 지석묘는 신안군 향토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 고장 지석묘 전경



〈사진 2〉 고장 지석묘 근경

#### (2) 자은면 구영리 구영산성

이 유적은 구영마을 북동쪽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모산’ 정상부에 墩臺 규모의 석성이 위치한다. 구영마을 동쪽에 위치하는 ‘두봉산’의 산줄기가 북서쪽으로 뻗어져 ‘두모산(225m)’을 형성하며, 서쪽으로 구영리와 동쪽으로 대울리를 경계로 하고 있다. 산성은 정상부를 따라 노두에서 기원한 할석을 이용해 성벽을 쌓았으나 가파른 절벽으로 이뤄진 정상부 북쪽은 자연지형 그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등산로와 정상부에 정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파괴되어 성벽의 석재가 주변에 산재해 있다. 또한 정상부 가운데에 봉수터가 있었다고 구전되지만 그 원형은 찾기 힘들다. 산성주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와 자기편들이 수습된 것을 미루어 조선시대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3〉 구영산성 근경



〈사진 4〉 구영산성 성벽

이번 조사 중 확인된 유물은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으로 유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기편은 적갈색 연질토기편으로 내외면에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토기편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파수부편이다. 자기편은 백자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잘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에 고르게 유약이 도포되었으며, 빙열이 확인된다. 그리고 기와편①은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색조는 태토와 내면이 회백색을 띠고, 외면은 갈색을 띤다. 내면은 포목흔과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정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기와편②는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색조는 태토와 내면이 회백색을 띠고, 외면은 갈색을 띤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사선문이 확인된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5〉 구영산성 수습유물

### (3) 자은면 구영리 구영옹관고분

이 고분군은 구영마을에서 금포마을로 가는 805번 지방도로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100m 정도의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으로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일부는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3년도 조사 당시 도로준설과정 중에 드러난 단면상에서 옹관편이 확인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옹관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6〉 구영옹관고분 전경

※ 참고문헌 : 이현중 2003, 「자은도의 신발견 옹관고분」, 『도서문화』2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4) 자은면 백산리 백산지석묘①

이 유적은 백산마을에서 남동쪽으로 650m 정도 떨어진 안산(38.3m)으로 불리는 야산의 북쪽 능선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사이에 형성된 곡간지로 북쪽으로는 백산들이, 동쪽으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430cm, 단축길이 280cm, 두께 50cm 정도이다. 현재 지석묘의 상석은 북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하부구조로 묘실이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진입이 불가하였고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7〉 2008년도 조사당시 지석묘 전경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5) 자은면 백산리 백산지석묘군②

이 유적은 백산마을 경로당에서 북서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70m) 사이에 형성된 곡간지로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석묘는 야산의 능선방향과 일치하며, 총 3기가 확인되었다. 3기 중 2기는 매몰되어 있으며, 1기는 발독으로 인하여 지석이



〈사진 8〉 백산리 지석묘군② 전경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1호 지석묘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400cm, 단축길이 250cm, 두께 50cm 정도이다. 하부구조로 지석 1매가 관찰된다. 현재 2008년도 조사 때와는 달리 농기계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농로가 포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석묘 일부가 덮여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6) 자은면 백산리 신성유물산포지

이 유적은 신성마을 노인정에서 동쪽으로 600m 정도 떨어진 용소저수지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옛날에 용이 살았다 해서 ‘용소’라 불리는 데 수량이 풍부해서 주변 땅콩밭 등의 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소주변은 광활한 사질토 지대이며, 주변에는 신성지석묘군과 패총 등이 있어 선사



〈사진 9〉 신성 유물산포지 전경

시대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1987년 지표조사에서는 석부 1점, 돌끌 1점, 용도미상의 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7) 자은면 백산리 신성지석묘군

이 유적은 신성마을의 신성교회에서 남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구장달산(73.3m)으로 불리는 야산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사이에 형성된 평지의 중앙으로 남쪽에는 신성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인다.



〈사진 10〉 신성지석묘군 전경

1987년 지표조사 당시 총 5기의 지석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08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조사에서 주변에서 5기의 지석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현재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있으며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지석묘는 산줄기 방향인 동-서 방향으로 균집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지석묘는 이동된 듯 보인다. 대표적인 1호 지석묘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470cm, 단축 280cm, 두께 180cm 정도이다. 하부구조로는 6개의 지석이 관찰된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8) 자은면 유천리 목장지

이 유적은 유천마을에서 남서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야산(180.8m)과 마장산(137.8m) 사이의 골짜기에 자은목장지로 추정되는 석축 흔적이 남아있다. 자은목장에 관한 기록은 『輿地圖書』 「나주목 목장조」에 '자은목장 내 서곶마장은 폭과 둘레가 10리, 말이 130필이며, 남곶마장은 폭과 둘레가 7리, 말이 188필이다. 穀草는 3,200속이며 牧子는 47명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柳川一堤의 서쪽으로 석축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주공열이나 석축 등 목장지와 관련한 여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11〉 유천목장지 전경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 - 전남 신안군 -』

### (9) 자은면 한운리 둔장도기요지

이 도기요지는 둔장마을과 북쪽 야산(72.5m)의 남쪽 사면부 구릉사이에 위치한다. 요지의 서쪽으로는 황해와 인접해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크고 작은 야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학난동들'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나 일부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이번조사에서 유물산포지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도지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한운도기요지'와 인접해 있고 유물의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한운리 일대에 형성된 동시기의 요지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중 확인된 유물은 도기편과 자기편 등으로 유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기편①은 저부편으로 초벌구이만 이뤄진 상태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의 타날문이, 내면에는 물레흔과 손질을 위한 빗질흔이 확인되며, 저부의 내면에는 도기를 포개어 구웠을 때 생기는 비집이 떨어져나간 흔적이 확인된다. 도기편②는 동체부편으로 유약처리가 되었으며 진회색을 띤다. 마찬가지로 외면에 타날문과 내면의 물레흔 등 제작당시의 흔적이 확인된다. 다음은 자기편은 상감청자편이다. 상감기법으로 문양에 흑토와 백토를 입혔다. 잔존하는 부분이 작아 정확한 시기나 기종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지미로 가마소성중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한쪽에만 유약이 묻어있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2〉 둔장도기요지 전경



〈사진 13〉 수습유물

## (10) 자은면 한운리 한운도기요지①

이 도기요지는 한운마을에서 동남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야산(120m)의 북사면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과거 한운마을에서 고교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일명 ‘잔동고개’라고 불린다. 예로부터 도기를 굽는 가마터가 남아있다고 하여 ‘구창촌’



〈사진 14〉 한운도기요지 전경

또는 ‘귀리창촌’으로 불려왔다. 요지는 동쪽으로 황해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자연제방으로 인해 형성된 ‘한운들’이 마을 앞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야산들이 한운마을과 한운들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현재 도기요지는 민묘와 밭으로 경작되어 훼손이 심하며 주변에는 요벽편과 도지미, 도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한운도기요지②와는 같은 구릉 상에 위치하지만 두 요지 사이에 자연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 두 유적으로 분리 하였다. 현재 고교마을로 가는 도로 아래에 위치하여 밭으로 경작되고 있거나 휴경지상태로 남아있다. 도로와 인접한 능선부에서 유물이 확인된 바 없으나, 그 아래에 위치한 밭 일대에는 도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한운리 도기요지① 유적이 위치한 지점에 지석묘로 추정되는 암괴가 포개져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경작 등의 이유로 파괴되어 옮겨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5〉 추정 지석묘(상석과 포개져 있는 상태)

(11) 자은면 한운리 한운도기요지②

도기요지는 한운마을에서 동남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야산(80.6m)의 북사면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과거 한운마을에서 고교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일명 ‘잔동고개’라고 불린다. 옛부터 도기를 굽는 가마터가 남아있다고 하여 ‘구창촌’ 또는 ‘귀리창촌’으로



〈사진 16〉 한운도기요지 원경

불러왔다. 요지는 동쪽으로 황해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자연제방으로 인해 형성된 ‘한운들’이 마을 앞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야산들이 한운마을과 한운들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현재 도기요지는 밭으로 경작되어 훼손이 심하며, 주변에는 요벽편과 도지미, 도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한운도기요지①과는 같은 구릉 상에 위치하지만 두 요지 사이에 자연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 두 유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기요지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경작을 위한 수로에서 노출된 단면에서 유물층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물은 도기편 등으로 유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기편①은 외면에 유약처리가 되어있으며, 타날문이 확인되고 주름무늬가 확인된다. 외면은 녹청자와 유사한 색을 띠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과 손질흔이 확인되며, 시유가 되어 있지 않은 유약을 입힌 도기편으로 판단된다. 도기편②는 저부편으로 타날이 되어있으며 외면을 정리하기 위한 빗질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별도의 시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7〉 한운도기요지 수습유물



〈사진 18〉 배수로 유물층 노출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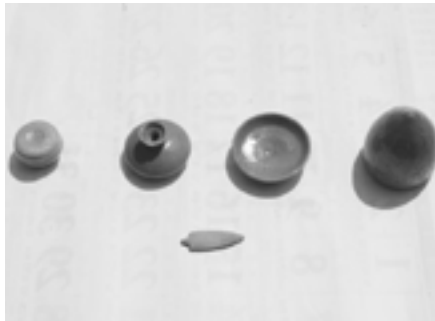
## (12) 자은면 한운리 한운분묘군

유적은 한운마을에서 북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산사면부와 한운저수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쪽으로 황해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자연제방으로 인해 형성된 ‘한운들’이 마을 앞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야산들이 한운마을과 한운들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분묘군은 과거부터 도굴이 빈번하게 행해졌던 곳으로 현재도 작은 규모의 봉분들이 수 기가 잔존해 있다고 보고되었다. 2008년 조사 당시 밭 경작과 민묘의 조성과정에서 고려시대 마상배, 유병, 소형합, 소형접시 등이 출토되어 마을주민 성기근씨(73)가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당시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봉분의 확인이 어려웠고,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9〉 한운리 분묘군 전경



〈사진 20〉 주변 수습유물 (성기근씨 소장 2008)

## 2) 고고유적의 성격

현재까지 자은면에서 알려진 고고유적은 지석묘 4개소, 유물산포지 1개소, 분묘군 2개소, 도기요지 3개소, 산성 1개소, 목장지 1개소 등 모두 12개소이다. 선사시대 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지석묘가 4개소 19기가 알려져 있다. 신안지역에서는 모두 42개군 192기가 확인된 바가 있다. 압해면(12개군 53기)과 안좌면(9개군 72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자은면이 3번째로 많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 신안지역에

서 발견되는 지식묘는 전남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지식묘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은 서로 교류가 가능하였고, 육지로부터 다수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산포지나 수습유물로 보아 선사시대의 주거지도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된 바가 없다. 신안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유일하게 압해면 학교리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내부에 타원형 수혈이 있는 형식이며 전남지역에서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축조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14). 다음으로 삼국시대 옹관고분이 확인된 점이다(이현종 2003). 대형의 옹관이 자은지역에서 확인된 점이 특이하다. 신안지역에서 이미 압해도에서 대형옹관이 발견된 바가 있으나 이 보다 육지에서 먼 자은지역에서 확인된 점은 다른 도서에서도 더 확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분묘군이 발견되었으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성격을 알 수 없다. 이 중에는 신안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백제고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유적은 모두 고려시대 이후의 것으로 분묘, 산성, 목장지, 도기요지 등으로 아직 정확한 학술조사가 되지 않아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중에서 한운리 한운 분묘군은 고려시대의 마상배, 유병, 소형합, 소형접시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산성은 주변에서 발견된 도기와 자기로 보아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목장지는 『輿地圖書』 「나주목 목장조」에 ‘자은목장 내 서곶마장은 폭과 둘레가 10리, 말이 130필이며, 남곶마장은 폭과 둘레가 7리, 말이 188필이다. 穀草는 3,200속이며 牧子는 47명이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의 목장지로 추정된다. 3개소에서 확인된 도기요지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성되었던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신안 도서지역 도기가마는 4개소인데 자은면에서 3개소가 확인되었고, 임자면 괘길리에서 옹기요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가마의 경우 충분한 빨감과 좋은 흙, 물 등의 제작에 필요한 요건과 운반 및 이동, 토기 소성에 유리한 입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은도와 임자도에서 기 확인된 요지들은 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야산이나 골짜기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위에 기술한 요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은도의 경우 위치상 신안 도서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도서지역으로의 운반에도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선

사시대 이래로 역사시대에도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유적인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삼국시대 옹관고분, 중·근세시대의 도기요지이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 3. 보존 및 활용방안

자은지역의 고고유적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고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우선적으로 지석묘의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여야 한다. 총 19기의 지석묘가 알려졌지만 일부는 이미 훼손되었고, 앞으로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유적인 지석묘의 가치를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은도에는 신안군 향토자료 1건(고장 지석묘)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자은도 내 고고유적 중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즉 지석묘, 도기요지, 산성 등은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그 가치가 평가된다면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유적들은 정비·복원된다면 교육자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2) 학술조사의 필요성

옹관고분이나 유물산포지, 산성, 도기요지 등에 대한 정밀학술조사, 즉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적들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도기요지의 경우, 현재까지 신안군에서는 자은도 한운리 일대에서만 밀집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신안 도서지역간 교

역 및 생산활동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은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었으나 만약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고, 그 속에 유물산포지 등 유적이 포함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2008.

###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 압해도 학동유적』, 2014

### 이헌중

『자은도의 신발견 옹관고분』, 『도서문화』2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 최성락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 최성락

『서남해도서지역의 선사문화』, 『도서문화』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0.



李 錦 山  
1900年12月24日生  
1985年10月10日卒  
享年84歲

用水場 許 永 坤  
1915年10月10日生  
1985年10月10日卒  
享年70歲

# Ⅲ

## 역사문화유적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                         |    |
|-------------------------|----|
| 1. 역사유적                 | 52 |
| 2. 자은면의 인물              | 65 |
| 3. 자은면의 역사문화<br>자원 활용방안 | 83 |



## Ⅲ. 역사문화유적

### 1. 역사유적

#### 1) 조사 개요

자은도는 목포에서 서북쪽 해상 41.3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섬으로 팔구포(일명 다이아몬드 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로의 요충지이다. 본섬인 자은도와 33개의 무인도로 자은면을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증도면, 동남쪽으로는 암태면, 서남쪽으로는 비금면과 접해있다.

본 조사 범위는 유인도인 자은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석씨 성을 가진 자가 현 지도읍에서 한운리에 최초로 입도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자은도 주민들의 주요 성씨는 김해 김씨, 밀약 박씨, 경주 최씨, 전주 이씨 등이며, 특정 성씨가 집중되어 있는 마을로는 김해 김씨(백산리), 경주 최씨(유각리), 전주 이씨(고장리), 제주 양씨(구영리), 이천 서씨(유각리), 신창 표씨(와우리), 진주 강씨(둔장리) 등이 있다.

자은도는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던 지역이다. 유각리와 고장리 일대가 말을 기르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은도(慈恩島)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 이여송 장군을 따라 참전했던 중국인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이 남의 나라에서 와서 싸우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다 군대를 이탈하여 피신한 곳이 자은도였다. 자은도 사람들은 두사충(일명 두사춘)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었는데, 자은도 사람들의 인심과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섬의 이름을 자은도(慈恩島)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은도(慈恩島)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이전 기록에도 이미 등장하므로 이 설화는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대에 변형된 지명유래 설화이기는 하나, 두사충(일명 두사춘)과 관련된 구전장소들이 자은도에 많이 남아 있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 설화로 주목된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실존하는 인물이며, 임

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한 명나라 군인으로 실제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 귀화하여 대구에 정착하여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자은도의 역사적 특징은 바닷길의 요충지로 활용된 점이 주목된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말 1377년(우왕 3년)에 설치된 무안 당포의 수군영이 자은도의 구영을 칭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군진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는 우물이 남아 있으며, 병사들이 활을 쏘는 장소를 뜻하는 사장터 등의 지명이 전해온다. 근현대 유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토굴이 한운리 일대에 남아있어 자은도가 해로 활용에 유용한 곳이었음이 확인된다. 자은도의 용소를 일본해군의 급수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흔적도 남아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일제강점기 1925~26년 무렵에 발생한 자은도(慈恩島) 소작쟁의가 유명하다. 중심인물은 송기화(宋基華), 박복영(朴福永) 등이었으며, 소작쟁의 당시 무장경관 150여 명이 출동하여 검거한 농민 숫자만 40여명에 이르렀다. 관련 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은도에 남아 있는 유적 가운데 가장 차별성이 있고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적은 한운리 깃대봉 일대에 조성된 20여개의 땅굴과 자은 용소이다. 자은 용소는 용과 관련된 아름다운 전설이 남아 있는 것이면서, 일제강점기 일본해군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측면에서 보존과 활용가치가 크다. 그 외 역사 유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기념비가 남아 있다.

## 2) 역사유적 목록

자은면에 현존하는 유적 가운데 역사 유적의 목록(선사 및 고대유적, 민속유적을 제외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은면 역사유적 목록

번호	명칭	위치	연대	비고
1	한운리 일제시대 토굴	한운리	일제말기	
2	구영리 장대석우물	구영마을	조선시대	
3	유각리 은암대교비군	유각마을	1740년 · 1854년 · 근대	
4	신창표씨효열비	유각마을	1947년	
5	한운제공로불망비	한운마을	1956년	
6	천두학 자선기념비	은암대교	1932년	신규
7	송용근 송덕비	대울마을	1975년	신규
8	서응렬 공적기념비	구영마을	1942년	
9	이화옥 기념비	구영마을	1936년	
10	허태주 송덕비	두봉마을	1971년	신규

## (1) 한운리 일제시대 토굴

소재지 : 한운리 깃대봉 중턱(7부 능선)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일대 깃대봉 자락에는 약 20여 기에 달하는 군사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현지 주민들이 ‘큰목’ 혹은 ‘처녀고랑’이라 부르는 지역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 U자형의 벙커와 토치카 및 교통호 등의 시설로 일제강점기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산 중턱(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의 군사시설과는 달리 군수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자은면 현지 주민 일부가 동원된 것으로 증언되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유적이다. 시기는 광복직전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토굴의 형태는 깊이 20여 미터에 연결통로 10여 미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양은 ‘U’자형이다. 자은도 주민들의 구전에 따르면 1944년 일본은 패망을 앞두고 인근 섬주민과 자은도 주민들을 강제집행 형태로 모집하여 하루 2교대로 일본군인 1명의 감시 하에 하루에 3~4m씩을 굴착하였다고 한다.

일제말기 일본의 군사작전 지역으로 전남 서해안 일대가 활용되었다. 목포의 경우 제15사단사령부, 사병제429연대, 사병제430연대, 사병제431연대, 사병제432연대, 제15사단 속사포대·통신대·치중대·병기근무대·야전병원, 분진포대, 제211비행장대대, 선박공병제36연대 및 육상특설근무중대 등이 주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목포의 제15사단사령부는 방어 지역인 신안일대로 병력을 투입하여 군사시설 구축작업 등에 활용하였다. 신안 자은도의 경우 군인동원으로 인한 굴착 작업보다는 보국대의 굴착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상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섬 중앙부에 ‘용소’가 있어 이곳을 해군 군함의 식수 보급처로 활용하려 했던 기록이 남았다. 자은도의 경우 주둔 병력이 육군 이외에 해군이 상주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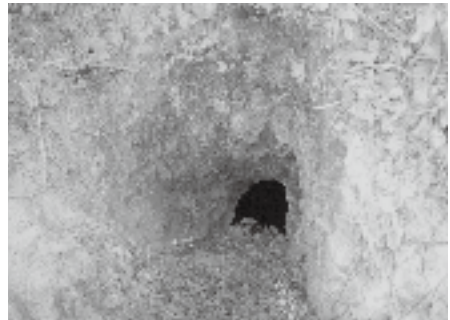
신안군 자은도 깃대봉 일대에서 발견된 군사시설의 용도는 일본군의 서해 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방어와 예비 보급창고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타 지역의 군사시설과는 달리 자은도의 군사시설은 산의 7부 능선을 타고 형성되어졌으며 산 아래에는 선박의 접안시설이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중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군수물자 보급 창고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한운

리 깃대봉 일대의 토굴은 일제강점기 섬을 군사기지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유적이고, 또한 그 수량이 많고 규모가 커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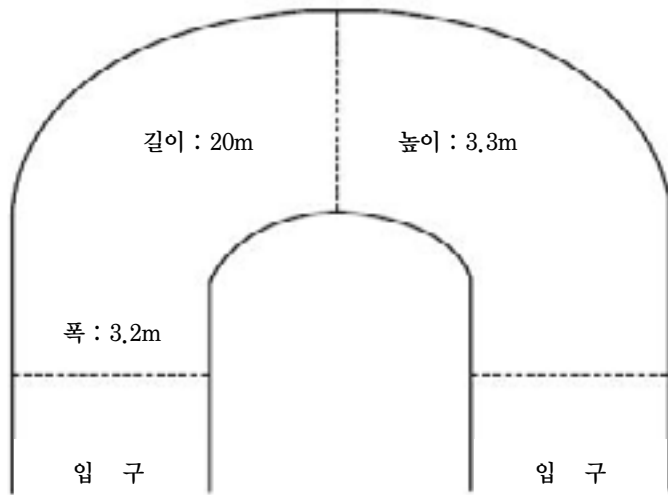
※참고자료: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전남 서남해안 일대 군인동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사진 1-1〉 자은도 한운리 깃대봉 토굴 입구



〈사진 1-2〉 자은도 한운리 깃대봉 토굴



〈그림 1〉 한운리 토굴 내부 구조

[도면출처]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 - 전남 서남해안 일대 군인동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 (2) 구영리 구영장대석우물(舊營里 舊營長大石井)

소재지 :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자은면 구영마을의 북동쪽에 자리한 저수지(구영제)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자은면 구영리는 조선시대 수군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고려말 1377년(우왕 3년)에 설치된 무안 당포의 수군영이 바로 자은도의 구영을 칭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사창터, 원터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있는데, 현존하는 유물로는 수군영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는 우물이 있다. 우물의 크기는 가로 236cm, 240cm, 세로 253cm, 260cm, 장대석 60cm 규모이다. 상·하면에 잘 다듬어진 판석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우물의 각 모서리에는 높이 60cm 정도의 기둥 1매씩이 세워져 있다. 현재까지 우물안쪽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구영리의 장대석 우물은 구영리 옛 수군진(水軍津)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주변의 모습이 변해 우물의 원 모양은 살필 수가 없지만, 규모가 크고 사용내력에 대한 구전이 전하고 있어 자은도를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다. 아직까지 문헌자료를 통해서 자은도 수군영의 존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면에서 이곳 구영리 장대석 우물은 특히 보존가치가 높다. 수군영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되며, 해남우수영의 장대석 우물과 유사한 형태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2〉 구영리 구영장대석 우물

(3) 유각리 은암대교비군(鎭脚里 恩岩大橋碑群)

소재지 : 자은면 유각리 남진마을 은암대교 초입

암태도에서 자은도로 들어오는 은암대교를 지나는 도로 우측에 4기의 비가 세워져 있다. 자은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석씨묘비, 목사 김기현불망비, 일본해군용지 경계석, 계선주(공덕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비의 아래에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비를 붙여 놓은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비 앞에는 간략한 설명문이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석씨묘비’라 불리는 것으로 1740년 건립되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은도에 최초로 입도하여 살았다고 석씨 집안 후손의 묘비라고 전해온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8cm, 너비 45cm, 두께 12cm이다. 이 비는 한운리 저수지 축조 때 제방위에 올려져 있던 것을 발견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정면에 ‘○○將軍 石公萬之 後人鄭氏之 墓(○○장군 석공만지 후인정씨지 묘)’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비를 세운 후손 유담(有淡), 유재(有才), 유○, 유백(有白)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는 ‘목사 김기현 불망비’이다. 1854년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 127cm, 너비 44cm, 두께 18cm의 규모이다. 나주 목사 김기현이 자은면에 어떤 시혜를 베풀어서 면민들이 세운 것이다. 구진변 잡초 속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옮겨왔다. 정면에 “牧使 金侯箕絢永世不忘碑(목사김후기현영세불망비)”가 쓰여 있고, 뒷면에는 건립년도(함풍4년)만 표기 되어 있을 뿐 건립한 내력이 없어 그 유래를 알 길이 막연하다.

세 번째는 ‘대일본해군용지 경계석’이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7cm이고, 너비 16cm, 폭 14cm이다. 이 경계석은 자은 용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비 전면에 ‘大日本海軍用地(대일본해군용지), 후면에 ‘海軍省(해군성)’이라고 각각 새겨져 있다. 용소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자연호수이다. 일본은 목포가 개항되기 이전에 서남해 해역에 일본 해군기지를 두고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이 경계석은 당시 일본해군이 식수 공급을 위해 자은 용소 부근을 급수지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기지임을 표식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용소 일대에서 이와 같은 3기의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 비는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일본 해군의 주 근거지 현 하의면 옥도였다. 옥도에도 이와 유사한 경계석이 남아있다.

네 번째는 ‘계선주’이다. 옛 구영리에서 발견되어 마을 주민들은 수군기지에서 큰 배를 묶어두었던 계선주 기능을 하는 돌기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양이 일반적인 계선주하고는 달리 공적비 모양을 하고 있고, 상부는 갓머리 형태를 하고 있어 그 용도가 명확하지는 않다. 현재 원형의 절반가량이 부러졌다. 비의 규모는 높이 90cm, 너비 31~47cm, 두께 16cm이다.

은암대교에 모여져 있는 4기의 비는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자은면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다만, 현재 위치가 차량이 통행하는 은암대교의 초입에 해당하여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거나 관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진 3〉 자은도 은암대교 비군



(4) 신안 유각리 표한엽효열비(鎭脚里 表漢葉孝烈碑)

소재지 : 자은면 유각리 유각마을

열녀 표한엽(表漢葉)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에 의해 건립된 비이다. 표씨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도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또한 형제와 이웃간에 우의가 두터워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에 1942년 3월 15일 성균관내 대성문화원으로부터 '효열표창문'을 받았다.

이 비는 이러한 행적을 널리 전하고 칭송하기 위하여 장남 양렬(良烈) 이하 후손들이 1947년에 건립한 것이다. 전면에 '新昌表氏孝烈碑(신창표씨효열비)'라 명문되어 있으며, 이병관(李柄觀)이 찬(撰)하고, 이상천(李相天)이 서(書)하였다. 비의 규모는 높이 140cm, 폭 37cm, 두께 20cm이다.



〈사진 4〉 유각리 표한엽 효열비

### (5) 한운제 공로불망비(閑雲堤 功勞不忘碑)

소재지 : 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한운마을 입구의 노인회관 맞은편에 세워져 있다. 한운제를 조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인물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였다. 비 전면의 위쪽에 '故徐公應三(고서공응삼)' 과 '故徐公永澤(고서공영택)' 이라 새겨져 있다. 아래 부분에 '閑雲堤功勞不忘碑(한운제공로불망비)' 라 새겨져 있다.

한운저수지의 제방을 쌓는데 자은면장 서응삼(徐應三)과 면유지 서영택(徐永澤)이 많은 도움을 주어 이에 한운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 1956년에 건립하였다. 서응삼은 유천리 출신으로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자은면 면장을 지낸 인물이다.

서영택은 1920년대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의 활동가이다. 1926년에 자은도 소작쟁의 검속자 중 한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16cm, 너비 39cm, 두께 17cm이다.



〈사진 5〉 한운제 공로불망비

### (6) 천두학 자선기념비(千斗學 慈善紀念碑)

소재지 : 자은면 유각리 은암대교 자은방향

은암대교 자은도 방향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2cm, 가로 41cm, 너비 17cm이다. 비의 전면에 ‘前主事天公斗學慈善紀念碑(전주사천공두학자선기념비)’라 새겨져 있다. 뒷면에 ‘癸亥四月(계해사월)’이라는 건립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이 비가 1923년에 건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극심한 가뭄에 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지역의 지주였던 천두학이 많은 도움을 주어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건립한 것이다.

천두학(1865~1928)은 암태도 출신지주이자 지역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본관은 중국 영양(潁陽), 자는 후빈(后彬)이다. 암태보통학교를 설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는 암태면에서 손꼽히는 지주였으며, 인품이 온후하고 덕망이 있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추앙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암태보통학교가 설립될 당시 학교부지를 희사하여, 암태도의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암태도 단고리 암태초등학교 정문 우측에 그 공을 기리기 위해 1931년에 조성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진 6〉 천두학 자선기념비

### (7) 송용근 송덕비(宋龍根 頌德碑)

소재지 : 대울마을 초입 방죽 뚝방

신흥마을 앞 하천을 막아 농사에 유리하게 공헌을 세운 송용근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건립한 공덕비이다. 마을 초입인 대울마을 뚝방 한쪽에 세워져 있다. 비의 전면에는 '故 宋龍根先生頌德碑(고 송용근선생송덕비)' 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측면과 뒷면에는 “선생은 1903년 8월 13일 우리고장에서 태어났으며, 소년시절부터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1904년에 自羅地를 신흥리로 개명하는 동시에 이 고장의 생명수인 마을 앞 浦江工事を 1940년 10월 10일 착공하여 1941년 4월 5일자로 완공하여 대대손손의 혜은을 깊게함은 물론 이 고장을 부익다복(富益多福)케 하여주신 은혜를 기리고자 여기에 이 송덕비를 세웁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측면 하단에 '新興里民一同 代表 孫炫述(신흥리민일동 대표 손현술)' 이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1cm, 가로 39cm, 너비 14cm이다. 1975년 5월 18일 건립되었다.



〈사진 7〉 송용근 송덕비

(8) 서응렬 공적기념비(徐應烈 功績紀念碑)

소재지 :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자은초등학교 교정

자은초등학교 운동장 담장 쪽에 ‘이화옥기념비’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功)을 기념하기 위한 비이다.

‘서응렬기념비’는 전면에 ‘學敎評議員徐公應烈教育功績紀念碑(교학평의원서공응렬교육공적기념비)’라고 새겨져 있으며, 크기는 높이 102cm, 너비 36cm, 두께 17cm이다. 건립년대는 1942년이다. 서응렬은 자은도 유천리에 거주하는 지역 활동가였다. 자은보통학교 교육평의원으로 있으면서 학교건물이 노후하여 신축할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면민들로부터 신축공사비를 희사 받아 학교를 건립한 공로가 지대하여 면민의 총의에 따라 비를 건립하였다.

서응렬은 197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한국의 민중신학을 개척한 신학자이자 사상가 서남동의 부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임득수 전총무계장 정리, 『자은』, 2002



〈사진 8〉 서응렬 공적기념비

### (9) 이화옥 기념비(李華玉 紀念碑)

소재지 :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자은초등학교 교정

이화옥(李華玉)은 1888년 1월 26일에 제주도에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원적은 제주도 제주면 삼종리(三從里)이다. 어렸을 때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제주군 사립의신학교(私立義信學校)와 경성양성소(京城養成所)를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활동했으며, 제주도 정의, 현 신안 비금 등을 거쳐 1934년에 자은공립보통학교(慈恩公立普通學校長)이 되었다. 이화옥 기념비는 자은초등학교 운동장가에 서응렬기념비와 나란히 서있다. ‘이화옥기념비’는 전면에 ‘公立普通學校長○○○○○李公華玉紀念碑(공립보통학교장○○○○○이공화옥기념비)’라고 새겨져있으며, 높이 144cm에 너비와 두께가 26cm인 정사각형의 비이다.



〈사진 9〉 이화옥 기념비

이름 앞쪽에 6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누군가에 의도적으로 글씨가 지워져 마모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는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칭송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의 건립 년대는 1936년이다.

비의 뒷면에 ‘자은면 일동(慈恩面 一同)’이라 새겨져 있다. 자은면에서 작성한 ‘자은’이라는 기록물(전 총무계장 임득수 제공자료)에는 “진흥의숙이란 사립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서 외에 농사기술, 누에치기, 해태양식 등 다방면에 걸친 실습을 통한 산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년 학제로 되어 있던 진흥의숙의 학제를 보습과 2년을 증설하여 인근 도서에서는 최초로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시킨 공로가 지대하여 이 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인물자료,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 (10) 허태주옹송덕비(許泰柱翁頌德碑)

소재지 : 두봉초등학교 교정

허태주(許泰株, 1884~1963)는 호가 죽사(竹史)이며, 대울마을 출신의 지역공로자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자애롭고 가족에게는 대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평소 빈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 왔다. 1926년 중앙초등학교 설립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며, 1956년 다시 두봉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5천여 평의 부지를 기증하였다. 1959년 자은면장 최재만(崔載萬) 등 면내 유지들이 그의 공을 널리 숭상하기 위해 무안향교에 송덕비를 세우겠다는 자선천장(慈善薦戕)을 띄우기도 하였다. 현재의 송덕비는 1971년 5월 5일 자은 면민들이 협력하여 건립한 것이다. 비의 높이 47cm, 너비 66cm, 폭 21cm 크기이다.

## 2. 자은면의 인물

자은면 출신 역사문화인물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모를 소개한다. 본 자료는 인물들의 활동 내력을 통해 자은면의 역사문화에 이해를 돕고, 자은면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정리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신안군지(2000년 발간)』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누락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추가한 후 향후 새롭게 발간 예정인 『신안군지』 인물편에 수록할 계획이다.

### 강대천(姜大天)

1934년 05년 13일생. 자은면 출신의 기초의원. 중앙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신안군의회 사무과장, 제3대 신안군의회 의원, 제3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청』, 2000 / 신안군의회 홈페이지, 2013. 09. 27.

## 강재식

자은면 출신의 기업인이자 사회운동가. 동서해운(주) 회장. 4·19혁명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허벅지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16대, 17대 4·19혁명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4·19혁명회복지사업단 회장, 4·19구동포장학회 고문, 재정신안군향우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13 재정신안군향우회 회원록』, 2013 ; 연변통신, 2010. 09. 14. ; 4·19革命, 2013. 10. 13.

## 곽종상(郭宗相)

1956년생. 자은면 출신의 정치인. 나주고등학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평화민주당 노원을 지구당 당기위원장, 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협의회장, 민주당 중앙당 전국대의원, 민주당 노원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재정전남·광주향우회 상임이사, 호남향우회장, 아시아태평양평화재산후원회 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을 지냈다. 초대, 2대, 3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원, 8대 서울특별시 의원을 지냈다. 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해외문화재찾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참고자료 : 곽종상 블로그, 2013. 09. 27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2013. 09. 27

## 권흥택

1976년생, 자은면 출신의 공무원. 신안군 자은면 자은초등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졸업 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했으며,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한려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1976년 7급 공채 합격 후 2001년까지 부산광역시 기획실, 내무부 기획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국, 감사관실,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11년 4월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2002년 고흥 부군수, 2006년까지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다. 2006년 신안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참고자료 : 한겨레, 1999. 07. 03. / 신안신문, 2006. 08. 23

### 김동우(金東佑)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봉각(金鳳珪)

1893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황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봉남(金鳳南)

1905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상렬(金尙烈)

1901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황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성진

1953년 8월 25일생. 자은면 출신의 언론인이자 행정관료. 1972년 목포고등학교, 1980년 한국회국어대학교 터키어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1월 동양통신 사회부 기자, 1981년 1월부터 1990년 11월 연합통신 정치부, 외신부 기자, 1990년 2월부터 1995년 5월 국민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 1995년 5월부터 1998년 7월 국민일보 정치부 부장을 지냈다. 1995년 9월부터 1998년 7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998년 8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국내 언론1비서관, 2002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공보수석실 선임비서관, 2002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제2대 여성부 차관을 지냈다. 2003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고려이엔씨 부사장,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EBS 부사장,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EBS 부사장,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30대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강사, 2008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고려이엔씨 사장, 2010년 11월부터 이투스교육 사장이다. 2004년 황조근정훈장, 2007년 자랑스런 외대인상을 수상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인물검색

## 김응렬

1948년 8월 15일 생. 자은면 구영리 출신의 기초의원. 제4대 신안군의회의원, 제4대 신안군의회후반기 운영위원장, 전남농민회운영위원, 국제승공연합강사,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전남운영위원,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 자은면본부장, 민주당전남도당 장애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무안신안지구당 교육연수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제7대 신안군의회 의원이며, 전반기 군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참고자료: 신안군의회 홈페이지, 2013년 10월

## 김이주(金二朱)

미상~2000.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1984년 서울 천호중 교감, 1985년 서울 서연중 교장, 1990년 강동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1992년 정년퇴임했다. 1984년 국민포장,

1992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84. 12. 05. / 동아일보, 1985. 02. 27. / 경향신문, 1990. 03. 01. / 동아일보, 1992. 08. 22. / 한국경제, 2000. 04.10.)

### 김재순

자은면 출신의 경제인. 새서울건설 사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김재실(金在實)

자은면 출신의 정치인. 일본 산노우(産能)대학교 경영관리과를 졸업했다. 대야교역상사 대표, 다이아물산(주) 대표이사를 지냈다. 제1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 총무재무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제2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5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생활환경위원회 간사,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특별실 특보에 임명되었다.

※참고자료 :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2013. 09. 27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2013. 09. 27 / 뉴스1, 2012. 10. 28.

### 김진운(金進云)

1893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8월 언도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진일(金進一)

1949년생. 자은면 출신의 경제인. 자은두봉초등학교, 목포사범 병설중학교, 조선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광주 숙문고를 졸업했다. 1982년 (주)해우GLS를 설립

하여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중국 해우(소주)유한공사 대표이사,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위원,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 인천공항부세운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초대회장, 한국무역협회 GLMP 총동문회 2대회장, 국토해양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사)한국관세물류협회 감사, 인천국제공항 물류촉진협의회 위원을 맡았다. 1999년 3월 김포세관 관세행정공로 표창장 수상(관세청장), 2003년 10월 한국물류대상 물류혁신대회 표창장 수상(건설교통부장관), 2007년 8월 한국무역협회 물류혁신 성공사례 최우수상 수상(경제부총리), 2007년 12월 자랑스런 한국인 물류산업부분 대상 수상(경제부총리), 2008년 6월 2008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 수상(뉴스피플), 2008년 12월 제45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장 수상(한국무역협회), 2009년 3월 제43회 납세의 날 표창장 수상(강서세무서), 2010년 3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중소기업청), 2011년 11월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수상(대한민국 한빛회) 등이 있다.

※참고자료 : 해우 홈페이지, 2013. 09. 27 / 전남일보, 2012. 10. 25.

### 김창수(金昌洙)

1888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6년 자은소작쟁의에 참가했다.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박성철(朴成喆)

1940년생 자은면 고정리 출신의 기업인, 1962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68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중퇴, 1983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7년 전남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를 받았으며, 1998년 한양대 행정학과를 명예졸업했다. 1970년 산업경제신문 논설위원, 1973년 (주)신원 회장, 1981년 한국무역협회 이사, 1990년 스위트수출조합 이사장, 1994년 극동방송 이사, 국민일보 사회이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류산업연합회 회장, 1998년 전경련 운영위원회 위원, 1998년부터 2000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총교우회 회장, 1998년부터 2004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2005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명예회장, 2005년부터 2007년 재경목포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2011년 12월

부터 (주)신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상훈으로는 1981년 석탑산업훈장, 1984년 5천만 불 수출의 탑, 1985년 동탑산업훈장, 1986년 1억불 수출탑, 1987년 금탑산업훈장, 1993년 대신증권연구소 선정 우수기업, 1994년 한국경인대상, 1996년, 1997년 남세표장, 1998년 자랑스런 목포중. 고인상, 1999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회 경영대상 등이 있다. ※참고자료 : 『2013 재경신안군향우회 회원록』, 2013 / 조인스 인물정보, 2013. 10. 08.

### 서남동(徐南同)

1918~1984. 자은면 출신의 신학자이자 대학교수. 호는 죽재이다.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다. 1934년 전주 신흥고등학교, 1941년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을 졸업했다. 1943년부터 1952년까지 대구지방 교회 목사와 한국신학대학 교수를 지냈다. 1957년 캐나다 이매뉴얼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1961년 연세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한국사회에 민중 신학을 개척하였다. 1970년부터 반독재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75년 6월 학원사태로 해직,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저서로는 『전환시대의 신학』(1976), 『민중과 한국신학』, 『민중신학의 탐구』(1984)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 네이버블로그, 『민주신학자 죽재 서남동의 삶을 기억하다』, 2013. 07. 20

### 서영택(徐永澤)

자은면의 지역공로자 자은면의 유지로 자은면장 서응삼(徐應三)과 함께 한운저수지 제방을 쌓는데 기여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자은면 한운리 주민들이 1956년 '閑雲堤 功勞不忘碑(한운제공로불망비)' 를 건립했다. ※참고자료 : 『신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 서옥봉(徐玉奉)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서용수(徐龍洙)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1969년 3월 1일부터 1973년 8월 31일까지 신안교육지원청 초대 교육장을 맡았다. ※참고자료 :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13. 09. 27

### 서응삼(徐應三)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이자 전 면장.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자은면 11대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은면의 유지 서영택(徐永澤)과 함께 한운저수지 제방을 쌓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자은면 한운리 주민들이 '閑雲堤功勞不忘碑(한운제공로불망비)' 를 건립했다. 1956년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08.21. / 『신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 신안군 자은면 홈페이지, 2013. 09. 27.

### 성경섭(成慶燮)

1904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성권수(成權洙)

1905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성낙표(成樂杓)

1896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손악암(孫岳岩)

1895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송기화(宋基華)

1894~미상. 자은면 출신의 사회운동가. 1924년경 결성된 자은청년회의 회장, 1925년 1월 10일 결성된 무목청년연맹 집행위원, 1925년 9월 13일 결성된 무목노동연맹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다. 1926년 자은소작쟁의에 참가했다.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김상욱, 「자은도 소작쟁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갑천(安甲天)

1895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안창화(安昌化)

1903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양두평

미상~1990. 자은면 출신의 경제인. 1977년부터 신안수협조합장을 맡았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1977. 05. 27. / 한겨레, 1990. 05. 17.

### 양복인(梁福仁)

자은면 출신의 예술인. 조각가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6월 7일부터 13일까지 홍익대조각전 참가, 1977년 4월 청년미술조각 21인전 등에 참가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75. 06. 11. / 동아일보, 1977. 04. 20.

### 양봉이(梁奉伊)

1893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양석암(梁石岩)

1905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만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양순길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진도 칠천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참고자료 : 『진도군지』, 2007

### 우갑진

자은면 출신의 기초의원. 1981년 대통령선거인단에 당선되었다. 1991년 동대문구의회 의원에 선출되어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1981. 02. 12. / 동아일보, 1991. 03. 27. / 동대문의회 홈페이지, 2013. 09. 27

### 우경선(禹炘仙)

1942년생. 자은면 출신의 기업인. 1967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8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 1979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1978년 1월 9일 신안건설산업(주)를 창립했다. 서울특별시의원 도시정비위원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회장, 제8대 재정신안군향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 ‘하지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상 2회, 그린주거문화대상 2회 등 수상하였고, 대통령표창 2회(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건설기술촉진 공로), 새마을훈장 노력장, 국민포장(노인복지기여), 은탄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참고자료 : 신안건설산업 홈페이지, 2013. 09. 27

### 우기종(禹基鐘)

1956년생. 자은면 출신의 공무원. 197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5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단 기획국 국장, 2008년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단장, 2009년부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2011년부터 2013년 제13대 통계청 청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 통계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80. 12. 19. / 네이버 인물정보

## 우영운

자은면 출신의 군인. 2005년 공군전투발전단장을 역임하는 등 공군 대령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우판도(禹判道)

1897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만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윤천기

자은면 출신의 대학교수. 현 서남대학교 영어학과 교수이며, 영문소설을 전공한 학자이다. 대한영어영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전복과 광기의 담론: 〈윈더랜드에서의 앨리스의 모험〉 읽기」(2011), 「서남동(徐南同)우연의 미학: 〈버빌가의 테스〉 읽기」(2003), 환상과 좌절 / 환멸의 대조, 그 반복으로서의 〈모호한 주드〉」(1996)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서남대학교 홈페이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논문검색 결과

## 이광우(李光宇)

1933년 ~ 2010년 4월 3일.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이자 사회운동가. 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1980년 5.18 당시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며,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남대에서 해직되었다가 1984년 복직되었다. 1980년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가 되었다. 1991년 5·18 광주민중항쟁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7월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92년에 국민회의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을 맡았다. 1996년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위한 광

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1년 9월 29일 5·18기념재단 제5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2010년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참조자료: 동아일보, 1980. 11. 12. / 한겨레, 1991. 08. 07. / 한겨레, 1991. 07. 24. / 동아일보, 1992. 12. 02. / 동아일보, 2001. 10. 05. / 한국일보, 2010. 04. 05.

### 이성민

자은면 출신의 군인. 2000년에 발간된 『신안군지』에 육군 준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이시보(李時補)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만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이옥경(李玉京)

189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6년 자은소작쟁의에 참가했다.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이종성(李種盛)

1934년 4월 19일생. 자은면 출신의 정치인. 자은고등공민학교를 졸업했다. 민주당 신안군지구당 부위원장을 거쳐 제2대 신안군의회 의원에 선출되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이현동

자은면 출신의 군인. 2000년 『신안군지』 발간 당시 대령이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전기채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아주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최갑석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명지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1996년 퇴임당시 교육훈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최개선(崔開先)

1881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면소되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최기출(崔奇出)

자은면 출신의 공무원. 1995년 감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파견되었다. 1996년 감사교육원 서무과 감사관이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5. 12. 24. / 동아일보, 1996. 12. 28.

### 최명봉(崔明鳳)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최복운(崔福云)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최석봉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무안군 해제면 해제북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최인선

자은면 출신의 공무원. 2000년 『신안군지』 발간 당시 경찰 경정이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최재식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교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최칠남(崔七男)

1942 ~ 2002년 7월 1일생. 자은면 출신의 화학자. 건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화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2002년 7월 1일 간암으로 사망했다. 2004년 8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은 연구를 위해 유독물질을 사용하다가 사망했다는 연관성을 인정하여 배상을 판결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2. 07. 02./ RISS 검색(2013. 09. 29.) /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펄클 토론방, 2004. 09. 10.

### 최홍길

1966년생.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이자 문학인, 서울 선정중학교를 거쳐 현재는 선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월간 한맥문화에 수필이, 월간 문예사조에 소설이 당선되었다. 2004년 창작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출간, 2006년 공동수필집 『자식으로 산다는 것』 출간, 2007년 1월 소년소설 『부엉바위』 출간, 2008년 『영춘중 배순호』 출간, 2009년 『사랑은 많은데 참 사랑이 없다』를 출간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선정고등학교 홈페이지, 2013. 09. 27.

### 표생규(表生圭)

1902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표성천(表聲千)

1887~1950. 자은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1920년 3월 1일 조선독립선언 1주년 기념일을 기념하여 '대한독립 1주년 기념축하 경고문'이라는 문서 인쇄 배포죄로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결성된 자은도 소작인회 임시회장을 맡았다. 자은도소작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소요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일제강점기 왕성한 활동을 했던 항일 운동기이다. ※참고자료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0. 12. 21. /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1926. 08. 16.

### 표한엽(表漢葉)

자은면의 열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부모를 잘 공양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다. 1842년 효열표창문을 받았으며, 1947년 효열비가 건립되었다.

※참고자료 : 『신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 허길수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한영고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허영희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몽탄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허준기

자은면 출신의 동양화가. 남농 허건으로부터 사사 받았다. 목포 탐진회 회원으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였다. 한국 예술 대상전 금상, 전국 미술 대상전 은상, 한국 예술 대상전 특선, 한국 예술 대상전 입선, 전국 미술 대상전 특선, 전국 미술 대상전 특선, 전국 미술 문화대전 입선, 전국 미술 대상전 특선, 한국 서화작가협회 특선, 한국 서화작가협회 입선 경력이 있다. 보건사회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한국예술 대상전 추천작가, 한중문화 운영위원회 회원이기도 하다. 진해 해군 통제부 초청 전시회, 한국 서화 작가 협회전(세종문화 회관), 가락종친회 전라북도 초청 전시회, 목포 탐진회원전 16회 출품 등의 이력이 있다. ※참고자료 : 신안군 예술인 리스트

### 황남열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2000년 『신안군지』 발간 당시 전 교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황생주(黃生周)

1903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황영의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이자 동양화가. 1953년 광주사범학교 졸업했다. 195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남농 허건에게 사사받았다. 일본 동경 국제미전 특선, 광주, 목포, 서울 등에서 한국화 개인발표 8회를 가졌다. 전 초등학교 교장이다.

### 황영희

자은면 출신의 교육인. 광주서림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 황진숙(黃珍淑)

1899 ~ 미상. 자은면 출신의 농민운동가. 1924년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대지주에 맞서 1925년 11월부터 1926년 1월까지 전개되었던 자은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1926년 8월 16일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8. 21.

### 3. 자은면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1) 자은도 땅굴 체험장

##### (1) 사업개요 및 방향

- 위치 : 자은면 한운리 깃대봉 일대
- 규모 : 20여개의 토굴 및 깃대봉 등산로 정비
- 사업의 목표 :
  - 일제강점기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한운리 깃대봉 일대에 조성해 놓은 땅굴을 활용한 체험장을 조성.
- 사업의 방향 :
  - 일제강점기 외딴 섬마을을 군사적으로 활용했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자, 섬마을 땅굴이라는 이색적인 체험공간으로 활용.
  - 20여개의 땅굴을 견학할 수 있는 이동 동선을 정비하여 탐방코스로 개발.

##### (2) 사업내용

도입시설	주요내용
진입로	깃대봉 주변 땅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위치로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
상징물	땅굴 개설의 목적과 위치를 설명하는 안내물 설치
체험시설	땅굴 내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정비
테마활용	땅굴 내부를 활용한 이색적인 테마 공간 조성 (전시 및 체험장)
휴게시설	땅굴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전망대 설치

##### (3) 기본계획

- 한운리 깃대봉 일대의 땅굴을 활용한 이색 체험공간 개발
- 섬마을 땅굴, 일제강점기 섬을 전쟁요충지로 활용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조성
- 땅굴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방안 모색
- 규모를 갖춘 대규모 몇몇 땅굴 내부를 관광객이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



용이 승천했다는 실화가 담긴 자은 용소



## 2) 자은 용소 테마파크

### (1) 사업개요 및 방향

- 위치 : 자은면 백산마을 용소
- 규모 : 1만평 규모 호수
- 사업의 목표 :
  - 용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용소를 자은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개발활용.
  - 용소 주변을 주민들의 공원 및 관광객들의 공원으로 조성.
  -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의 급수지로 활용된 비하인드 스토리 개발.
- 사업의 방향 :
  - 용소 전설을 소재로 하여 주변을 테마파크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함.
  - 용소 전설에 나오면 2마리의 용을 형상화한 상징물을 만들고, 용과 관련된 설화를 활용함.

### (2) 사업내용

도입시설	주요내용
산책로	용소 주위를 산책할 수 있는 순환로 조성.
상징물	용소 설화를 상징하는 용 형태의 상징물 조성.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 경계석 복원 및 안내문 설치.
휴게시설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파고다 등 휴게시설 설치.
소공연장	수변무대 형태로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다양한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체육시설	산책로 곳곳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공원 역할을 함께 수행.

### (3) 기본계획

- 자은 용소 주변의 순환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용과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을 설치하여, 용소 공원을 조성함
- 용소 일대에 소공연장, 쉼터,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대표적인 공원이구로 형성
- 용소 설화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 용소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상품 기획과 더불어 테마파크로 발전시켜 나갈

### 3) 정책 제언

#### (1) 구영산성 및 구영리 일대 유물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

구영리 일대에는 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화유적들이 산포되어 있어, 그 실체와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발굴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관광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2) 한운리 땅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한운리 깃대봉 일대의 땅굴은 일제의 식민지 군사정책을 보여주는 역사자원이자,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 일대에 대한 현황과 내력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IV

## 민속문화

한 은 선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               |     |
|---------------|-----|
| 1. 조사개요       | 90  |
| 2. 가택신앙       | 91  |
| 3. 공동체신앙      | 94  |
| 4. 어업활동과 어로신앙 | 102 |
| 5. 세시풍속       | 105 |
| 6. 민속자원의 활용방안 | 119 |

## IV. 민속문화

### 1. 조사개요

자은면의 민속문화는 크게 가택신앙, 공동체신앙, 어업활동과 어로신앙, 세시풍속으로 구분하였다.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필자가 현지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3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일시	조사마을	조사내용	제보자
2014. 02.18~19	유천, 구영	당제, 비석거리, 공알바위, 선돌 등	양추월(여, 79세), 김상윤(남, 70세)
2014.04.22	유천, 옥지, 사월포, 구영	당제, 세시풍속, 생업, 어업민속 등	김정임(여, 80세), 김자운(여, 70세), 서판례(여, 71세), 서정덕(여, 68세), 김연심(여, 66세), 안영조(남, 73세), 정광복(남, 52세), 정정태(남, 76세)
2014.08.22	면전, 백길	가택신앙, 당제, 세시풍속 등	김처심(여, 91세), 조양심(여, 80세), 성난심(여, 66세), 김순택(여, 56세), 박영례(여, 80세)

가택신앙은 현지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성주, 조상, 삼신, 조왕, 지신으로 구분하였다. 자은면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가택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단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택신앙에 관한 내용은 일부 주민의 기억에 의존하여 정리하였다.

공동체신앙은 구영, 유천, 욱지, 백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네 마을 모두 공동체 신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억과 기존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 마을 공동체신앙의 조사 개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에 정리된 내용과 현지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구영의 경우 당샘이, 욱지는 하당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어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였다. 유천의 경우 비석거리의 부부 석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 당제와 부부석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다.

어업활동과 어로신앙에 관한 내용은 자은면에서 비교적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월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어업활동은 어획어종과 물때로 나누어 살폈으며, 어로신앙은 뱃고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세시풍속은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유천을 중심으로 하여 구영, 욱지, 백길, 면전의 사례도 포함시켰다. 세시풍속은 월별로 먼저 정리한 다음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가택신앙, 공동체신앙, 어로신앙과 마찬가지로 세시풍속 역시 단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초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세시풍속에 자은면의 초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추가하였다.

## 2. 가택신앙

- 일 시 : 2014. 08. 22
- 장 소 : 자은면 면전, 백길
- 제보자 : 김처심(여, 91세), 조양심(여, 80세), 성난심(여, 66세), 김순덕(여, 56세), 박영례(여, 80세)

[표 1] 자은면의 가택신앙 목록

신격	신체	기능	위치	제사 및 차례	전승현황
성주	성주독	가택신	마래	추석, 설, 백중, 유두, 이월 초하루, 칠석	단절
조상	조상독	조상신	큰방	추석, 설, 백중, 유두, 이월 초하루, 칠석	단절
삼신	지양독	출산과 아이의 건강을 관장	큰방	출산 직전부터 출산 후 일곱이레 동안	단절
조왕	주발	부엌신	부엌	매일 주발의 물을 갈아줌	단절

## 1) 성주

성주는 가정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며, 대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자은면에서는 성주를 마래에 모셨다. 성주의 신체는 크게 성주대와 성주동우로 구분된다. 성주대는 한지에 한자를 써 대나무에 붙인 것으로, 마래의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 성주동우는 쌀을 담은 오가리로 마래 바닥에 놓는다. 성주독은 1년에 한번 새 쌀이 나면 바꾸어 주는데, 묵은 쌀은 가족들이 밥을 지어 먹는다. 성주상은 추석, 설, 백중, 유두, 이월초하루, 칠석 등 명절로 인식되는 시기마다 차린다. 성주상에는 나물과 밥, 국, 떡 등을 놓는데, 상에는 수저를 놓지 않는다.

## 2) 조상

조상은 큰방에 모셨다. 신체는 쌀을 가득 담아 참종이를 씌운 오가리이다. 조상독은 가정에 따라 시렁에 올려놓기도 하고 윗목 바닥에 두기도 하였다. 조상상은 성주상과 같이 명절에 차리며, 성주상 옆에 나란히 준비하였다. 이때 성주상에는 수저를 놓지 않지만 조상상에는 수저를 놓았으며, 성주상은 하나만 준비하는 반면 조상상은 조상의 수대로 차렸다. 박영례 씨의 경우 조상상을 6개 차렸다고 한다.

## 3) 삼신

삼신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의 출산과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때문에 삼신은 성주나 조상처럼 평소에 모셔지는 신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때만 모셔졌다.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나 젖이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아이의 건강과 기복을 위해 삼신에게 비순하였다.

성주는 따로 있고 지안은 애기 낳으면 짚 깔아놓고 상 위에 중발에 물 떠놓고 “우리 애기 건강하게 키워주라”고 빌기도 하고 그랬제. 애기 막 낳을라고 할 때 거기에다 물 떠다놓고 막 빌고 그랬제. 시어머니가. 아무 때나. 젖이 적으면 “우리 애기 젖잠 태주라”고 하고, “복도 많이 태주라”고 하고, “명도 많이 태주라”고 하고 그랬제. (박영례, 80세, 자은면 백길)

일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큰방의 아랫목에서 몸조리를 했는데, 삼신은 산모와 아이가 있는 큰방의 윗목에 모셨다. 삼신 역시 동우의 형태로 모셨으며, 이때 삼신동우를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동우가 잠시 삼신동우로 기능이 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삼신동우 위에 미역을 올려놓는데, 산모의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삼신동우의 쌀과 미역으로 산모에게 밥과 미역국을 끓여준다.

아이를 낳으면 조상 앞에 상을 차려 메를 세 그릇 올리는데, 이를 지양밥이라고 하였다. 상은 아이를 낳고 일곱이레가 지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차렸다. 일곱이레란, 이레를 일곱 번 맞는 것으로,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첫 이레가 되는 날 상을 차리고 이후에 이레가 될 때마다 7번을 반복하여 지양상을 차린다. 출산 후 49일 동안 이레가 되는 날마다 지양상을 차리는 것이다. 일곱이레가 지나면 산모도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된다.

#### 4) 조왕

조왕은 부엌에서 모셔지는 신이다. 부엌 아궁이 솔이 걸려있는 곳 위 벽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 그곳에 물을 떠 놓았다. 주발의 물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었다.

#### 5) 지신

지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신이다. 지신은 성주나 조상, 조왕처럼 신체를 따로 모시지는 않는다. 땅을 다지거나 집을 고칠 때는 반드시 지신에게 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손을 댔을 경우 ‘동정’이 나기도 하였다. 땅을 다지거나 집을 고친 후 이유 없이 가족 중 누군가의 몸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동정났다’고 한다. 동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동정잡이’를 해야 했다. 동정잡이는 보통 무당을 불러다 했다. 동정잡이를 할 때는 여러 명이 오지 않고 대부분 법사나 점쟁이 혼자 온다. 자은면 백길에서는 마을에 ‘점치는 할매’라 불리는 우영0(여, 89세) 씨가 거주하고 있어 그녀를 불러 동정잡이를 했다.

동정잡이는 먼저, 무당이 부엌에 들어가 경을 읽는다. 이후 동티가 난 사람을 마당에 앉혀놓고 ‘안 나가른 장두칼로 목을 벤다. 배를 판다’ 등의 협박을 한 후 칼을 들고 나가 밖에 던진다. 동정잡이가 진행되는 사이 바가지에 물과 된장을 섞어 풀어놓는데, 밖에 칼을 던질 때 된장물도 함께 뿌린다. 이렇게 동정잡이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 불편했던 곳이 바로 좋아졌다고 한다.

### 3. 공동체신앙

과거에는 자은면 26개 마을에 16개의 당이 있었으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영리당, 외우당, 백산당, 면전당, 뱃길당, 유천당, 옥지당, 신흥당, 대울당, 고교당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속 도서가 없어서인지 자은면의 민속자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데, 공동체신앙에 관한 자료 역시 양적·질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자은면에 속한 여러 마을의 공동체의례를 살펴보면, 제의 형태나 제일, 그리고 신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월 보름에 공동체의례를 지냈으며, 제의 형태는 상당·하당의 구조를 보인다. 또한 신체는 대부분 신목(神木)이다. 현재 자은면에서 공동체의례를 지내는 마을은 없으며, 제당 역시 훼손되었거나 보존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 1) 구영 당제

- 조사일시 : 2014. 04. 22
- 조사장소 : 자은면 구영리
- 제보자 : 정정태(남, 76세)

##### (1) 조사 개요

구영리에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구영리의 마을 신앙에 관한 자료는 자은면의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편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은면에서 당제가 연행되고 있는 마을은 없으며, 구영리 역시 당제가 중단된 지 40여 년이 넘었다. 구영리 당제는 현지조사와 함께, 「다도해의 당제」와 「자은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2) 제당의 구성과 연행절차

구영리에서는 마을 공동제의를 “당제”라고 하며, 구영리 당제의 제일은 정월 보름이다. 구영리 공동제의를 역시 자은면의 일반적 형태인 ‘상당·하당’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제 → 하당제’ 순서로 의례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사(堂舍)가 따로 있지 않고 신체가 신목의 형태를 띠는 다른 마을과 달리 구영리에는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당집이 있었다. 당집 형태의 상당은 당산 꼭대기에 위치하였으며, 당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상당신은 당할머니로, 한지로 된 신위를 당에 모셨다. 하당에서는 당할아버지를 모셨으며, 신체는 마을에서 ‘새터물’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팽나무였다. 팽나무는 어른 7명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컸으며, 팽나무의 순이 나는 것을 보고 풍년을 짐치기도 했다. 현재는 상당, 하당 모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당에 있었던 팽나무는 6·25무렵에 없어져 새로 심었었는데, 다시 심은 팽나무 역시 5~6년 전에 고사되었다.



〈사진 1〉 구영리 하당(팽나무)이 있었던 자리



〈사진 2〉 구영리 상당

구영리 당제 제일은 음력 1월 15일이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 정월 초하루에 마을회의를 하여 제관 1명과 ‘수정군’이라 불리는 집사 3명을 선정한다. 제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받이가 한 가정에 3성, 다시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이렇게 각기 다른 세 개의 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온전한 집이어야만 제관이 될 수 있었다. 제관은

의례를 주도하여 진행하며, 수정군은 제관을 도와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이 쌀이나 현금을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구영리에는 마을 가장 위쪽에 ‘큰샘’ 또는 ‘웃샘’이라 불리는 당샘이 있는데, 당제를 지내기 전 이 우물의 물을 다 뿜어낸 후 깨끗이 청소하였다. 당제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물은 당샘에서 길러다 장만하였다.

당할머니를 모시는 상당에 대한 의례는 조용히 진행된다. 제관과 집사 3명만 올라가 ‘진설→현작→구축→소지→퇴송’ 순으로 의례를 진행한다. 상당에 올라갈 때와는 달리 제의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팽과리와 북을 치면서 내려오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상당에 대한 의례가 끝남과 동시에 하당에 대한 의례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상당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하당에 대한 의례를 진행한다. 상당에 대한 의례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관과 3명의 수정군만 올라갔지만 하당에 대한 의례는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하당에서의 의례 진행 과정은 상당과 비슷하며, 상은 7개를 준비하였다. 하당제까지 모두 끝나면 주민 모두 음복한 후 저녁 내내 함께 놀았다.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55쪽 / 자은면사무소, 「자은지」, 1997.

## 2) 유천 당제와 비석거리

- 조사일시 : 2014. 02. 18 ~ 19
- 조사장소 : 자은면 유천리
- 제 보 자 : 양추월(여, 79세), 김상윤(남, 70세)

### (1) 조사 개요

유천은 마을의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유천리 당제의 제일은 음력 1월 14일 저녁으로, 30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유천리의 당제에 관한 내용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자은지」를 참조하였다. 유천리의 공동체 의례에서는 당제 이외에도 비석거리의 부부석상에 대해 함께 서술하였다.

## (2) 제당의 구성과 연행절차



〈사진 3〉 유천리 하당이 있었던 곳

유천리의 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된다. 각시님을 모셨던 상당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당산 중턱에, 하당은 마을 앞에 있었으며, 신체는 모두 당목(팽나무)이었다. 당 주위는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당 주위의 나무는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됐다. 하당의 팽나무는 20여 년 전에 고사되어 없어져 현재는 당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소나무를 심어놓았다. 유천리 당제의 제일은 정월 열나흘날 저녁이다. 당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회의를 통해 유고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2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원새끼를 꼬아 제관의 집뿐만 아니라 당샘과 당나무에도 금줄을 쳤다. 제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당샘의 물을 길러다 목욕해야 했다.

제물을 비롯한 당제에 관한 모든 것은 제관이 준비하였다. 제물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했으며, 제물은 보통 목포에서 장을 봐왔다. 제물을 준비할 때는 간을 하지 않고 떡은 백설기를 하였다. 당제는 진설→헌작→재배→구축→소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당제까지 끝나면 음복하고 주민들이 함께 놀았다.

### (3) 유천 비석거리의 부부 석상

자은면의 모든 마을 입구에는 마을 명칭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유천리 마을 입구에도 마을을 상징하는 비석이 있다. 과거에는 유천리 마을 입구 비석의 도로 맞은편을 비석거리라 불렀다. 여러 차례의 농지 정리로 인하여 지금은 그 석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비석거리에는 부부 석상이 있었다.



〈사진 4〉 유천리 비석거리  
부부석상(1984, 사진제공: 최덕원)



〈사진 5〉 부부석상이 있었던 자리(2014년)

부부 석상은 논과 밭의 경계에 있었다. 석상은 그 크기가 달랐는데, 큰 석상은 높이가 80cm정도, 작은 석상은 큰 석상의 2/3정도 크기였다. 두 석상은 앞모습과 뒷모습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앞모습은 두 석상 모두 손을 맞잡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있으며, 뒷모습 역시 두 석상 모두 관대와 흡사한 띠를 매고 있다. 큰 석상은 치마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여성임을 암시하는데, 작은 석상은 아래 부분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파여 있어 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보통 모내기철이 되면 20~30명이 함께 모여 일하는데, 일하는 중간에 참거리(간식)를 내온다. 참을 먹을 때는 논 주변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부부 석상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나와서 먹어야 했다. 이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두 석상 앞에 짚을 펴고 밥과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먼저 차려놓았다. 이렇게 석상에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을 ‘헌석’ 또는 ‘내전’ 이라고 했다. 부부 석상에 대한 헌석은 모내기 때만 이루어졌으며, 추수 때는 하지 않았다. 모내기 때 올리는 헌석이외에 별도로 석상에 대한 의례를 연행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기억하는 주민을 찾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 자은면사무소, 「자은지」, 1997.

### 3) 옥지 당제

- 조사일시 : 2014. 04. 22
- 조사장소 : 자은면 옥지도길 151
- 제 보 자 : 안영조(남, 73세)

#### (1) 조사 개요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면, 옥지마을의 당제 시기가 정월 초사흘날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옥지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당제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은면의 모든 마을에서 공동체의례가 연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옥지마을의 당제도 30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옥지마을의 당제에 관한 내용은 주민의 기억에 의존해 정리하였다.

#### (2) 제당의 구성과 연행절차



〈사진 6〉 옥지 하당

옥지마을의 당은 크게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되는데, 상당은 ‘당봉’이라 불리는 곳에 있었으며 하당은 마을 입구에 신목의 형태로 있었다. 당봉에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주변에 소나무가 있었다.

욕지의 당제 시기는 음력 1월 15일이다. 보통 정월 초하루에 대동계를 하는데, 이때 당제를 모실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상을 당하거나 아이를 임신하지 않는 가정의 깨끗한 사람으로 뽑는다. 제관이 정해지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관집 앞부터 마당 안까지 황토를 뿌리고 고추와 숯을 넣어 왼새끼를 꼬아 제관집과 당, 그리고 당샘에 금줄을 친다.

욕지마을에는 ‘당고랑’이라 불리는 당샘이 있었다. 제물 준비에 필요한 물은 반드시 당샘에서 길러다 사용했다. 하지만 욕지마을은 자은면에서 가장 물이 귀한 마을로 가뭄이 들면 당샘이 말라 사용할 수 없었다. 욕지마을에는 샘이 4개 있었는데, 당샘이 말랐을 때는 마을 안에 있는 ‘통새미(통샘)’의 물을 사용했다. 당샘에는 금줄을 쳤지만, 통새미는 주민들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금줄을 치지 않았다. 대신, 통새미의 물을 이용할 때는 주민들이 일어나기 전인 이른 새벽에 물을 길러다 사용했다. 제물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 주민들이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정월 보름 저녁에 당제를 지낼 때는 제관만 조용히 올라갔으며, 당제를 지내고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과 함께 음복하고 저녁 늦게까지 놀았다. 당제를 지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건굿(지신밟기)’을 시작하는데, 지신밟기를 하는 데는 보통 이틀정도 걸렸다.

#### 4) 백길 당제

- 조사일시 : 2014. 08. 22
- 조사장소 : 자은면 백길
- 제 보 자 : 최혜봉(남, 72세)

##### (1) 조사 개요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면 욕지마을처럼 백길마을의 당제 시기 역시 정월 초사흘날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백길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당제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백길마을의 당제가 중단된 지는 20여년 정도 되었으며, 당제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기억에 의존해 정리하였다.

## (2) 제당의 구성과 연행절차

백길마을의 제당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은면지」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백길마을의 제당이 상당·중당·하당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에 위치하고 중당은 원당에서 우측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 바위의 형태로, 하당은 마을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결과, 백길의 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으로 멀리에서 보면 나무가 빼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봉에 올라가보면 넓은 공터가 있고 그 주변에 나무가 둥글게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자료에는 중당에 관해서는 위치와 함께 신체의 유형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상당과 하당에 대해서는 신체의 유형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당의 위치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과 하당에서 모신 신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제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에서 모시는 신체의 유형이 무엇인지 주민들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백길마을 당제의 제일은 음력 1월 14일이다. 당제를 지내기 전 마을회의를 통해 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 개고기를 비롯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으로 3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3명은 당제를 지내기 5일 전부터 마을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이는 정성을 드림과 동시에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제를 지내기 위함이다. 숙소는 마을회관이나 여유 있는 가정의 작은 방 하나를 임시로 빌려 사용했다.

제물은 목포나 근처의 장을 이용하였다. 제물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제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3일 정도 마을 전체를 돌며 ‘건곳’을 쳤는데, 마을기금은 건곳을 통해 마련하였다.

당제를 지낼 제주가 선출되면 바로 상당과 하당, 그리고 당샘 주변에 금줄을 쳤다. 당샘은 당봉 너머에 있는데, 명칭은 당샘이지만 우물의 형태가 아니라 계곡을 청소하여 임시로 사용하였다. 당제를 지내기 전에 계곡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 우물의 형태로 만들어 제물 준비와 제주의 목욕 등 당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 14일 저녁이 되면 선출된 3명만 올라가 진설하고 조용히 제를 지냈으며, 상당에서 제를 지낸 후 내려와 마을 오른쪽에 있는 하당에 제를 지내는 것으로 백길 당제는 마무리된다. 하당제까지 끝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복하고 놀았다.

## 4. 어업활동과 어로신앙

- 조사일시 : 2014. 04. 22
- 조사장소 :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
- 제 보 자 : 정광복(남, 52세)

### 1) 조사개요

자은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지역이긴 하지만 어업보다는 농업 중심의 섬이다. 자은면에서 어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은 남진, 옥지, 사월포 등이며, 일부 주민은 대하나 김 양식을 하기도 한다. 어업활동과 어로신앙은 자은면에서 비교적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월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자은면의 어업활동에 관한 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어로신앙은 현지조사와 함께 「신안군의 문화유적」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 2) 어업활동

#### (1) 어획어종

1980년대와 지금의 어획어종을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어획어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7년 자료는 「신안군의 문화유적」을 참고

[표 2] 시기별 어획어종 (기준 : 양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87년			새우				황석어, 딱둑, 서대		새우/다른 지역에서 조업			
2014년	휴어기		새우, 황석어				민어			김장새우		

하였으며, 2014년 시기별 어획어종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1980년대에는 7~8월에 황석어를 비롯한 딱둑, 서대 등을 주로 잡고 북풍이 불기 시작한 9월부터는 사월포 근해에서 조업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다. 7~8월에 잡았

던 황석어를 지금은 잡는 시기가 앞당겨져 4~6월에 주로 잡는다. 그리고 7~9월까지 는 민어를 잡는다. 새우는 봄과 가을에 잡는데, 봄 새우와 가을 새우 모두 그 크기는 2cm정도로 비슷하지만 판매 방식이나 식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봄에 잡는 새우는 주로 말리고 가을에 잡는 새우는 생으로 갈아서 김장하는 데 사용한다. 새우를 비롯한 사월포에서 잡은 모든 고기는 수협을 통해 판매하지만 봄에 잡아 말린 새우는 수협에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어획 어종 중 민어가 수익성이 가장 좋다. 일부 어민 중에는 양식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주로 대하와 김 양식을 한다. 김 양식을 하는 가구는 자은면 전체에서 10호가 있으며, 어선을 통한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는 30~40호 정도 된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의 크기는 크게 1~2톤과 3~4톤 두 종류로 나뉜다. 1~2톤의 작은 배로는 주로 바지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는데, 1~2톤의 작은 배로 실뱀장어를 잡는 가구는 약 15호 정도 된다. 3~4톤의 배로는 근해에서 민어나 황석어, 새우 등을 잡는다. 3~4톤의 선박에 비해 1~2톤의 작은 배의 숫자가 훨씬 많다.

## (2) 물때와 바람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어민들의 시간 개념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어민들은 일반적인 달력이 아닌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는 ‘물때’라는 생태적 시간을 사용한다. 자은면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물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은면의 물때 (기준 : 음력)

날짜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명칭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한객기	대객기	조금	무시

물때는 15일이 한사리이다. 물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자은면의 어민들은 25/10일이 한물, 26/11일이 두물, 27/12일이 세물. 28/13일이 네물, 29/14일이 다섯물, 30/15일이 여섯물, 1/16일이 일곱물, 2/17일이 여덟물, 3/18일이 아홉물, 4/19일이 열물, 5/20일이 열한물이다. 6/21일은 열두물로 부르지 않고 ‘한객기’라 부르고, 7/22일은 ‘대객기’, 8/23일은 ‘조금’, 9/24일은 ‘무시’라 부른다.

한물부터 열한물까지는 순차적으로 숫자만 바꾼 후 물을 붙인 명칭을 사용하지만 열두 물부터 열네물까지는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바닷물의 흐름은 조업의 시기를 결정하고 조업의 시기는 그와 관련된 어로신앙의 시기를 결정한다. 어민들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뱃고사는 서무새날(세물)에 이루어진다. 이때는 물이 드는 시기로, 물때로 봤을 때 고기가 가장 많이 올라올 시기이다. 물이 들기 시작하여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세물에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조업은 물때의 영향뿐만 아니라 바람의 영향도 받는다. 물때가 조업의 시기에 영향을 준다면, 바람은 어장과 어종에 영향을 미친다. 4월~5월 봄에는 북동풍이 주로 불고, 6~8월에는 남동풍과 남서풍, 8월 말~이듬해 3월까지의 북동풍과 북서풍이 주로 분다. 바람에 따라 어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동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야 고기가 많이 잡힌다. 농어의 경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7~9월까지 잡히는 민어는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 3) 어로신앙

현재 서남해에서 연행되고 있는 굿의 형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습무 단독으로 굿을 연행하는 경우, 둘째, 강신무가 세습무굿을 익혀 굿을 하는 경우, 셋째, 세습무와 강신무가 함께 굿을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세습무의 단골판이 사라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토착 무당이 없었던 자은면의 경우 1980년대에 세습무와 강신무의 협업에 의한 굿이 연행되었다. 자은면에서 풍어와 안전을 위해 연행했던 뱃고사는 1년 단위로 크게 지내는 뱃고사와 출어 전 간단하게 지내는 뱃고사로 구분된다. 1년에 한 번 큰 규모로 연행하는 뱃고사는 음력 2월에 지내며, 무당이 의례를 주재한다. 다른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자은면 역시 무당의 맥이 끊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2월 뱃고사를 지낼 때는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을 불러왔다. 1987년 자료를 살펴보면, 자은면에서 뱃고사를 지낼 때 세습무와 강신무가 함께 의례를 연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세습무와 강신무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2월 뱃고사는 선주 집에서 메, 술, 시루떡, 나물, 돼지머리 등을 준비하여 배의 이물과 배서낭이 있는 선장실, 그리고 기관실 앞에 진설한다. 굿이 시작되기 전, 무당이나 보살이 배 주위를 돌며 소금을 뿌려 부정을 친다.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면

보살은 선장실에 들어가 징을 치며 경을 읽고 무당은 선장실 밖에서 고폘이를 한다. 고는 7매듭→5매듭→3매듭 순으로 묶고 풀기를 반복한다. 보살이 장소를 옮겨 독경을 할 때마다 무당 역시 장소를 따라 옮겨 다니며 고폘이를 한다. 독경과 고폘이가 끝나면 배를 띄워 근해 어장으로 가 준비한 제물을 던진다. 이때 던진 제물은 용왕에게 드리는 것으로 ‘용왕사자밥’ 이라고 한다. 어장에서의 헌석을 끝으로 뱃고사가 마무리 되는데, 고사가 끝나면 사람들을 초청하여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무당을 불러 지내는 2월 뱃고사와 달리 매달 지내는 뱃고사는 물때에 의해 시기가 결정되는데, 고사는 반드시 세물(서무새날)에 지낸다. 이렇게 세물에 고사를 지내면 보름 기준으로 물때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사를 한 달에 2번 지내게 된다. 물때에 맞춰 서무새날에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이때가 들물로 고기가 가장 많이 올라올 때이기 때문이다. 세물 때라고 해서 아무 때나 고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물도 초물, 중물, 끝물로 구분되는데, 처음에 물이 한 시간~두 시간 들었을 때를 초물이라고 하고, 물이 중간만큼 들었을 때를 중물, 마지막에 물이 다 들었을 때를 끝물이라고 한다. 뱃고사는 서무새날 물이 처음 들기 시작하는 초물에 지낸다. 들물의 시작인 서무새날, 그 서무새날 중에서도 물이 들기 시작한 초물은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이며, 물때에 맞추어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신안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박물관 · 전라남도 · 신안군, 1987, 254~256쪽.

## 5. 세시풍속

- 조사일시 : 2014. 04. 22 / 2014. 08. 22
- 조사장소 : 자은면 유천리, 구영리, 욱지리, 백길리, 면전리
- 제 보 자 : 김정임(여, 80세), 김자운(여, 70세), 서판례(여, 71세), 서정덕(여, 68세), 김연심(여, 66세), 안영조(남, 73세), 정정태(남, 76세), 김처심(여, 91세), 조양심(여, 80세), 성난심(여, 66세), 김순덕(여, 56세), 박영례(여, 80세), 최혜봉(남, 72세)

### 1) 조사개요

일반적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은면 역시 현재 연행되고 있는 세시풍속이 거의 없다. 세시풍속에 관한 내용은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였다.

먼저, 자은면의 세시풍속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	세 시 풍 속		놀 이	시 식	
1월	설날	성묘, 세배, 설빔 입히기, 날씨 점치기, 여자 출입 금기, 성주상 차리기		떡국, 시루떡, 나물 등	
	정초	토정비결, 장 담그기, 불공드리기	연날리기, 윷놀이		
	입춘	입춘축 붙이기, 보리뿌리 점치기			
	대보름	14일	잠 안자기, 장만하기		
		15일	당재, 차례, 찰밥 훑쳐 먹기, 줄다리기, 강강술래, 오곡밥 해먹기, 마당밭이, 더위팔기, 사내기 쫓기, 뒤지기 잡기	줄다리기, 윷놀이, 강강술래, 쥐불놀이	오곡밥(보름밥)
월중	정월달 매장금지				
2월	2월 1일	차례, 영등할매 내려오기, 사내기(노래기) 쫓기, 사내기 밥주기, 더위팔기, 콩 볶아 먹기		볶은 콩	
	월중	개구리 알 먹기			
3월	한식	산일하기			
4월	초파일	불공드리기			
5월	단오	보리개떡 해 먹기	그네뛰기	개떡	
6월	유두	상차리기, 전(밀본지) 지저먹기		전	
	월중	복대림(복달임)		닭고기, 개고기	
	칠석	불공드리기			
7월	백중	상차리기, 흰미리떡(백설기) 해먹기, 강강술래	씨름, 강강술래, 기력장담(들돌 들기)	흰미리떡 (백설기)	
	월중	벌초하기			
8월	추석	차례(14일 저녁), 성묘	강강술래, 산다이	송편	
	월중	성묘(8월1일), 올벼심리		짬쌀	
9월	중구	음식 장만해서 먹고 놀기			
10월	월중	시암지내기(시제), 지붕해이기(지붕갈이), 김장하기			
11월	동지	동지죽 쑤어먹기		팔죽	
	월중	지붕갈기			
12월	섣달그믐	차례, 날씨 점치기			
	월중	설빔 장만하기			
윤달	윤달	집 고치기, 산일하기, 수의 장만하기			
연중	연중	게 점치기, 가지나무로 목욕하기			

## 2) 자은면의 세시풍속

### (1) 정월

#### ① 설

##### • 차례

자은면에서는 차례를 음력 선달그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지내는데, 반드시 12시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설에는 떡국과 시루떡을 주로 먹었으며, 차례 상에 메는 조상 수대로 차린다.

##### • 세배

선달그믐 저녁에 차례를 지내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세배를 다닌다. 세배는 남자와 어린 여자 아이만 다녔다. 세배는 친척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에게도 다녔다.

##### • 성묘

성묘를 가는 시기는 자은면에서도 마을에 따라 다르다. 유천리의 경우 정월 초하루 오전 식사를 마치고 성묘를 갔지만 구영리는 설을 쇠고 3일 후에 성묘를 갔다.

##### • 설빔

새해를 맞이하여 설에 새로 갈아입는 옷을 '설빔' 이라고 하는데,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목으로 옷을 해 입었다. 설빔으로 남자 아이에게는 가래바지를, 성인 여성들은 치마를 해 입혔다.

##### • 날씨 점치기

구영리에서는 당나무(팽나무)에 순이 나는 모양을 보고 그 해의 풍년을 점치기도 하였다.

##### • 여자 출입금기

성인 여성의 경우 정월 초하루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 ② 정초

### • 토정비결 보기

토정비결은 보통 정월 초엿흘 정도에 보러가는데, 마을마다 토정비결을 봐주는 어른이 있었다. 유천리의 경우 준영이 아버지라 불리는 서용재 씨가 토정비결을 잘 봤다고 한다.

### • 장담그기

정월에 장을 담그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초이레 또는 초닷새에 주로 장을 담갔다. 초닷새나 초엿새날 장을 담그면 장이 옛같이 달아서 좋다고 한다.

### • 불공드리기

불교를 믿는 주민들은 정초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유천리의 경우 ‘큰골절’이라 불리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 ③ 입춘

### • 입춘축 붙이기

입춘은 주민이 직접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 써 붙이거나 장사치가 써서 팔러 다니면 사서 붙이기도 하였다.

### • 보리뿌리 점치기

입춘 때 보리 뿌리의 모양을 보고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

## ④ 정월 대보름

### • 차례(15일)

자은면에서는 보통 14일을 장만하는 날, 15일을 먹고 노는 날이라고 한다. 정월 대

보름에 먹는 밥을 ‘오곡밥’ 또는 ‘보름밥’ 이라고 하였다. 15일에 오곡밥과 나물을 준비하여 간단하게 상을 차려 차례를 지내는데, 오곡밥은 쌀, 보쌀, 수시, 차조, 팥을 넣어 짓는다.

#### • 당제(15일)

자은면 26개 마을에 16개의 당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83년 자은면에 남아있었던 당은 10개로, 구영리당, 외우당, 백산당, 면전당, 뱃길당, 유천당, 옥지당, 신흥당, 대울당, 고교당이었으며, 대부분 정월 보름에 당제를 지냈다. 현재 자은면에서 당제를 지내는 마을은 한 곳도 없다.

#### • 찰밥 훔쳐 먹기(15일)

정월 대보름에 마당이나 문밖에 간단하게 차려놓는 음식을 ‘걸판’ 이라고 한다. 대보름에 걸판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놀다가 걷어다 먹었다.

#### • 잠 안 자기(14일)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잠을 자면 속눈썹이 길어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다.

#### • 줄다리기(15일)

자은면의 대부분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에 사용했던 줄의 형태는 모두 외줄이었지만, 편을 나누는 방식은 마을마다 달랐다. 옥지마을의 경우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한 반면, 구영리는 남녀로 구분하여 줄다리기를 했다. 남녀로 구분하여 줄다리를 할 경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대부분 여자편이 이겼다고 한다.

#### • 강강술래(15일)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뿐만 아니라 매달 달이 밝아 뜨기 좋은 보름에 하였다. 강강술래 구성원은 마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유천리와 백길의 경우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강강술래를 하였지만, 구영리는 여자들만 강강술래를 하였다. 한편, 옥지는 남녀가 함께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였지만 남자는 잘 끼워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만 강강술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저녁을 먹은 후 시작된 강강술래는 밤새 멈추지 않았다. 매우 시집살이도 이날만큼은 예외였는데, 강강술래하느라 늦더라도 시어머니가 야단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막걸리와 보리빵을 만들어 먹으며 놀았다.

다 뛰는 사람이 “강강술래”하면, 또 “강강술래”하고 모두 맞이제. 그라고 뛰제. 강강술래 주다가 소리를 안주고 하믄은 “익사 적사”하면서 뛰제. 힘이 살아난게 그때는. 신이 나믄 막 뛰제. 얼마나 재밌다고…… 우리 고구마술 많이도 먹었소. 향아리, 향아리 담아서. 그때가 좋았어. 보리 퍼다가 보리빵도 사다놓고 밤에 잠을 안자고 먹고. 잠을 안 잤소 우리는. 인자 잠을 자제. (김연심, 66세. 자은면 유천리)

강강술래에서 앞소리하는 것을 ‘소리를 준다’고 하였으며, 받는 소리를 ‘소리를 맞는다’라고 하였다. 유천리에서 주는 소리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은 창성이 어머니로 불리던 정칠심 씨(여, 1938년생)였다.

#### • 뒤풀이 잡기

더위팔기와 노래기 쫓기는 자은면 내에서도 마을에 따라 연행 시기가 다르다. 면전에서는 더위팔기와 노래기 쫓기를 보름에 했지만 자은면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연행하였다. 면전에서 더위팔기, 노래기 쫓기와 함께 보름에 연행했던 세시 풍속이 ‘뒤풀이 잡기’이다.

디딜방아 찼는다고 밭에 가서 찼고 다니고. 뒤풀이가 뒤풀이갠다고 못 뒤풀이제. 도구통으로 밭을 찼으면서 “뒤풀이 잡자. 뒤풀이 잡자”. 뒤풀이 놓고 밭을 못 쓴께. 아적에 밭해놓고 밭에 가. 가믄 이렇게 찼으면서 “뒤풀이 잡자. 뒤풀이 잡자.”하믄 뒤풀이가 없다고 그랬어. 전에는. 땅을 뒤풀이. 그러면 곡식이 죽어. 그란께 못하게. 뒤풀이가 뒤풀이블믄 보리가 다 죽어블어. 그란께 못 죽게 할라고 “뒤풀이 방에 찼자, 뒤풀이 방에 찼자.”하고 찼었어. (김처심, 91세. 자은면 면전)

정월 대보름에 밭으로 나가 “뒤풀이 잡자. 뒤풀이 잡자.” 또는 “뒤풀이 방에 찼자. 뒤풀이 방에 찼자.”라고 외치면서 밭을 절굿공이로 찼는다. 뒤풀이는 두더지의 방언으로 두더지가 땅을 뒤풀고 다녀 밭농사를 망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뒤풀이 잡기를 하였다.

## ⑤ 월중

### • 정월달 매장금지

정월에는 초상이 나더라도 땅 속에 시신을 묻지 못하였다.

## (2) 2월

### ① 이월 초하루

#### • 영등할매 내려오기

자은면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하리날’ 이라고 불렀다. 영등할매는 이월 초하루에 내려와 이월 이십일에 올라가는데, 물영등이 내려올 때와 바람영등이 내려올 때의 일기가 각각 다르다. 물영등이 내려올 때는 영등할매가 내려와 있는 20여 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영등할매가 올라가는 20일 이후부터는 비가 안 온다. 반면, 바람영등이 내렸을 때는 20여 일 동안 바람이 줄곧 불다가 20일 이후부터 바람이 잦아든다.

자은면에는 ‘닭꼬리만 살짝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풍년든다.’ 는 의미의 “아침에 바람이 장닭 꼬랑지만 날려도 풍년든다.” 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물영등보다 바람영등이 내려야 농사가 잘된다(시절이 잘된다)는 뜻이다.

#### • 사내기 밥주기와 사내기(노래기) 쫓기

노래기 쫓기는 대부분 정월 대보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연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자은면에서도 마을에 따라 시기가 다르게 확인된다. 자은면에서는 노래기를 ‘사내기’ 라고 불렀으며, 뱀이나 사내기를 쫓기 위해 ‘사내기 쫓기’ 를 하였다. 사내기 쫓기를 하는 시기는 마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자은면의 대부분 마을에서는 사내기 쫓기를 이월 초하루에 했지만 면전의 경우 정월 대보름에 사내기 쫓기를 했다고 한다. 이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마을의 아이들은 산에 올라가 푸른 솔가지를 자루 가득 꺾어 온다. 이월 초하루가 되면 새벽 일찍 일어나 “사내기 밥주자” 하면서 꺾어온 솔가지를 지붕에 던진다. 사내기는 주로 초가의 지붕에 사는데, 이월 초하루에 사내기에게 밥을 주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지붕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

사내기 쫓기는 두 명이 한조로 이루어진다. 먼저, 원새끼를 꼬아 마른고추, 머리카락, 숯을 끼우고 피마주나무에 묶는다. 한 명이 앞서서 이 나무를 끌고 집을 한 바퀴 도는데, 가면서 “진 데 꺾자, 자른 데 꺾자” 소리 내면, 다른 한 명은 긴 막대로 앞의 새끼줄을 때리면서 따라간다. 집을 한 바퀴 돈 후에는 원새끼 꼬아 묶은 피마주나무를 태우거나 집 밖으로 멀리 던져버린다.

#### • 더위팔기

더위팔기 역시 연행 시기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신안군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정월 대보름에 더위팔기를 하지만 자은면에서는 주로 이월 초하루에 더위팔기를 한다. 필자의 조사 결과 더위팔기 역시 사내기 쫓기와 마찬가지로 자은면 내에서도 연행시기가 차이를 보이는데, 면전의 경우 정월 대보름에 사내기 쫓기와 더위팔기를 하지만 다른 마을은 대부분 이월 초하루에 사내기 쫓기와 더위팔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더위팔기는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뒤 돌아보면 상대에게 “니더우 내더우”한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부른 사람은 자신의 더위를 대답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되어 그 해에 덥지 않게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 • 차례

자은면 주민들은 선달그믐(설날), 정월대보름, 팔월추석과 함께 이월초하루, 유월유두, 칠월백중도 명절로 여겼으며, 이월초하루, 유월유두, 칠월백중에도 제물을 장만하여 간단하게 상을 차렸다.

### ② 월중

#### • 콩 볶아 먹기

자은면에서는 하리날에 손꼬스름(손톱 위의 피부가 일어나는 것) 일어나지 말라고 콩을 볶아 먹었다.

### 3) 3월

#### ① 한식

##### • 산일하기

한식에는 귀신이 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때 산일을 하였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자은면에서 초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초분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월에는 땅을 못 다룬다'고 하여 정월에 사망하면 바로 땅속에 묻지 못하기 때문에 초분을 쓴다. 둘째, 고인의 유언에 따라 초분을 쓴다.

우리 할매가 옛날에 그럽디다. 물 쪽 빠지고 그렇게 바람 씨갓고 땅에 들어가면 좋다고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해주라고해서 해드렸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바로 흙에 묻히는 것보다 나쁜 거 다 빼버리고 깨끗하게 가면 좋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드렸제.

(제보자 : 박영례, 80. 자은면 백길)

살이 있는 상태로 땅 속에 묻히는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살이 내려 땅에 묻히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분을 고집하기도 하였다. 박영례 씨의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사망 후 초분을 썼는데, 남편은 정월에 사망했기 때문이며, 시어머니는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장지는 황토흙이 좋고 물이 안 나며 돌이 적은 곳을 명당으로 본다. 하지만 초분을 쓰는 장소는 물이 많고 습하여 되도록 살이 잘 썩는 곳을 선호한다.

이런 이유로 박영례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초분은 방죽 근처의 모래로 된 땅에 마련하였다. 초분은 받침돌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 마람으로 돌려놓는데, 마람은 매년 바꾸어 준다. 살이 다 썩어 내려앉아서 뼈만 남은 것을 '낙근된다'라고 하고 낙근이 잘돼야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초분을 쓴 지 3년 이후부터 매장이 가능했다. 박영례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두 분 모두 9년 만에 이장하였다.

(4) 4월

① 초파일

• 불공드리기

불교를 믿는 주민들은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유천리의 경우 ‘큰골절’이라 불리는 ‘도명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5) 5월

① 단오

• 보리개떡 해먹기

단오가 되면 버짐 피지 말라고 가시꽃(가시나무꽃)을 따서 개떡을 해 먹었다.

• 그네뛰기

단오가 다가오면 마을 어른들이 새끼줄을 짜서 사장의 큰 나무에 매달아 그네를 만들어주면 그네뛰기를 하고 놀았다.

(6) 6월

① 유두

• 상차리기

자은면에서는 유월유두도 명절로 여겨 제물을 장만하여 상을 차렸다.

• 전 지저먹기

유두에는 밀가루로 전을 지저 먹었다. 이렇게 밀로 지진 전을 ‘밀본지’라고 하였다.

## ② 월중

### • 복대림(복달임)

복날 음식을 해 먹는 것을 ‘복대림’ 이라고 했으며, 초복, 중복, 말복에 음식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복날에는 주로 닭 또는 개를 잡아먹었는데, 6월 20일에 닭을 잡아먹으면 약이 된다고 하여 이날은 반드시 닭을 잡아 복대림을 하였다.

## (7) 7월

### ① 칠석

#### • 불공드리기

불교를 믿는 주민들은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 ② 백중

#### • 상차리기

자은면에서는 백중도 명절로 여겨 제물을 장만하여 상을 차렸다.

#### • 흰미리떡(백설기) 해 먹기

백중에 흰미리떡(백설기)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여 해 먹었다.

#### • 씨름

백중에 자은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마을 전체 주민이 모여 씨름을 하였다.

#### • 들돌들기

유천리에서는 들돌들기를 ‘기력장담’ 이라고 하였다. 마을 앞에 큰 돌이 있어서 남자들이 돌을 들어 힘겨루기를 하였다. 유천리에서 들돌을 잘 들었던 사람은 ‘장사할 아버지’ 라 불리는 서혹배 씨였다.

- 강강술래

자은면에서는 칠월백중에도 강강술래를 하였다.

### ③ 월중

- 벌초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칠월그믐 이전에 벌초를 하였다.

## (8) 8월

### ① 추석

- 차례

추석 차례는 14일 저녁에 차리고 15일에는 장만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논다. 차례를 지낼 때 상에 반드시 송편을 올리는데, 송편에는 콩가루나 팥을 주로 넣는다.

- 성묘

차례는 14일 저녁에 지내지만 성묘는 15일 아침 식사를 한 후 간다.

- 강강술래

추석에도 강강술래를 하였다.

### ② 월중

- 을벼심리

마레에는 성주와 지양독(성주독)이 있다. 새 곡식이 나오면 지양독에 있는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갈아주었다.

- 찢쌀해먹기

팔월에는 덜 여문 벼를 미리 거두어 찢 말린 후 찢어 먹었다.

## (9) 9월

## ① 중구

중구 때는 음식을 장만해서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자은면에서는 중구를 명절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차리지는 않았다.

## (10) 10월

## ① 월중

## • 시제

자은면에서는 시제 모시는 것을 ‘시양지낸다’ 라고 하였으며, 보통 10월 15일에 시제를 모셨다.

## • 김장하기

시제를 모시고 난 후 김장을 하였다.

## (11) 11월

## ① 동지

## • 동지죽 쑤어먹기

동지에는 팔으로 죽을 쑤어 먹었다. 나쁜 잡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동지죽을 마당과 벽에 뿌리기도 하였다.

## ② 월중

## • 지붕갈기

자은면에서는 봄, 가을에 지붕을 갈았는데, 이를 ‘짚으로 지붕해인다’ 고 하였다.

## (12) 12월

### ① 설달그믐

#### • 차례

일반적으로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설날 아침이 아닌 설달그믐 늦은 저녁에 차례를 지내는데, 자은면 역시 설달그믐에 차례를 지낸다.

#### • 날씨 점치기

설달그믐에 꾸민 꿈을 통해 풍년을 점쳤는데, 설달그믐에 풀(도랑)이나 눈에 물이 차는 꿈을 꾸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 ② 월중

#### • 설빔 장만하기

설에 새로 입힐 옷을 미리 준비하였다.

## (13) 윤달

윤달에는 평소에 금기시하였던 집 고치기, 산일하기, 수의 장만하기 등을 했다.

## (14) 연중

#### • 계 점치기

빨등(개필)에 계가 만들어 놓은 모양을 보고 농사를 점쳤다. 콩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콩 농사가 잘 된다고 하였으며, 녹두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녹두 농사가 잘 된다고 점쳤다.

- 가지나무로 목욕하기

가을에 가지나무를 끓여서 머리 감고 목욕도 했다.

## 6. 민속자원의 활용방안

자은면은 신안군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민속자원의 전승력이 약한 편이다.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장산도 들노래와 씻김굿, 흑산도 진리 당제, 대둔도 수리 풍어제, 도초도 고란리 당굿 등 신안군은 문화자원의 지역적 특색이 매우 강한 곳이다. 하지만 자은면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 만한 민속자원을 찾기 힘들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연구 자료에 자은면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민속자원에 대한 소개가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자은면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당제뿐만 아니라 민속문화 전반의 자료가 매우 미약한 편인데, 자은면에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민속문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부속도서가 없어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연구자들의 집중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자은면의 민속자원을 주목하여 정리하고 발굴된 자료를 통해 지역을 이미지화 할 필요가 있다.

### 1) 공동체의례의 관광자원화

과거에는 자은면 26개 마을에 16개의 당이 있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영리당, 외우당, 백산당, 면전당, 뱃길당, 유천당, 옥지당, 신흥당, 대울당, 고교당이 있었으나, 현재 자은면에서 당제를 지내는 마을은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마을의 경우 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복원한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관광객들의 기호와 관심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시각적 관광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관광을 선호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속자원 흔적이 남아 있는 마을의 경우 이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민속자원을 복원시켜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구영리 마을 위쪽에 위치한 우물은 당제 때 사용했던 당샘으로 신성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우물의 기능과 상징에 대한 설명이 없음은 물론이고,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있어 과거에 신성성을 간직한 당샘이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이다.

구영, 욕지, 유천 등 민속자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복원 작업을 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자은면만의 지역색을 갖춘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세시풍속의 교육적 활용

전술한 바와 같이 자은면에서 현재 연행되고 있는 민속자원은 거의 없다. 세시풍속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중단된 지 오래되어 주민들에게 이를 기억하게 하는 일조차 힘든 형편이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세시풍속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새내기 쫓기’와 ‘강강술래’이다. 새내기 쫓기와 강강술래는 신안군의 모든 지역에서 연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진도와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의 사례처럼 보편적인 민속자원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 강하게 인식되어 전승되는 민속자원의 경우 그 지역만의 특색을 지닌 민속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자은면 주민들은 다른 세시풍속에 대한 기억은 매우 약한 반면, 새내기 쫓기와 강강술래에 대한 기억은 뚜렷했다.

자은면의 모든 마을에서 강한 전승력을 보였던 새내기 쫓기를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절되었던 민속자원의 지속과 함께 자은면 만의 특색있는 민속자원 전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 어로문화

고 광 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         |     |
|---------|-----|
| 1. 조사개요 | 124 |
| 2. 채취어법 | 124 |
| 3. 그물어법 | 128 |
| 4. 함정어법 | 134 |
| 5. 낚시어법 | 139 |
| 6. 활용방안 | 142 |

## V. 어로문화

### 1. 조사개요

자은도(慈恩島)는 신안군 북서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증도, 동남쪽으로는 압태도, 서남쪽으로는 비금도와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임자도와 이웃한다. 자은도는 행정적으로 자은면(신안군) 관내에서 유일한 유인도이다. 자은면은 자은도 외에 30여 개의 무인도를 거느린다. 자은면은 한우리, 송산리, 대울리 등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자은도 사람들은 바다밭에서 어로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며 면면하게 어로문화를 창조, 계승시켜왔다. 자은도 사람들의 어로문화 속내는 어떠하였을까.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그리고 2013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자은도에 머물면서 자은도에서 오랫동안 바다밭에서 삶을 꾸려온 여러 어르신에게 자은도의 전통 어로문화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은도의 전통적인 어로문화를 채취어법, 그물어법, 함정어법, 낚시어법으로 나누어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은도 어로문화 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채취어법

채취어법은 간단한 어구나 맨손으로 해산물 따위를 잡아내는 원초적인 어법이다. 자은도의 전통적인 채취어법을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들여다보고자 한다.

## 1) 바닷

‘바닷(보라털)’은 홍조류 보라털과의 해조(海藻)다. 몸의 길이는 3~15cm 정도다. 사상체(絲狀體)이고, 누런색을 띠는 자갈색이다. 조간대 상층 갯바위에 붙어 자란다. 겨울에 비교적 왕성하게 번식된다.

### [사례1] 자은면 송산리 두모마을 최동심씨(1930년생, 여)

이 마을 바닷 어장은 ‘할미섬’이다(도1). 어기(漁期)는 음력 4~5월이다. ‘바닷글갱도, 할미섬(자은면 한운리 둔장마을)’라는 어구로 갯바위에 붙은 바닷을 긁어 채취한다. 바닷글갱이는 갯바위에 붙어 자라는 바닷을 긁어 채취하는 글갱이다. 바닷을 넣어 말린다. 깨끗한 물에 씻어 솥에서 달인다. ‘얼맹이(어레미)’에서 걸러내면 찌꺼기는 얼맹이 안에 남고 바닷 삶은 물은 찻불로 빠진다. 바닷 삶은 물을 목처럼 굳힌다. 이를 ‘바닷묵’이라고 한다.



〈도 1〉 할미섬(자은면 한운리 둔장마을)

## 2) 대합

백합(白蛤)이라고도 한다. 백합과의 조개로 흰빛을 띤 잿빛 갈색에 붉은 갈색의 세로무늬가 있고 매끄러우며 안쪽은 희다.

### [사례2] 자은면 한운리 둔장마을 강세원씨(1956년생, 남)

대합 어장은 이 마을 북서쪽 백모래밭이다. 이곳을 ‘장불’이라고 한다. 지금 둔장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는 음력 5월부터 음력 8월까지다. ‘대합성애’라는 갈퀴로 채취한다. 대합성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도2).

정삼각형의 밑변은 두께 5cm, 길이 38.5cm 철판이다. 정삼각형의 변은 철사다. 꼭짓점에 둥그런 파이프를 붙인다. 이것에 아카시아나무 자루를 박는다. 그리고 파이프에 나일론 줄을 묶는다. 나일론 줄을 허리에 두른다. 그리고 양손으로 대합성애의 자루를 잡고 뒷걸음을 친다. 정삼각형 밑변의 철판은 백모래밭 속을 긁어나간다. 그러면 백모래밭에 박힌 대합이 철판에 걸려 바깥으로 드러난다. 백모래밭 바깥으로 드러난 백합을 손으로 줍는다.



〈도 2〉 대합성애

### 3) 가리맛조개

긴맛과의 바닷조개다. 원통 모양이다. 자은도와 암태도 사람들은 가리맛조개를 '맛' 이라고 한다.

#### [사례3] 자은면 송산리 두모마을 강갑태씨(1940년생, 남)

개펄에 박힌 맛을 '펼맛', 그리고 백사장에 박힌 맛을 '불맛' 이라고 한다. 펼맛과 불맛은 '맛써개' 라는 어구로 갯바닥에 길쭉하게 박혀 있는 맛을 찢러 잡는다.

### 4) 수통개

바윗갯과의 하나인 갈게다. 두흉부는 윗면이 한 장의 등딱지로 덮여 있고 일곱 마디의 복부가 붙어 있다.

#### [사례4] 자은면 유천리 창촌마을 최성울씨(1934년생, 남)

수통개는 음력 9~10월에 생식활동을 벌인다. 이 무렵에 수통개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 여기저기에서 울어댄다. 그래서 이 무렵의 수통개를 '고동개' 라고 한다. 생식활동을 끝낸 수통개는 겨울이 깊어가면서 사리 밀물 때 겨우 바닷물이 미치는 갯바닥이나 갯둑의 지면에서부터 보통 50cm, 최고 90cm까지 파고 들어가 겨우살이에 들어간다. 날이 추우면 깊이, 그리고 따스한 날에는 얇게 들어간다.

봄이 되면 겨우살이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 산란한다. 산란을 끝낸 수통개는 몸에서 냄새도 날뿐만 아니라 맛도 푹 떨어진다. 그러니 겨우살이 동안에만 채취 대상으로 삼는다. 수통개의 구멍이 보이면 삽으로 흙밥을 뜬다.

기씨개로 구멍의 상태를 가늠한다. 구멍이 꾸불꾸불하면 다시 삽으로 흙밥을 떠낸다. 곧바로 뚫린 구멍에 기씨개를 집어넣고 수통개를 걸러낸다.

이를 '수통개 낚는다' 고 한다. 자은도 사람들은 수통개를 잡아 간장에 담갔다가 깨소금과 참기름을 쳐서 먹는 경우가 많다.

## 5) 낙지

낙지는 낙짓과의 연체동물이다. 몸길이는 70cm 가량으로 여덟 개의 발이 있고 거기에 많은 빨판이 붙어 있다. 몸빛은 회색이나 주위의 빛에 따라 변색하며, 위험이 닥치면 먹물을 뿜으며 도망친다.

### [사례5] 자은면 대율리 신흥마을 김점술씨(1934년생, 남)

어장은 이 마을 남동쪽 개펄이다. 여기는 음력 2월에서부터 동짓달까지다. 낙지는 그 이외 음력 12월과 음력 1월까지 깊은 바다에서 월동한다. 봄에 잡는 낙지를 ‘봄낙지’, 여름에 잡는 낙지를 ‘여름낙지’, 가을에 잡는 낙지를 ‘가을낙지’ 라고 한다.

낙지는 야행성이다. 낮에는 일정한 개펄 구멍 속에 들어간다. 낙지 구멍은 둘이다. 낙지가 개펄을 파고 들어간 구멍과 숨구멍이다. 낙지가 개펄을 파고들어 간 구멍을 ‘낙지구멍’, 숨구멍을 ‘부룻’ 이라고 한다.

낙지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봄낙지와 가을낙지는 ‘낙지가래’ 라는 도구로 낙지구멍을 파서 잡는다. 여름낙지는 낙지구멍에 일정한 장치를 맨손으로 설치하여 낙지를 잡는다. 이를 ‘묻음낙지’ 라고 한다. 가래로 낙지를 잡는 것은 채취어법이, 묻음낙지는 함정어법이다.

낙지가래로 낙지잡이는 조금 날부터 서무날(음력 12일과 27일)까지 이루어진다. 이때는 개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해서 안정적으로 낙지잡이를 이루어내기가 좋다. 낙지가래로 낙지를 잡는 일은 개인차가 크다.

## 3. 그물어법

자은도에는 민어그물, 부세그물, 병어그물, 승어그물, ‘대매기[建干網]’, ‘주벽[주목망, 柱木網]’ 등이 전승된다.

### 1) 민어그물

민어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60~90cm다. 몸체는 길고 납작하다. 주둥이는 둔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다. 등 쪽은 회청색, 배 쪽은 담색이다. 부레는 부레풀을 만든다.

#### [사례6]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마을 박두재씨(1925년생, 남)

민어그물 어장은 ‘가마우섬[烏島]’ 주변이다(도3).



〈도 3〉 가마우섬

어기는 음력 6월 중순부터 음력 8월 중순까지다. 주로 사리 밀물 때 민어그물로 민어를 잡는다. 그물의 길이는 50m 정도다. 그물코의 길이는 15cm 정도다. 이 정도의 그물코의 그물을 ‘여섯손내기’ 라고 한다. 손가락 여섯 개가 드나들 정도라는 말이다. 그물의 윗줄을 ‘웃베릿줄’, 그물의 아랫줄을 ‘알베릿줄’ 이라고 한다. 웃베릿줄에 2m 간격으로 부표를 매단다. 부표는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를 ‘벽수’ 라고 한다. 알베릿줄에 2.5m 간격으로 납덩이를 매단다. 이를 ‘툽’ 이라고 한다. 그물의 폭은 6m 정도다. 여러 개의 그물을 연이어 붙여 드리운다.

## 2) 부세그물

부세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며, 붉은 황색이다.

### [사례7]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마을 박두재씨(1925년생, 남)

부세 어장은 자은도 서북쪽에 있는 ‘가마우섬[鳥島]’ 주변이다. 그 동쪽을 ‘안골’, 그 서쪽을 ‘밭골’이라고 한다. 여기는 음력 5월에서 음력 6월까지다. 사리, 특히 다섯 무날(음력 13, 14, 28, 29일을 이르는 말)에서 여덟무날(음력 초이틀과 열이레를 이르는 말)까지다.

그물을 이어붙인 총길이는 300발 정도고, 그물코의 길이는 12cm 정도다. 이 정도의 그물을 ‘다섯손내기’라고 한다. 손가락 다섯 개가 드나들 정도라는 말이다. 그물의 윗줄을 ‘웃베릿줄’, 그물의 아랫줄을 ‘알베릿줄’이라고 한다. 웃베릿줄에 2m 간격으로 부표를 매단다. 부표는 오동나무로 만든다. 이를 ‘버국’이라고 한다. 알베릿줄에 2.5m 간격으로 납덩이를 매단다. 이를 ‘봉돌’이라고 한다. 그물의 폭은 6m 정도다.

밀물이 최고조에 이르는 2시간 동안 그물을 드리웠다가 들어올린다. 선원은 6명 정도다. 어획한 부세는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5:5로 분배한다.

1968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이 마을에 부세 파시가 쇓고, 그 이후에는 병어 파시가 쇓다. 특히 부세 파시가 설 무렵에는 300~500척의 배가 이 마을로 몰려 들었다. 그 무렵 상고선(商賈船)도 몰려들었다. 부세 1백 마리를 1단, 1천 마리를 1동이라고 한다.

## 3) 병어그물

병어는 병엇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60cm, 높이는 45cm 정도로 납작하고 둥그스름하며, 흰색이고 등은 파란색을 띤 은백색이다. 난해성(暖海性) 어종이다.

### [사례8]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마을 박두재씨(1925년생, 남)

이 마을에서 병어그물은 1968년 전후부터 나타난다. 어장은 자은도 서북쪽에 있는 ‘가마우섬(오도, 烏島)’ 주변이다. 그 동쪽을 ‘안골’, 그 서쪽을 ‘밭골’이라고 한다. 여기는 음력 6월부터 음력 8월까지이다. 이때는 병어의 산란기다. 서무날(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부터 열두무날(음력 5일과 6일, 20일과 21일을 이르는 말) 낮 동안 그물을 드리운다. 그리고 5시간 만에 그물을 들어올린다. 이를 ‘그물 뺨다’고 한다. 그물의 길이는 20m, 폭은 5m 정도다. 그물코의 직경은 15cm다. 엄지손가락을 뺨 여덟 손가락의 길이다. 이를 ‘여덟내기’라고 한다. 여덟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의 그물이라는 말이다. 그물의 윗줄을 ‘웃베릿줄’이라고 한다. 띄엄띄엄 부표를 매단다. 그물의 아랫줄을 ‘알베릿줄’이라고 한다. 띄엄띄엄 봉돌을 매단다. 50개의 그물을 이어 붙인다. 이를 ‘연폭(連幅)’이라고 한다. 한 척의 병어그물배에는 6명의 선원이 동승(同乘)한다. 어획량을 놓고 선주와 선원은 각각 5:5로 분배한다.

#### 4) 송어그물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수산국, 1908~1911) 3권 「제4장 자은도」에서, “송어는 섬의 북동쪽 둔장동(菴場洞) 연안에서 잡는다. 어구는 초망(抄網)이다. 그물은 면사(綿絲)로 만든다. 그물코의 길이는 1치5푼, 폭은 8자, 길이는 30길[尋]이다.”고 한다. 이것은 자은도에 전승되는 후릿그물을 두고 이룬 말이다. 후릿그물로 송어를 잡는다.

#### [사례] 자은면 한운리 둔장마을 최병림씨(1930년생, 남)

어장은 마을 서북쪽 바닷가 백모래밭이다. 이곳을 ‘장밭’이라고 한다. ‘할미섬’과 ‘동구리섬’ 사이가 최대어장이다. 여기는 음력 8월부터 동짓달까지다.

후릿그물의 길이는 30~50발 정도다. 그물코의 길이는 어획대상의 송어에 따라 다르다. ‘모치(모쟁이, 송어새끼)’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손가락 하나가 드나들 정도다. 이 정도의 그물을 ‘한손내기’라고 한다. 송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손가락 세 개가 드나들 정도다. 이 정도의 그물을 ‘세손내기’라고 한다. 그물의 윗줄을 ‘웃베릿

줄', 그물의 아랫줄을 '알베릿줄'이라고 한다. 옷베릿줄에 2m 간격으로 부표를 매단다. 부표는 오동나무로 만든다. 이를 '벼국'이라고 한다. 알베릿줄에 2.5m 간격으로 납덩이를 매단다. 이를 '봉돌'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쪽에 2m 정도의 왕대나무를 붙인다. 이를 '켓대'라고 한다.

후릿그물로 모치나 송어를 잡는 일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낸다. 세 사람이 후릿그물을 들고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한 사람은 후릿그물 한쪽의 켓대를 잡고 가만히 선다. 이때의 켓대를 '설켓대'라고 한다. 한 사람은 나머지 켓대를 잡고 물고기를 에워싸고 포물선을 그려나간다. 이때의 켓대를 '놀켓대'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후릿그물 한가운데쯤에 서서 발로 후릿그물의 알베릿줄을 밟고, 손으로 후릿그물의 옷베릿줄을 잡고 선다. 이를 '장등 본다'고 한다. 세 사람이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전진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다.

후릿그물로 잡은 물고기는 4등분한다. 세 사람과 하나의 그물 몫으로 각각 물고기를 분배한다. 사람 몫의 물고기를 '몹깃', 그물 몫의 물고기를 '그물깃'이라고 한다.

## 5) 대매기[建干網]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이다.

### [사례10] 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정수현씨(1935년생,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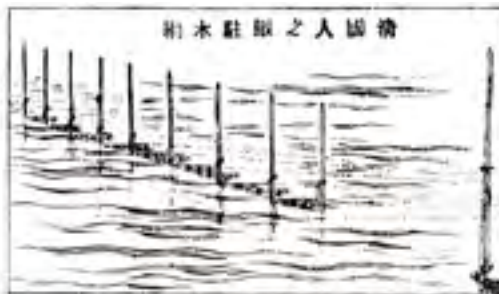
대매기의 어장은 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옥섬(玉島)' 바깥 저조선(低潮線)이다. 어기는 음력 3~4월과 음력 8~11월이다. 음력 3~4월에는 '개송어', 음력 8~11월에는 '참송어'를 잡는다. 최성어기(最盛漁期)는 사리 때 일곱무날(음력으로 그믐과 초하루, 보름과 열엿새)에서 아홉무날(음력 사흘과 열여드레)까지다. 왕대나무 10m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저조선을 따라 갯바닥에 박는다. 썰물 때 그물을 말뚝을 따라가며 묻는다. 그물의 폭은 7m, 그물의 길이는 400m 정도다. 만조 때 거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들어 올리며 말뚝에 건다. 썰물에는 그물 안에 가두어진 송어를 줍듯이 잡는다. 대매기는 5명이 같이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다.

## 6) 주벽

주목망(柱木網)이라는 말이다. 나무 말뚝으로 입구를 고정시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바다 밑에 기둥을 박고 그물을 달아서 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받아서 잡는다(도4).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수산국, 1908~1911) 3권 「제4장 자은도」에서, “이 지방에는 3월에서 5월에 걸쳐 새우[小蝦]가 많이 난다. 임자도(任子島)의 어민들이 와서 어획에 종사하여 매우 성황을 이루는데, 이 섬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자은도에서 새우의 어장은 어디이며, 어떠한 어구로 새우를 잡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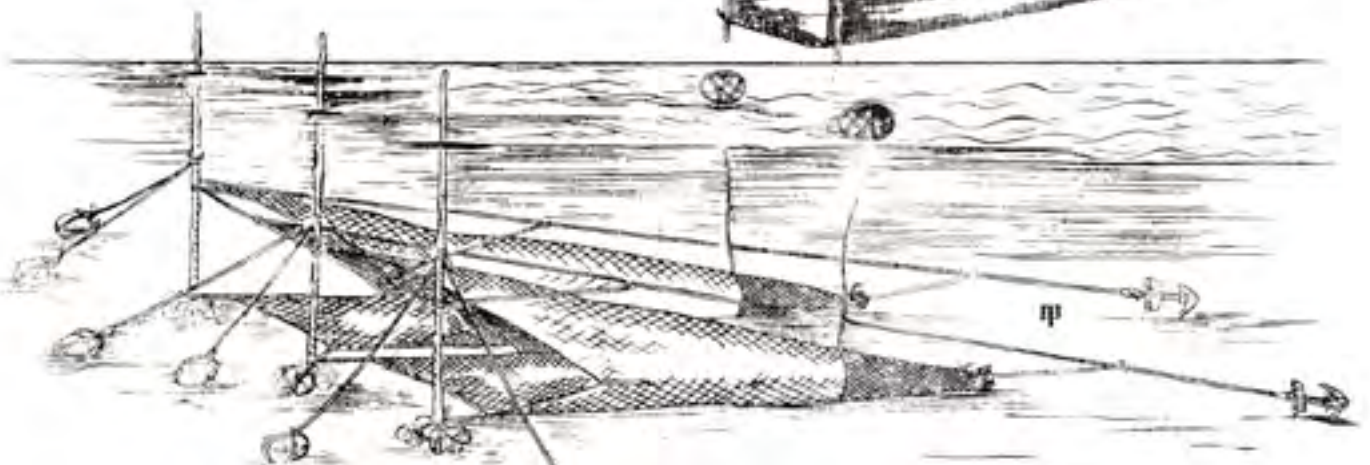
### [사례11]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최장원씨(1927년생, 남)

어장은 이 마을에서 서북쪽에 있는 두리도(斗里島)와 소두리도(小斗里島) 사이다. 여기는 봄과 가을이다. 주벽의 아가리를 서북쪽으로 향하여 설치한다. 그러니 이곳의 주벽은 썰물에 밀리는 새우를 잡는 것이다. 이를 ‘썰물받이’라고 한다. 이 마을 차씨가 이곳에서 주벽을 설치하고 새우를 잡았다.



乙

〈도 4〉 주벽[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서



## 4. 함정어법

독살, 덩장, ‘매기’, 쭈기질, 가래질 ‘오징어썰’이라는 어구 또는 어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 1) 독살

갯가에 돌담으로 울타리처럼 둘러막은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장치하여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를 잡는다.

#### [사례12] 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성기근씨(1934년생, 남)

이 마을 서북쪽 후미진 갯가 북쪽에 1개의 독살, 남쪽에 2개의 독살이 있다. 북쪽의 독살은 ‘활(弦)’ 과 ‘아구지[魚取部]’ 로 이루어진다. 활에는 돌담을 두르고, 아구지에는 그물을 친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다. 돌담의 길이는 양쪽에 각각 50m 정도이고, 아구지의 폭은 30m 정도다. 이것은 이 마을 성씨네 개인소유 독살이다(도 5).



〈도 5〉 성씨네 개인소유 독살[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도 6〉 성씨네 개인소유 독살[자연면 한운리 한운마을]

남쪽에 있는 독살은 활과 ‘임통(통발)’으로 이루어진다. 활의 돌담 길이는 각각 50m 정도다. 통발은 돌담 한가운데 물웅덩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바깥쪽의 것은 김씨네 개인소유 독살이고, 안쪽의 것은 윤씨네 개인소유 독살이다(도6).

## 2) 덩장그물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를 박아 울타리처럼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원통 안으로 몰아넣어 잡는 그물이다.

### [사례13] 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성기근씨(1934년생, 남)

이 마을에는 두 군데에 덩장그물 어장이 있었다. 이 마을 북쪽 깃봉(해발 150.3cm) 서북쪽 자락 ‘흰머리’라는 곳(串)과 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옥섬[玉島]’이다(도7). 흰머리에 있는 덩장을 ‘흰머리덩장’, 옥섬에 있는 덩장을 ‘옥섬덩장’이라고 한다. 이곳 덩장은 이웃 송산마을(자은면 송산리) 김씨네 것이다. 덩장에서 잡은 주된 어종은 ‘송어(밴댕이)’다. 부수적으로 농어, 부세도 잡힌다. 성어기(盛漁期)는 음력 6월이다. 송어는 이때 산란을 하려고 이곳으로 몰려온다.

〈도 7〉 옥섬[자은면 한운리 한운마을]



### 3) 매기

매기는 갯고랑 따위에 물웅덩이라는 함정을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 [사례14]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김점술씨(1934년생, 남)

이 마을 앞바다에는 ‘개옹’ 이라는 커다란 갯고랑이 있다. 개펄의 저조선(低潮線)을 ‘펼끄지’, 개흙이 깔린 벌판을 ‘펼마당’ 이라고 한다. 개옹의 일정한 곳에 풀을 깔고 그 위에 개흙을 올려놓기를 반복한다. 매기 바깥쪽에 ‘달대(갈대)’ 따위로 엮은 발[簾]을 친다. 그리고 개비 위쪽의 갯고랑을 ‘희(보릿짚과 조짚으로 직경 30cm, 길이 1.5m 정도의 다발)’로 민다. 갯고랑에 숨어 있는 물고기가 매기 안쪽으로 몰린다. 그리고 매기의 한가운데 50cm 정도를 튼다. 매기 안쪽 물웅덩이에 숨어 있는 물고기는 발에 걸린다.

### 4) 쑤기질

통발어법이다.

#### [사례15]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이승주씨(1954년생, 남)

쑤대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다.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아 그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물리게 만든다. 일단 들어간 물고기는 거슬러 나오지 못한다. 뒤쪽 끝은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안에 든 물고기를 꺼내게 되어 있다. 여름에 논이나 물꼬에 담가두면서 붕어나 미꾸라지 따위를 잡는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일을 ‘쑤기질한다’고 한다.

### 5) 가래질

원통모양의 어구로 물고기를 덮쳐잡는 어법이다.

#### [사례16]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이승주씨(1954년생, 남)

가래는 신우대로 엮어 아래쪽은 벌어지고 위쪽은 좁게 원기둥 모양을 만든다. 바다에서는 망둥이, 논이나 물꼬에서는 붕어를 가래로 덮쳐 가두고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일을 ‘가래질한다’고 한다.

## 6) 오징어썰

오징어썰이란 인공적으로 갑오징어의 산란장을 만들어놓은 솔잎이 없는 솔가지다.

### [사례17] 자은면 백산리 새뜸마을 배천만씨(1932년생, 남)

어장은 ‘석은박’이라는 해변이다. 석은박은 울퉁불퉁한 갯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 어장은 배씨를 비롯하여 장씨, 배씨 3인이 분할하여 소유한다. 여기는 음력 3월 하순에서 음력 6월 초순까지다. 어장 여기저기에 오징어썰을 꽂아놓는다. 이곳을 ‘썰자리’라고 한다. 오징어썰은 솔잎을 뽑아내버린 솔가지다. 오징어썰은 잔가지가 많아야 좋다. 어장 여기저기에 5m 간격으로 오징어썰 20~30개 정도를 꽂아둔다. 그러면 갑오징어는 오징어썰에 알을 다닥다닥 붙여놓는다. 갑오징어들은 밀물을 타고 썰자리로 몰려온다. 닭이 알을 품으려고 등우리로 찾아오듯이 말이다. 그러면 ‘족바지’라는 자그마한 뜰채 모양의 그물로 몰려오거나 오징어썰에 붙은 갑오징어를 떠 잡는다. 갑오징어 족바지는 5~6발 정도의 왕대나무 자루에 윤노리나무로 만든 직경 1.5m의 테두리에 그물을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 [사례18]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서영섭씨(1947년생, 남)

어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판목섬, 듬북개미, 논아리’라는 해변이다. 어장은 개인 소유다. 여기는 음력 3월 중순부터 음력 5월 하순까지다. 어장 여기저기에 솔잎을 뽑아내버린 솔가지를 꼽는다. 이를 ‘오징어썰’이라고 한다. 갑오징어들이 밀물을 타고 썰자리로 몰려오는 것을 족바지라는 뜰채 모양의 그물로 떠 잡는다. 이렇게 잡는 일을 ‘오징어 굶는다’고 한다.

## 5. 낚시어법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낚시어법이 전승된다.

### 1) 민어주낙

민어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60~90cm이고 길고 납작하다. 주둥이는 둔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다. 등 쪽은 회청색, 배 쪽은 담색이다. 부레는 부레풀을 만든다.

#### [사례19] 자은면 백산리 분계마을 김봉철씨(1932년생, 남)

어장은 자은도 북서쪽에 있는 ‘가마우섬[鳥島]’ 과 이 마을 남서쪽 가까운 곳에 있는 ‘세뽀섬[牛角島]’이다(도8). 여기는 음력 3월부터 음력 8월 중순까지다. 사리와 조금을 가리지 않는다. 밀물 때는 가마우섬 주변, 그리고 썰물 때는 세뽀섬 주변에서 민어를 낚는다. 모릿줄에 4발 간격으로 1.5발 정도의 ‘아릿줄(가짓줄)’ 을 묶는다. 아릿줄마다 하나의 낚시를 맨다. 미끼는 중하(中蝦)다. 민어주낙 한 틀을 ‘바퀴’ 라고 한다. 하나의 바퀴에 60개의 민어낚시를 달아맨다. 하나의 모릿줄에 4개의 돌맹이를 간격을 두고 묶는다. 이때의 돌맹이를 ‘장돌’ 이라고 한다. 모릿줄 양쪽에 닳을 묶는다. 3~4명의 선원이 조업한다. 선주와 선원은 어획물을 5:5로 분배한다. 선원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어획물을 다시 각각 나눈다.



〈도 8〉 세뽀섬[牛角島]

## 2) 오징어낙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수산국, 1908~1911) 3권 「제4장 자은도」에서, “오징어는 북서부면(北西部面)의 부근에서 잡는다. 계절은 4월 초순 무렵이다. 이것을 잡는 데는 낙시줄 끝에 하얀 형끓 조각이나 또는 같은 오징어를 미끼로 쓴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오징어는 ‘갑오징어(참오징어)’다.

갑오징어는 오징어과의 연체동물이다. 몸의 길이는 17cm 정도다. 등 쪽은 어두운 갈색이고 배 쪽은 흰색이다. 수컷은 등 쪽에 물결무늬가 있다. 자은도와 암태도 사람들은 갑오징어를 낙시어법과 함정어법으로 잡는데, 여기에서는 낙시어법을 소개한다.

### [사례20] 자은면 송산리 두모마을 김임동씨(1937년생, 남)

어장은 둔장마을 앞에 있는 ‘할미섬’ 이다(도1). 여기는 음력 5월과 6월이다. 두무날(음력 열하루와 스무엿새)에서 서무날(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 사이에 밀물 때가 가장 좋다. 이때를 ‘무심’ 이라고 한다.

15~20발 정도의 낙시줄 끝에 ‘송어(벤댕이)’ 를 묶는다.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놓고 살살 잡아당긴다. 갑오징어가 송어를 쫓아온다. 갑오징어를 유인(誘引)하는 것이다. 쫓아오는 갑오징어를 ‘족바지’ 라는 뜰채 모양의 그물로 떠 잡는다.

### [사례21]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서영섭씨(1947년생, 남)

어장은 이 마을 ‘탄목섬, 듬북개미, 논아리’ 등의 해변이다. 여기는 음력 3월 하순에서 음력 6월 초순까지다. 20발 정도의 줄 한쪽 끝에 오징어 3마리를 묶는다. 밀물 때 줄에 묶은 갑오징어를 물에 풀어놓는다. 그러면 다른 갑오징어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따라오는 갑오징어를 ‘족바지’ 로 떠 잡는다.

## 3) 송어낙시

대낙시로 송어를 낚는 어법이 전승된다. 송어는 송어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납작하다. 담수(淡水), 기수(汽水), 해수(海水)에 산다.

### [사례22] 자은면 대율리 대율마을 김옥주씨(1938년생, 남)

송어낚시 어장은 일정하다. 그리고 어장에 따라 물때도 다르다. ‘생기미’ 라는 어장에서는 썰물과 밀물에 송어낚시가 가능하다. 이런 곳을 ‘양물밭’ 이라고 한다. ‘자문기미’ 는 썰물에만 가능하다. 이런 곳을 ‘썰물밭’ 이라고 한다. 여기는 음력 4월에서 음력 10월까지다. 일정한 낚시로 송어를 낚는다. 송어의 미끼는 ‘청거시’ 다. ‘이깍기계’ 라는 어구로 청거시를 잡는다.



(도 9) 송어낚시

낚시줄에 부표를 맨다. 부표는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다. 아래쪽에 납덩이를 박는다. 납덩이 무게 때문에 부표는 물 위에 곧바로 선다. 부표에서 88.0cm 거리를 두고 낚시를 맨다. 두 가닥의 줄을 성기게 감아놓고 낚시를 묶는다.

그 사이에 ‘청거시(갯지렁이)’ 를 끼운다. 청거시의 머리를 줄에 끼우고 꼬리를 낚시 바깥쪽으로 흘린다. 그러면 송어낚시는 바닷물 중간쯤에 둥둥 뜬다. 송어의 어장으로 송어낚시를 드리우고 천천히 당긴다. 그러면 송어는 청거시가 움직이는 줄 알고 덩석 문다.

#### 4) 부세주낙

부세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다.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며, 붉은 황색이다. 그물과 주낙으로 잡는데 여기서는 주낙어법을 소개한다.

**[사례23] 자은면 대율리 신흥마을 김점술씨(1934년생, 남)**

어장은 이 마을 동쪽에 있는 쥐섬, 초매섬, 군함섬 주변이다. 여기는 음력 3월에서 7월까지다. 서무날부터 여섯무날까지 낮 밀물 동안이다. 부세주낙의 기다란 500발 정도의 모릿줄에 2발 간격으로 1발 정도의 ‘아릿줄(가짓줄)’을 묶는다. 아릿줄마다 하나의 낚시를 맨다. 미끼는 ‘송어(밴댕이)’다. 모릿줄 양쪽에 닳을 묶는다. 모릿줄 50발 간격으로 돌맹이를 묶는다. 3~4명의 선원이 조업한다. 선주와 선원은 어획물을 5:5로 분배한다. 선원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어획물을 다시 각각 나눈다.

## 6. 활용방안

### 1) ‘바웃묵’ 활용한 관광자원화 모색

‘바웃묵’은 ‘바웃(보라털)’이라는 홍조류 보라털과의 해조(海藻)로 만든 묵이다. 한반도 서남해안 조간대 상층에는 바웃이 제법 자란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신안군과 진도군 지역에서만 전통적으로 바웃묵을 식품으로 활용한다. 진도군 사람들은 바웃을 ‘독웃’, 독웃으로 만든 묵을 ‘독웃묵’이라고 한다. 바웃묵의 제조법과 영양학적 가치를 밝혀내고 바웃묵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할 가치가 있다.

### 2) 독살 원형 복원

갯가에 돌담으로 울타리처럼 둘러막은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장치하여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를 잡는 원시적인 어로시설을 ‘독살’이라고 한다. 자은도 한운마을(한운리)에는 세 곳에 개인소유 독살이 전승된다. 세 곳의 독살 원형을 복원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 3) '매기' 어법 활용한 관광자원화 모색

매기는 갯고랑 따위에 물웅덩이라는 함정을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잡는 함정어법이다. 이와 같은 함정어법은 자은도와 그 주변 일부 도서지역에서만 전승된다.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체험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가치가 있다.

### 4) 송어낚시 활용한 세계적인 송어낚시대회 가능성 모색

자은도와 그 주변 일부 도서지역에는 대낚시로 송어를 낚는 어법이 전승된다. 자은도와 그 주변 일부 도서지역에서 전승되는 송어낚시는 독특한 어구와 어법이다. 자은도와 그 주변 일부 도서지역에서 전승되는 송어낚시에 대한 조사연구를 정밀하게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송어낚시대회 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수산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1~4권, 1908~1911.

崔德源

『多島海의 堂祭 - 新安地域을 중심으로 -』, 學文社, 1983.

전라남도 · 목포대학박물관

『南西海 島嶼地域의 傳統家屋 · 마을』, 1989.

정윤섭

『해남윤씨가의 간척과 도서(島嶼) 경영』, 민속원, 2012.

이준곤 · 이경희

『자은도의 설화자료』, 『도서문화(島嶼文化)』제2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김준

『생업적 어업과 상업적 어업』, 『도서문화(島嶼文化)』제2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 VI

## 구비전승

홍 순 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               |     |
|---------------|-----|
| 1. 조사개요       | 146 |
| 2. 자은도의 이야기   | 149 |
| 3. 자은도의 소리    | 165 |
| 4. 자은도의 관용어   | 180 |
| 5. 자은도의 민요공동체 | 183 |
| 6. 활용방안       | 188 |

## Ⅵ. 구비전승

### 1. 조사개요

#### 1) 개요

필자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자원화연구단에서 「자은도의 문화자원조사와 자원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자은도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2월, 2014년 8월, 그리고 2014년 9월~10월 등 세 차례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서 자은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안군의 구비문학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채록했다. 특히 필자는 현지조사와 함께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공동조사(2014.02.18~19) 때 자은도의<sup>1)</sup> 자은면 내, 구영리, 유각(백길)리, 고장리 등의 사람들 7인을 면담했다. 개별조사(2014.08.26.~27) 첫 번째 때 대울(신흥)리, 구영(구영, 장고), 고장(고장)리, 송산(송산)리 등의 사람들 16인을 면담했다. 그리고

---

1 자은도는 2010년 현재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1,274세대 2,436명이 거주하고 있다. 자은면의 법정리는 9개, 행정리 25개이다. 한운리(한운, 둔장, 고교), 송산리(송산, 두모), 대울리(대울, 신흥, 진천), 유천리(유천, 옥지, 창촌), 유각리(유각, 문평, 금포, 백길), 면전리(면전, 구래), 백산리(백산, 외우, 신성, 분계), 구영리(구영, 장고), 고장리(고장, 외기) 등이다. 필자는 자은면 내, 구영리(구영, 장고), 유각(유각, 백길), 고장(고장)리, 대울(신흥)리, 송산(송산)리, 백산(백산)리, 백산(분계)리 등 자은면 일대를 답사했다. (신순호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대한민국 도서백서』, 행정안전부, 2011)

개별조사(2014.09.30.~10.01) 두 번째 때 유각(유각)리, 백산(백산)리, 고장(고장)리, 벽산(분계)리 등의 사람들 7인을 면담했다.

여기에서 주로 인용된 자료는 문화방송의 책 1권(CD포함)<sup>2)</sup>, 성성진·임득수의 책 1권<sup>3)</sup>, 이준곤의 책 1권<sup>4)</sup> 등이 있는데, 서술할 때는 문화방송(1993), 성성진·임득수(1997, 미발간), 이준곤(2009)순으로 한다. 제보자를 소개할 때는 성명의 우측에 가능한 한 성별, 나이, 출생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는데, 이때 나이는 채록 당시의 나이로 한다. 그리고 민요의 경우 필요시 원문에 /, //표시를 가하여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조사자는 조사시 「자은도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물」을 주제로 자은도의 구비전승자원을 조사하여 조사목록, 내용, 활용 등을 작성하고자 했다. 타분야인 생태, 고고, 역사, 민속, 문화인류학, 방언, 건축, 관광자원화 등과의 관계<sup>5)</sup>를 고려하면서 활용이라는 자원화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제보자별, 구역별, 주제별로 유형화된 후 주제별로 소개된다. 주제별로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은도의 구비전승자원과 관련하여 자은도의 이야기(설화, 경험담), 자은도의 소리(민요, 판소리), 자은도의 관용어(속담·금기어), 자은도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산다이, 달야(밤달애)],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의 활용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과 자은도의 자원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자은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 각 편들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고자 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자은도 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고자 한다. 이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자은면 편)”(기간 2013.12.27~2014.11.21)의 성과물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의 제

2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3.

3 성성진·임득수, 『자은도지(慈恩島誌)』, 자은면사무소, 1997. 미발간.

4 이준곤, 『서남해 도서지역 해양설화와 해양문화』, 국토해양부 호남지역 시그랜드 사업단, 2009.

5 참여연구자는 강봉룡, 고광민, 김재은, 김지민, 이기갑, 최성락, 최성환, 한은선, 홍선기, 홍순일 등이다.

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09.30), 제3차 지도·증도·임자도(2006.01.12~06.11), 제4차 하의도(2010.07.28~2011.01.23), 제5차 신의도(2011.07.13~2012.04.12), 제6차 압태도(2012.12.27~2013.09.23)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고, 이후에도 계기가 된다면 장산도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사람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자원화 연구단 참여연구자들, 신안군청(특히 문화예술계, 문화관광과) 관계자, 자은면사무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 2) 답사일정

- 2014년 2월 18~19일 자은도 제1차 현지공동조사
- 2014년 8월 26~27일 자은도 제2차 현지개별조사
- 2014년 9월 30일~10월 1일 자은도 제3차 현지개별조사

## 2. 자은도의 이야기

### 1) 자은도 이야기의 유형과 특징

#### [개요]

자은도의 이야기는 크게 설화, 경험담으로 구분된다. 설화와 경험담은 자은도 사람들이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이나, 설화는 경험담과 달리,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르다. 필자는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인 이야기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설화(지명, 인물), 경험담(영험담)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 이야기의 경우 지명설화는 9리 25개 마을, 인물설화는 4유형 9편(관련 34편), 경험담은 16편 등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이야기 중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과 자은도의 특징을 이야기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 2) 설화

#### (1) 지명설화

지명설화의 경우 자은면 고장리 성성진씨(자은도 임득수씨 포함),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씨, 유각리 백길마을 윤용진씨의 제보로 한운리(한운, 둔장, 고교), 송산리(송산, 두모), 대울리(대울, 신흥, 진천), 유천리(유천, 옥지, 창촌), 유각리(유각, 문평, 금포, 백길), 면전리(면전, 구래), 백산리(백산, 와우, 신성, 분계), 구영리(구영, 장고), 고장리(고장, 외기) 등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총 9리 25개 마을의 이야기이다.



〈사진 1〉 유각리 백길마을 윤용진 (남, 72)씨(2014.02.18.오후 촬영)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지명 설화	- 한운리(閑雲里) = 한운마을[閑雲里], 둔장마을[屯長里], 고교마을[古橋里]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 송산리(松山里) = 송산마을[松山里], 두모마을[斗毛里] → 초분골, 고래당, 서당골, 동등골, 들문골, 솟골, 절골, 다산, 솔등, 가마터골, 독골=또골, 송산 등의 마을유래는 김복숙씨 제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김복숙 (남, 84)	자은면 송산리 송산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 대울리(大栗里) = 대울마을[大栗里], 신흥마을[新興里], 진천마을[眞泉里]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 유천리(柳川里) = # 유천마을[柳川里], 욕지마을[浴池里], 창촌마을[倉村里]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 유각리(鎭脚里) = # 유각마을[鎭脚里], #문평마을[文坪里], #금포마을[金浦里], #백길마을[白吉里]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 면전리(綿田里) = #면전마을[綿田里], 구래마을[九來里]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 백산리(白山里) = #백산마을[白山里], #와우마을[臥牛里], #신성마을[新成里], #분계마을[分界里]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1~127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번호	분류	제 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지명 설화	- 구영리(舊營里) = #구영마을[舊營里], #장고마을[長庫里]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임득수 1997:1~127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 고장리(古場里) = #고장마을[古場里], 외기마을[外基里]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임득수 1997:1~127
		- #표시부분은 윤용진씨 제보	윤용진 (남, 72)	자은면 유각리 백길마을 → 면사무소	2014. 02.18	현지개별조사

● 한운리

한운리(閑雲里)는 현재 한운마을[閑雲里], 둔장마을[屯長里], 고교마을[古橋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한운리 - 한운마을

이 마을이 구름 가운데 있는 반달과 같은 형국[雲中半月形局]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운리(閑雲里)라고 칭했다.

● 한운리 - 둔장마을

이 마을의 서북방에 할미섬[姑島]에는 할매바위[姑岩]가 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은 이 바위가 있어 비교적 장수한다고 했다. 이 마을은 뒷날 둔장(屯長)이라고 불려졌다.

● 한운리 - 고교마을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감두(埧頭)가 있다. 교통수단으로 교량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옛다리’ 또는 ‘이따리’로 불렸다. 이 마을은 뒷날 고교리(古橋里)라고 칭해졌다.

### ● 송산리

송산리(松山里)는 현재 송산마을[松山里], 두모마을[斗毛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 송산리 - 송산마을

둔산리와 다산마을 사이는 학(鶴)이 알을 낳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학란동(鶴卵洞)이라고 불려졌다. 이 마을은 뒷산에 학이 서식하기 좋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송산리(松山里)라고 명명되었다.

### ● 송산리 - 두모마을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에게 반역으로 몰린 중국인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이 난을 피해 남행했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본면에 도착해 체류하던 중 마을 뒤 당숙제(堂叔堤) 고개에 올랐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분계리(分界里) 응암산 북치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과연 명산(名山)이라 감탄하고, 이 고개(陵)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하여 두모동(斗舞洞)<sup>1)</sup>이라고 명명했다. 이 마을은 뒷날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두모리(斗毛里)라고 개칭되어 불려졌다.

### ● 대율리

대율리(大栗里)는 현재 대율마을[大栗里], 신흥마을[新興里], 진천마을[眞泉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1 두모동(斗毛洞)은 두사춘이 지나다가 버리지 못할 줄은 터라 하여 춤을 추었다고 해서 지은 이야기이다. (이준근, 「두모동(斗毛洞)의 유래」, 『5. 첨부: 자은도의 현재재록설화자료』, 『VI. 자은도의 용신신앙과 해양문화의 변용』, 『서남해 도서지역 해양설화와 해양문화』, 국토해양부 호남지역 씨그랜드 사업단, 2009, 140쪽)

● **대율리(大栗里) - 대율마을[大栗里]**

이 마을은 함풍(咸豐 1851~1861년)부터 광서(光緒) 2년(1876년)까지 한야리(寒夜里)라고 불려졌다. 광서(光緒) 3년(1877년)에 도승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앞 동산이 밤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밤이’ 또는 ‘밤골’ 이라고 불려졌다. 이 마을은 뒷날 대율리(大栗里)로 불려졌다.

● **대율리(大栗里) - 신흥마을[新興里]**

이 마을은 앞에 무인도가 3개 있다. 그런데 그 형국이 자라형이다. 그리하여 자라지(者羅池)라고 불려졌다. 그러다가 이 마을은 1940년경에 새로 생겨난 마을이라고 하여 신흥리(新興里)라고 불려졌다.

● **대율리(大栗里) - 진천마을[眞泉里]**

이 마을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진짜 샘이 있다고 하여 ‘참새미골’, 또는 ‘참새골’ 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다가 조례상 리로 승격되면서 진천(眞泉)이라고 불려졌다.

● **유천리**

유천리(柳川里)는 현재 유천마을[柳川里], 욕지마을[浴池里], 창촌마을[倉村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유천리 - 유천마을**

이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내 ‘천(川)’ 자형의 소하천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수양버드나무가 많이 늘어져 있다. 그리하여 마을 이름을 ‘버드네골’ 이라고 불렀다. 그후 유천리(柳川里)라고 명명하였다.

● 유천리 - 옥지마을

이 마을은 1954년 본도와 연결되기 전에 간만의 조수에 의하여 섬의 모양이 못[池] 가운데 떠 있는 연꽃봉오리와 같다고 하여 연화욕지(蓮花浴池)라고 불려지다가 옥지로 명명하였다.

● 유천리 - 창촌마을

이 마을은 옛날에 모든 선박이 구진변(舊津邊)을 통하여 왕래하여 자은면의 관문이기도 하였다. 자은면에서 수납한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창촌(倉村)이라고 불려졌다.

● 유각리

유각리(鎭脚里)는 현재 유각마을[鎭脚里], 문평마을[文坪里], 금포마을[金浦里], 백길마을[白吉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유각리 - 유각마을

이 마을은 옛날에 낚시를 치는 대장간이 있어서 마을 안에 다리를 낚시로 놓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낚다리로 불려지다가 유각(鎭脚)이라고 개칭되었다.

● 유각리 - 문평마을

이 마을은 뒷산에 낭떠러지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마치 큰 병풍을 둘러쳐 놓은 것 같은 형상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묵병(墨屏)이라고 불려지다가 문평(文坪)이라고 개칭되었다.

● 유각리 - 금포마을

이 마을은 조산등(朝山登), 사력등(砂礫登), 반잔등(盤盞登), 팽나무등, 요철등(凹凸登) 등의 5개 지세가 있다. 옛적에는 금포(琴抱)라고 하였다. 거문고 선이 5선이라 분

지형을 따서 금(琴)자를 쓰고, 거문고를 칠 때 포옹(抱擁)하여 치므로 포(抱)자를 썼던 것이다. 후일 마을 뒷산에 금이 있다고 하여 금(金)자와 마을 앞까지 배가 들어오는 포구가 있다고 전하여 포(浦)자를 썼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금포리(金浦里)라고 칭해졌다.

● 유각리 - 백길마을<sup>2)</sup>

이 마을은 옛날에 사방으로 산능(山陵)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출입구가 있었다. 중국에 가던 배가 풍랑이 거세면 여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백길리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마을의 서쪽에는 규사(珪砂)가 무진장 적치(積置)되어 있고, 마을사람들은 방조제를 축조하여 소금을 생산하였다. 이 마을은 이 흰[白] 모래와 소금은 서로 화합되면 길조(吉兆)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백길리(白吉里)라고 불려졌다.

● 면전리

면전리(綿田里)는 현재 면전마을[綿田里], 구래마을[九來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면전리 - 면전마을

이 마을은 인근에 구래마을이 있었다. 지세는 개가 잠자는 형국이라고 하여 면견지형(眠犬地形)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면구래(眠拘來)라고 불려졌다. 이 마을은 인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토질에 맞는 작물로서 목화가 재배되었다. 그로부터 면구래(眠拘來)라는 면(眠)자를 면(綿)으로 하고, 목화는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라고 하여 전(田)자를 써서 후일 면전(綿田)이라고 불려졌다.

2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던 백길은 1952년 제방을 막았고, 마을명을 한문으로 지을 때 백길(白吉)로 바꿔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이준곤, 「10. 백길의 옛이름은 백길」, 「5. 첨부: 자은도의 현재채록실화자료」, 「Ⅵ. 자은도의 용신신앙과 해양문화의 변용」, 위의 책, 2009, 132~140쪽 중 136쪽)

● **면전리 - 구래마을**

이 마을은 면전 동북쪽 깊은 골짜기 안에 있다. 구래(拘來)라고 불려지다가 구래(九來)로 개칭되었다.

● **백산리**

백산리(白山里)는 현재 백산마을[白山里], 와우마을[臥牛里], 신성마을[新成里], 분계마을[分界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백산리 - 백산마을**

이 마을은 전체가 흰모래[白砂]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백산(白山)으로 불려졌다.

● **백산리 - 와우마을**

이 마을은 뒷산의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누우리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을 와우리(臥牛里)라고 칭했다.

● **백산리 - 신성마을**

이 마을은 수문산(水門山)의 저지대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분계리와 분리 또는 연결되어 분계리로 불려지다가 1960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신성(新成)이라 불려졌다.

● **백산리 - 분계마을**

이 마을은 동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신성(新成)마을이 있는데 수문산(水門山) 저지대가 조수관계로 만조시는 분리되고, 간조시는 연결되는 경계가 있어 분계리(分界里)라고 칭했다.

● 구영리

구영리(舊營里)는 현재 구영마을[舊營里], 장고마을[長庫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구영리 - 구영마을

이 마을은 면사무소 소재지이며, 면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동북쪽에 있는 성제봉은 이조시대 봉화불을 피워 조정에 연락을 하던 곳이었다. 이 마을은 1377년 영이 설치되어 군마를 기르고 병사를 훈련하는 요지라고 하여 당포(當浦)라고 불려지다가 1441년 옛날에 말을 기르고 병사를 훈련하는 영터가 있었다고 하여 구영(舊營)이라고 칭했다.

● 구영리 - 장고마을

이 마을은 북쪽에 위치한 긴 섬이 구영, 고장마을의 창고(倉庫)라고 하여 장고리(長庫里)라고 불려졌다.

● 고장리

고장리(古場里)는 현재 고장마을[古場里], 외기마을[外基里]로 묶여진 마을이다.

● 고장리 - 고장마을

이 마을은 북치고 노는 마당이라고 하여 고장(古場)이라고 불려졌다.

● 고장리 - 외기마을

1827년경 성명 미상(未詳)의 도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지형지세가 개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대구지(垆拘地, 일명 터꾸지)라고 명명했다. 외기(밖 垆拘地)는 웅견(雄犬)이고, 내기(안 垆拘地)는 자견(雌犬)이라고 불려졌던 것을 후일 통칭하여 외기리(外基里)라고 칭했다.

(2) 인물설화

인물설화의 경우 인물(7편)은 할미섬(2편), 석씨(2편), 김덕석(1편), 두사춘(일명 두사춘, 2편) 등의 이야기인데, 두모동 조사복씨, 자은도 박찬역씨 등의 제보로 두사춘(일명 두사춘)이 조사되었다. 동물(12편)은 용(8편), 매(4편) 등의 이야기인데, 와우리 표재환씨, 백길리 김형섭씨, 장고리 주갑순씨, 두모동 김만용씨, 자은도 박찬역씨,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 등의 제보로 용소가, 고장리 성성진씨 채록(자은도 임득수씨 포함), 백길리 김형섭씨, 구영리 김가상씨, 구영리 김종섭씨 등의 제보로 매가 조사되었다. 식물(6편)은 팽나무(5편), 소나무(1편) 등의 이야기인데, 고장리 성성진씨 채록(자은도 임득수씨 포함)으로 팽나무가 조사되었다.

사물(9편)은 두봉산(8편), 돌묘제(1편) 등의 이야기인데, 백길리 최재봉씨, 장고리 주갑순씨, 두모동 조사복씨,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 고장리 고장마을 우귀철씨,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윤한봉씨·고형식씨 등의 제보로 두봉산이 조사되었다.



〈사진 2〉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여, 75)씨(2014.08.27.오전 촬영)

총 4유형, 9편(관련 34편)의 이야기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인물 설화	두사춘 (일명 두사춘)	두모동(斗毛洞)의 유래	조사복 (남, 75)	자은면 두모동 거주, 채록	2002. 07.17	이준곤 2009:140
		용	백산리의 용소이야기(4)	주갑순 (남, 80)	자은면 장고리 거주, 채록	2002. 07.16	이준곤2009:135
	매	응암산 전설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2014. 02.19	성성진·임득수 1997:34(미발간)	
	식물	팽나무	욕지도(浴池島) 팽나무(37)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임득수 1997:37(미발간)
	사물	두봉산	두봉산이야기(1)	최재봉 (남, 77)	자은면 백길리 거주, 채록	2002. 07.16	이준곤 2009:136

● 두모동(斗毛洞)의 유래

〈줄거리〉

두모동(斗毛洞)은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이 지나다가 버리지 못할 좋은 터라 하여 춤을 추었다고 해서 지은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옛날에는 막을 두(杜)자, 춤출 무(舞)자를 썼어요. 옛날에 두사충(일명 두사춘)이라는 선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지나다가 좋다고 춤을 추었다고 해서 그 막을 두(杜)자, 춤출 무(舞)자를 썼어요. 두사충(일명 두사춘)이가 버리지 못할 좋은 터라 하여서 그렇게 지었다 해요.

● 백산리의 용소이야기(4)

〈줄거리〉

자은민이 일제 말엽에 용소에서 (비금에서 날아온) 용을 잡겠다고 한 이야기이다. 산의 바위를 뚫은 용이 비금에서 날아와서 꼬리를 쳐서 용방죽이 생겼다는 용소는 자은면 신성리에 있는 용둠병인데, 자은민은 일제 말엽에 물이 깊은 여기에 들어가서 (비금에서 날아온) 용을 잡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자은면 신성리에 가면 말이요, 용추라고, 용둠병이 있어요. 용소. 용이 비금서 날아와 가지고 거기서 꼬리를 쳐서 용방죽이 생겼다고 그러는디, 일제 말엽에 사람들이 용을 잡는다고 물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디, 용자 즉 용새끼가 들어 있다고 해서 잡을 수 없다 해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일제 때 보면 원족이라고 해서 거기 가보면 물이 한정없이 깊고 그전에 거기서 해군정이라고 해서 해군들의 말이 먹고 그랬어요. 해군정이라고 생겼습니다. 거 비금 용소리라는 곳에서 물어 보니까 용이 산에 바위를 뚫었습니다다 해요. 거기 사람이 지게 지고 나무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비올 때면 은신도 하고 그랬대요. 거기서 자은에 와 가지고 꼬리를 쳐버린 것이 방죽이 맹글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 ● 응암산 전설

### 〈줄거리〉

자은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해발 122m의 응암산이 신령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응암산(매바우산)은 매가 앉아있는 형상이고, 산신령이 살고 있으므로, 산봉우리에 바위가 날카로운 매처럼 사방을 늘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두 가지 영험담 중 하나는 자은민이 집의 아궁이 이맷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산의 돌을 집에 가져다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원래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산을 찾아오는데, 부정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면 산에 갑자기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 〈구술내용〉

응암산은 자은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해발 122m의 산으로, 매가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매바우산'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산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신령스러운 산으로, 명산 중에 명산으로 소문나서 각 지방의 풍수들이 명당자리를 찾기 위하여 왕래하였던 곳이다. 이 산은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자은민이 집의 아궁이 이맷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산의 돌을 집에 가져다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원래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산을 찾아오는데, 부정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면 산에 갑자기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다. 이 산은 이렇게 신령스러웠다.

이 산은 뱀이 전혀 없고, 산봉우리에 바위가 날카로운 매처럼 사방을 늘 지켜주고 있었다. 그래서 주위에는 평이 옆드려 있는 모습인 복치(伏雉) 형국의 명당이 많다.

## ● 옥지도(浴池島) 팽나무 이야기

### 〈줄거리〉

자은면 옥지도의 팽나무 이야기이다. 이 팽나무의 경우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이 없는 부인들이 이 나무에 고인 물을 먹으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신목(神木)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이 팽나무는 아들을 낳게 한다는 신목(神木)이다. 이 팽나무는 부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수령 180여 년의 이 나무는 높이가 16.5m이고, 나뭇가지 위쪽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곳에 물이 고이는데, 이 물이 부인병에 특효약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

이 팽나무 전설은 이렇다.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이 없는 부인들이 이 나무에 고인 물을 먹으면 소원을 성취한다.

● 두봉산이야기(1)

〈줄거리〉

자은에는 해제 앞에 있는 승봉산(퇴봉산)과는 달리, 두봉산(말봉산)이라고 하는데, 해수가 짝 찰 때 말만하게 남았고, 지금도 중턱에 짝개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옛날에 천지개벽시에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두봉산을 말봉산이라고 하제. 해수가 짝 차갔고 자은이 말만하게 남았드라 해. 저-기 해제 앞에는 승봉산이라, 퇴봉산이라 하제. 거기는 퇴만하게 남았드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전설에 내려온 말이어. 두봉산에 가보면 지금도 중턱에 짝개비가 있어라우.

3) 경험담

그리고 경험담의 경우 서재기, 장갑동, 송용근, 당(堂)모시기, 두봉산 관련 객지사람, 할매, 산맥(山脈), 둔장마을간 물싸움, 송길동, 면소재지와 파출소 이전(移轉), 2,300명

의 죽음, 박상선, 상여소리꾼, 우물, 응암산의 매 관련 복치혈 등의 이야기이다.

특히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는 여러 사람과 장래를 위해 톨을 판 고 송용근 공덕비 이야기를,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는 대울리에서 객지사람이 잘 된 이야기를(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는 외부인이 자은에 들어와 살면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씨는 둔장마을간 물의 갈등심화·해소 이야기를,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윤한봉씨·고형식씨는 6·25 때 좌우익의 싸움으로 2,300명이 죽은 이야기를,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는 지관들이 찾아다닌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를 제보해 주었다.

총 16편의 이야기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경험담	- 여러 사람과 장래를 위해 톨을 판 고 송용근 공덕비 이야기	김정룡 (남, 72)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119번지	2014. 08. 26	현지개별조사	
		객지 사람	- 대울리에서 객지사람이 잘 된 이야기	허금자 (여, 75)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 27	현지개별조사
			- 외부인이 자은에 들어와 살면 득이 된다는 이야기	김성국 (남, 62)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10. 01	현지개별조사
		- 둔장마을간 물의 갈등심화·해소 이야기	김복숙 (남, 4?)	자은면 송산리 송산마을	2014. 08. 27	현지개별조사	
		- 6·25 때 좌우익의 싸움으로 2,300명이 죽은 이야기	양삼(남, 77) 윤한봉(남, 73) 고형식(남, 72)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2014. 08. 27	현지개별조사	
		- 지관들이 찾아다닌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	김성국 (남, 62)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10. 01	현지개별조사	

### (1) 송용근 공덕비 이야기

#### 〈줄거리〉

여러 사람과 장래를 위해 뜻을 판 고 송용근 공덕비 이야기이다.

#### 〈구술내용〉

故 송용근씨는 여러 사람과 장래를 위해 대울 뜻을 짰고,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셨다 고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사람이 전한다.

### (2-1) 객지사람이 잘 된 이야기

#### 〈줄거리〉

대울리에서 객지사람이 잘 된 이야기이다.

#### 〈구술내용〉

이 이야기는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사람이 전한다.

### (2-2) 외부인이 자은에 들어와 살면 득이 된다는 이야기

#### 〈줄거리〉

외부인이 자은에 들어와 살면 득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 〈구술내용〉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지관 김성국(남, 62)씨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이유는 성재산이 낮아지고 두봉산이 높아져서, 자은의 주산인 두봉산(363.8m)이 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 (3) 둔장마을간 물의 갈등심화·해소 이야기

#### 〈줄거리〉

둔장마을간 물의 갈등심화·해소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필자를 공동 둠병까지 안내한 자은면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남,84)씨는 신안군청의 노력으로 송산리 송산마을에 저수지가 만들어짐으로써 농사 때 송산리 송산마을과 한운리 둔장마을 사이의 물싸움이 종식되었다고 전한다.



〈사진 3〉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남, 84)씨(2014.08.27.오후 촬영)

(4) 6·25 때 좌우익의 싸움으로 2,300명이 죽은 이야기

〈줄거리〉

6·25 때 좌우익의 싸움으로 2,300명이 죽은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이 이야기는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들이 전하는 것이다.

(5)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

〈줄거리〉

지관들이 찾아다닌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지관 김성국(남, 62)씨는 아래의 글을 전해 주었다.



〈사진 4〉 고장리 고장마을 최옥순(남, 79)씨, 김성국(남, 62)씨(2014.10.01.오후 촬영)

“(복치가) 뒤에는 응암산(應岩山), 북쪽으로는 까마귀섬[烏島] 분계로는 동쪽이요, 백산으로는 남쪽이라.  
(땡이) 멀리 날아가고 싶지만 잠자는 개가 앞에 있으니,  
(복치가) 안좌면 반월산을 보고 그치더라.”

### 3. 자은도의 소리

#### 1) 자은도 소리의 전승과 특징

##### [개요]

자은도의 소리는 크게 민요, 판소리, 무가로 구분된다.

필자는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인 소리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민요, 판소리, 무가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 소리의 경우 민요(노동요, 의식요, 비기능요), 판소리 등이 조사되었지만 민요(유희요)와 무가가 조사되지 못했고, 판소리도 거의 조사되지 못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소리 중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과 자은도의 특징을 소리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 2) 민요

민요는 자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전해지는 노래이다. 민요는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구분된다. 기능요는 노동, 의식, 유희의 생활현장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sup>1)</sup>에서 부르는 민요이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부르는 노동요, 일반 대중이 일정한 의식을 행하면서 부르는 의식요, 그리고 유희, 즉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유희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비해 비기능요는 생업·세시풍속·놀이 등 현장의 기능을 따라 부르는 기능요와는 달리, 생활상의 일정한 기능이 없이 유희(흥)에 따라 노래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는 민요<sup>2)</sup>이다. 그래서 잡가에 타령이 붙는 경우가 많다.

1 조동일, 「구비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 박경수, 「비기능요」,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780&cid=50223&categoryId=51052>

한편 노동, 의식, 유희의 생활현장에서 기능요가 비기능요로, 비기능요가 기능요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살아 움직이는 소리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 노동요

노동요는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고, 고기잡이를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행동을 통일하고 흥을 돋우기 위한 민요<sup>3)</sup>이다.

자은도의 노동요는 송산리 한남례씨의 소리와 자은면 고장리 성성진씨(자은도 임득수씨 포함)의 제보로 들노래(모찌는 소리, 논매는 소리)가 조사되었다. 한남례씨의 소리는 각각 8-4 신안 모찌는 소리(4)-먼데소리, 8-12 신안 논매는 소리(3)-강남개소리 등이 문화방송<sup>4)</sup> CD에 담겨져 있다.



〈사진 5〉 고장리 고장마을 성성진(남, 78)씨(2014.08.26.오후 촬영)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노동요	CD 8-4 신안 모찌는 소리(4) - 먼데소리	앞소리 : 한남례(여, 67)	자은면 송산리	1989. 09.02	문화방송 1993:288
		논맨소리	성성진(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50(미발간)
		CD 8-12 신안 논매는 소리(3) - 강남개소리	앞소리: 한남례(여, 67)	자은면 송산리	1989. 09.02	문화방송 1993:288

3 조동일, 「구비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4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 CD 8-4 신안 모찌는 소리(4)-먼데소리

〈구연상황〉

문화방송<sup>5)</sup>에 의하면 한남례(여, 1923)씨는 자은면 대울리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이 (자은면 송산리) 마을로 시집왔다. 논일, 밭일 품앗이를 다니며 들노래를 익혔고, 시집와서 첫아이를 낳은 스물다섯 이후부터는 앞소리를 맡아 불렀다.

처음 모를 찌기 시작할 때는 〈긴 소리〉를 부르다가 거의 다 찌 갈 때는 〈жат은 소리〉를 부른다. 선율구조는 제1형이나, 〈긴 소리〉의 받는 소리에서는 제2형의 선율이 일부 쓰인다.

〈사 설〉

[긴 소리]

아하라 먼디요

아하라 먼디요

먼데 먼데 먼데소리

아하라 먼디요

철철마당 돌아오네

아하라 먼디요

전봇대 같은 두야 팔루

아하라 먼디요

이야차 뒤야차 무어나보세<sup>6)</sup>

아하라 먼디요

5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6 무어나보세 : (모를) 찌보세.

달 떠오네 달 떠오네  
아하라 먼디요

동에 동천 달 떠오네  
아하라 먼디요

아하라 먼디요  
아하라 먼디요

**[찾은 소리]**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먼데 먼데 먼데소리  
아하라 먼데

돌아왔네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농사철이 돌아왔네  
아하라 먼데

우리 농부들 잘도 하네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먼데 먼데 먼데소리  
아하라 먼데

올레질레 잘도 하네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아하라 먼데

잘도 하네 잘도 하네  
아하라 먼데

아라소리 잘도 하네  
아하라 먼데

그만 저만 해둬시다  
아하라 먼데

### ● 논맨 소리

#### 〈구연상황〉

필자가 2014년 2월 19일,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에서 성성진씨를 만나 얻은 자은도지(慈恩島誌)에 있는 논맨 소리<sup>7)</sup>이다. 여기에는 구연상황이 나와 있지 않았다. 구연상황이 나와 있지 않았다.

#### 〈사 설〉

해야 해야 해해야 다하절로호 다하절로호

해야 애야 애야 다하절로

임보고 싶으면 사진을 봐라

해해야 해해야다 해해야 해야다 절로로호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7 성성진·임득수, 「1) 논맨소리」, 「4. 민요」, 『자은도지(慈恩島誌)-제5편 민간신앙과 민요』, 1997, 50쪽.

해야 해해 해야 다하절로  
임죽고 나살어 못사를 진고  
해해야 해해야 다절로 오동목판에 거문고야  
금은은구 허야 해해야 해해야다  
절로주면 몰라도 소리만 난다  
해야해 해야 다하절로오

해야 해야 해해야 다하절로호 다하절로호  
나들어 허허건더 내가들어 허허건다  
해야 해야 해해해해 다하절로  
임보고 싶으면 자질러본다  
해해 해해 호호 흰주꿀 은하사 무어라  
해해 해야다 절로 호호  
해야 해야 해해야 다하절로 다하절로를  
사람이 살면 몇 수백 년이나 살으리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자기맘대로 놀세  
해해야 해해야 다하절로호오

• CD 8-12 신안 논매는 소리(3)-강남개소리

〈구연상황〉

문화방송<sup>8)</sup>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는 본래 논매는 일이 남자들의 몫이었으나, 조금 일이 수월한 세벌매기에는 여자들이 동원되었다. 〈강남개소리〉는 이 세벌매기 때 부르는 노래이다. 선율구조는 제1형이다.

---

8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사 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강남개 소리 어데를 갔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철철마대 돌아오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잘도 하네 잘도 하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우리네 농민들이 잘도 하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못 하겠네 못 하겠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옛날소리 못 하겠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올해에도 풍년이 돌아왔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내년에도 풍년이 오겠네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나라 앞에 충신하고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우리 생활도 살아가세  
어기야 여라 강남개야

## (2) 의식요

의식요는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민중만의 노래로서 노동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고,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sup>9)</sup>이다. 자은도의 의식요는 자은면 고장리 성성진씨(자은도 임득수씨 포함)의 제보와 벽산리 분계마을 김동철씨 소리로 상여소리가 조사되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의식요	상여소리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 · 임득수 1997:51~52(미발간)

### • 상여소리

〈구연상황〉

필자가 2014년 2월 19일,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에서 성성진씨를 만나 얻은, 미발간 책 자은도지(慈恩島誌)에 있는 상여소리이다. 성성진 · 임득수의 『자은도지(慈恩島誌)』<sup>10)</sup>에 구연상황이 나와 있지 않았다.

9 조동일, 「구비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10 성성진 · 임득수, 「2) 상여소리」, 「4. 민요」, 『제5편 민간신앙과 민요』, 앞의 『자은도지(慈恩島誌)』, 51~52쪽.

〈사 설〉

조리 주는 것 조리 받는 것

홍노라니 백발이요

어와너 어널이넘자 어와너 〈후렴〉

면치 못한 것은

인생 늙어 죽음이라

천황 진황 인황 신황

요순이 무당이요

한번 죽음을 못 면하고

사마천 한테 짓는

신일문장 하랴 잇고

독양천리 광공님을

초안을 못 면하고

어리초다 진씨왕

아방궁 높이고

동남 동녀 보내 후로

소식조차 돈절하고

육십사세 궁하시니

글을 많고 영웅들도 허사로구나

우리같은 초로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육십장포 일곱 배로 잘씬 묶어

소망산 대틀 위에

둥그렇게 올려배고

봉만 산천을 행할 때

만사에 시기를 행할 때  
산천을 당도하니  
사토로 집을 짓고  
송죽으로 우를 삼고  
두견 접동 밤을 세울 때  
처량한 것 인생 늙어 죽음이라  
팽토지 지낼 때  
자손이 모두 모아  
어덩육성 흥덩백성  
자포 위에 갈아놓고  
악성 통곡 울음 우니  
먹는 줄 아느냐  
잡순 줄 아느냐  
불효호자 일배주라  
아서라 세상사  
쓸데 없구나  
공곤 불곤 변시춤  
장사 소부야 웃들 말소  
동유수 굽이굽이  
물결은 바빠바빠  
백천은 동동해여  
하시에 부속이요  
우산에 지는 해는  
체경공의 눈물이요  
분수 추풍공

우리같은 인생들은  
 봄이 돌아 오면 슬프구나  
 몽을 겨우 깨우니  
 설움이 더욱 설겨  
 장강에 배를 띄고  
 풍을 가득 싣고  
 범법중류 떠나 가니  
 백골이 이 실래 뿐이구나  
 통수 소리 웅웅하니  
 소살고적이 방불하구나  
 어디대서야 비파곡조  
 임불견하니  
 소산곡적이 방불하구나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인생들 다 늙어간다

### (3) 비기능요

그리고 비기능요는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 송산리 박정월씨, 송산리 김상남씨의 소리로 각각 조사되었다. 허금자씨는 답답할 때 〈고요한~〉, 큰애기 때 〈세상에 돈만 있다고~〉, 〈청춘가〉 등을 소리했고, 박정월씨와 김상남씨의 소리는 각각 9-17 신안 “서울이라 임금아들”, 9-18 신안 신세타령(1)-홍글소리 등이 문화방송<sup>11)</sup> CD에 담겨져 있다.

11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비기능요	CD 9-17 신안 “서울이라 임금아들”	박정월 (여, 1910~1991)	자은면 송산리	1989. 09.02	문화방송 1993:288
		CD 9-18 신안 신세타(1) - 흥글소리	김상님 (여, 70)	자은면 송산리	1989. 09.02	문화방송 1993:288

## ● CD-17 신안 “서울이라 임금아들”

## 〈구연상황〉

문화방송<sup>12)</sup>에 의하면 박정월(여, 1910~1991)씨는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사달포에서 태어나서, 1991년 81세에 작고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설이 ‘쾌자노래’라는 이름으로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널리 나타나고, 쾌자, 이 노래에서는 ‘배자’라고 부른 옷은 양반계층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했다.

## 〈사 설〉

서울이라 임금아들

천냥짜리 처녀 두고

만질 담을 뛰어넘다

미었구나<sup>13)</sup> 미었구나

곤때<sup>14)</sup> 묻은 양피배자<sup>15)</sup>

12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13 미었구나: 찢어졌구나. ‘미다’는 ‘찢어지다’.

14 곤때: 고운 때, 조금 묻은 때.

15 양피 배자(羊皮 褙子): 양가죽으로 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옷.

치닷분이<sup>16)</sup> 무었구나<sup>17)</sup>  
 우리 본처 알고 보면  
 이말 대답 어이하리  
 대장부라 사나그가  
 그말 대답 몬 할손가  
 서당 앞에 석노남기<sup>18)</sup>  
 석노 따다 무었다소  
 그리해도 안 듣거든  
 서당 앞에 배자남기<sup>19)</sup>  
 배자 따라 무었다소  
 그리 해도 안 듣걸랑  
 내일 아침 조상 끝에<sup>20)</sup>  
 소녀 방에 또 들오면  
 오삭가지<sup>21)</sup> 당사실로<sup>22)</sup>  
 은침댄침<sup>23)</sup> 금바늘로  
 본살같이<sup>24)</sup> 감취증세

16 치 닷분: 한치 다섯 분. 열 분이 한치.

17 무었구나: 찢어졌구나. '무이다'는 '찢어지다'.

18 석노남기: 석류나무.

19 배자남기: 비자나무.

20 조상: 아침상인 듯.

21 오삭가지: 오색가지.

22 당사실(唐絲-): 중국에서 들어온 명주실.

23 은침댄침: 은침(銀針)은 은바늘. 댄침은 세침(細針)의 외음인 듯.

24 본살같이: 본래의 짜임같이.

• CD 9-18 신안 신세타령(1) - 흥글소리

〈구연상황〉

김상님(여, 70)<sup>25)</sup>씨는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이곳 송산리로 시집왔다. 시집와 밭에서 일하면서 친정어매가 생각나면 신세타령을 흥얼거리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흥글소리〉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삶의 고난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이 노래는 직설의 정도가 심해서 함축적 어휘의 구사가 거의 없다.<sup>26)</sup>

〈사 설〉

어매 어매 우리 어매  
뫼을 하자고 나를 나서  
날 심을 데도 쫓건마는  
이런 촌에 나를 여워  
농사짓고 못 살겠소  
어매 어매 날 데려가시오  
이내 나는 못 살겠소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놈 시상 산 데<sup>27)</sup> 보고  
요내 시상 산 데를 보면은  
없던 심정 절로 나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자석 좋아 자석 자랑  
재산 좋아 재산 자랑  
고대광실 높은 집이  
부귀영화로 잘 사는디

25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26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27 산데: 사는 데.

이내 나는 어디 갔다  
 남 탄 복력을<sup>28)</sup> 못 타서  
 내 신세가 이리 될 줄  
 어느 귀신이나 내 속을 알라  
 땅이나 내 속 알란가  
 하나님이나 내 속 알란가  
 나는 못 살겠네  
 어매 어매 우리 어매  
 날 데려 가시오  
 시상에도 못 살겠소  
 날만 좋은 디로  
 데려를 가시오

### 3) 판소리

판소리의 경우 면전리 김형준씨 부인 박은숙씨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4	판소리	박은숙씨의 판소리 수강	우정화 (남, 미상)	자은면 구영리→ 면전리 통화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 ● 박은숙씨의 목포학원 판소리 공부

필자가 현지개별조사 때인 2014년 8월 27일(수), 자은면 구영리에서 면전리 이장 우정화씨와 통화를 했다. 우이장님은 김형준씨 부인 박은숙씨가 목포학원에 판소리를 공부하러 다닌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필자는 이후 통화를 시도했으나 박은숙씨가 전화를 못받아 면담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28 복을 누리는 힘, 행복한 운수.

## 4. 자은도의 관용어

### 1) 자은도 관용어의 유형과 특징

#### [개요]

보통 관용어(慣用語)<sup>1)</sup>은 서구어의 속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지닌 ‘관습화된 말’이라는 뜻이 있다. 또는 학계에서는 속담·속어·은어 등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미나 구조상 관습적으로 특별히 굳어진 단어나 구절이라는 점에서 관용어에는 속어 이외에도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길조어, 수수께끼, 특별히 굳어진 직유·은유·제유·환유 등의 비유어, 은어, 상투어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자은도의 관용어는 크게 속담과 금기어로 구분된다. 속담과 금기어는 자은도 사람들이 모두 실생활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간결한 관용어(慣用語)이나, 속담은 교훈·풍자를 위해 비유법으로 서술해서 말해진 내용 이상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데<sup>2)</sup> 반하여, 금지되는 행동과 함께 금기에 속한 금기어는 종교적·도덕적인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꺼려지는, 민속신앙과 결부되어 금기적인 사실만을 의미하는<sup>3)</sup> 언어표현이다.

필자는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인 관용어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속담과 금기어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 관용어의 경우 속담은 3수이고 금기어는 2수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관용어 중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과 자은도의 특징을 관용어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1 김문창, 「관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 김홍균, 「격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 김홍균, 「격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2) 자은도의 속담

속담의 경우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가 제보한 ‘미륵’, ‘귀신반찬’,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가 제보한 ‘육사생’ 그리고 한운리 최정규씨가 제보한 ‘한운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 등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속담	‘미륵’, ‘귀신반찬’	허금자 (여, 75)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육사생’	김성국 (남, 62)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10.01	현지개별조사
		‘한운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	최정규 (남, 76)	자은도 한운리	2001. 09.15	이준곤 2009: 133~134

### (1) ‘미륵’

필자가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를 만나 면담하는 중에 나온 ‘미륵’이다. 어르신들이 노래를 안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다.

### (2) ‘귀신반찬’

위와 마찬가지로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의 말에서 나온 ‘귀신반찬’이다. 늙은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붙인 말이다. 늙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반찬만 차려놓기 때문이다.

### (3) ‘육사생’

필자가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남, 62)씨를 만나 면담하는 중에 나온 ‘육사생’이다. 김성국씨가 직전에 같은 마을에서 만났던 이장 최옥순(남, 75)씨를 말할 때 ‘육사생’이라고 했다. 고지식하게 제규정(전통)대로 하기 때문이다.

#### (4) ‘한우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

필자가 이준곤 교수의 「자은도의 현재채록설화자료」<sup>4)</sup>를 보다가 발견한 ‘한우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이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줄거리〉

자은민(석씨)이 한우리 신머리에 처음 들어와 산 이야기이다. 자은민(석씨)은 아주 평화롭고, 원이 막아져서 논이 좋은 한우리 신머리에 처음 들어와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 〈구술내용〉

한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다. 여기는 자연적으로 원이 막아져서 논을 벌 수 있어서 자은면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와 산 곳이다. ‘한우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 논이 좋은 곳이며, 한우리의 신머리라고 하는 데로 사람이 들어와 처음으로 살았다. 처음 들어와 산 사람은 석씨였다.

### 3) 자은도의 금기어

금기어의 경우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가 제보한 ‘당(堂)을 모셔야 자은이 잘 된다’, 어느 자은도 사람이 제보한 ‘자은마을을 건드리면 해롭다’ 등이다.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금기어	‘당(堂)을 모셔야 자은이 잘 된다’	허금자 (여, 75)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자은마을을 건드리면 해롭다’	자은도 사람	자은면 일대	2014. 02.18~19, 08.26~27, 09.30~10.01	현지공동· 개별조사

4 이준곤 조사, 최정규(남, 76) 제보, 「한우리 입도조」, 「5. 첨부: 자은도의 현재채록설화자료」, 「VI. 자은도의 용신신앙과 해양문화의 변용」, 『서남해 도서지역 해양설화와 해양문화』, 국토해양부 호남지역 씨그랜드 사업단, 2009, 132쪽.

(1) ‘당(堂)을 모셔야 자은이 잘 된다’

필자가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를 만나 면담하는 중에 나온 ‘당(堂)을 모셔야 자은이 잘 된다’이다. 행동과 말의 금기는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려서(선택)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금지, 삼감), 하지 않게 지키는 일(지킴)이다.<sup>5)</sup> 이 말 속에도 당제가 당(堂)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자은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2) ‘자은마을을 건드리면 해롭다’

이 언어적 진술은 어느 자은도 사람이 제보한 ‘자은마을을 건드리면 해롭다’이다. 자은도 사람이 자은도를 해치지 않도록 금지, 삼가게 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5. 자은도의 민요공동체

1) 자은도 민요공동체의 내용과 특징

[개요]

자은도의 민요공동체는 크게 산다이, 달야(밤달애)로 구분된다. 산다이와 밤달애는 자은도 사람들이 절후별·사안별로 모여 구성원의 일정한 목적의 필요를 수행하면서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sup>1)</sup>이다. 그런데 산다이는 장례 때 행해지는 달야(밤달애)와는 달리, 명절, 통과례 때 실생활에서 행해진다는 점이 다르다.

5 김영규, 「금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1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특성-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9, 남도민속학회, 2009.12, 281~325쪽.

필자는 자은도 구비전승자인 민요공동체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산다이, 달야(밤달애)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 민요공동체의 경우 산다이는 4회이고, 달야(밤달애)는 5회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민요공동체 중 자은도 사람들의 의식과 자은도의 특징을 민요공동체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 1) 산다이의 현황과 내용

산다이의 경우 구영리 황주남씨가 제보한 ‘5년 전까지 했다는 산다이’,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가 제보한 ‘명절, 정월 대보름, 제사 때에 밖에서 한 산다이’, 구영리 장고마을 조규진씨가 제보한 ‘친구와 술마시는 산다이’, 고장리 고장마을 성성진씨가 제보한 ‘술마시고 노는 산다이’ 등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산다이	5년 전까지 한 산다이	황주남 (남, 68)	자은면 구영리 391-6번지	2014. 02.19	현지공동조사
		명절, 정월 대보름, 제사 때에 밖에서 산다이	김정룡 (남, 72)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119번지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친구와 술마시는 산다이	조규진 (남, 78)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술마시고 노는 산다이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 (1) 5년 전까지 했다는 산다이

구영리 황주남(남, 68)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산다이는 5년 전까지 했다. 친한 사람이 밤에 가정에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12시까지 한다.

### (2) 명절, 정월 대보름, 제사 때에 밖에서 한 산다이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남, 72, 1942)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명절, 정월 대보름, 제사 때에서 밖에서 산다이를 한다. 명절은 설이나 추석이다. 보름은 15일 저녁 부터이다.



〈사진 6〉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남, 72)씨(2014.08.26.오후 촬영)

### (3) 친구와 술마시는 산다이

구영리 장고마을 조규진(남, 78, 1937)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조규진씨는 산다이를 할 때 친구와 술을 마셨다. 군에 갈 때도 산다이를 해 주었다. 산다이와 송별식을 대비할 때 산다이는 가는 사람을 환송하는 송별식과는 달리, 돌아올 사람을 환송하는 것이다. 매우 심하게 놀았다. 생일은 쇠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를 때는 산다이를 하지 않았다. 장사를 지낸 후 다음날 재우제를 지낼 때 모임을 갖으나 이것은 산다이가 아니다. 산에 가서는 산다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에 가서 놀다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꼴을 베어놓고 땅치기 등을 하는 것이 혼한 일이다.

### (4) 술마시고 노는 산다이

고장리 고장마을 성성진(남, 78, 1937)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한가할 때 친목을 위해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나 지금은 인구가 줄고, 노래방이 생겨서 놀지 않는다. 4월 이민(里民)의 날 때 논다.

## 2) 달야(밤달애)의 현황과 내용

달야(밤달애)의 경우 구영리 황주남씨가 10년 전까지 한 밤다리,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가 제보한 출상 전날에 상주를 위로하는 밤달애, 구영리 장고마을 조규진씨가 제보한 3~4년 전까지 상주가 안자게 노래하는 달야, 고장리 고장마을 성성진씨가 제보한 초상 때 유족을 위로하는 달야(다리),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 윤희봉씨, 고희식씨 등이 제보한 “울상만 지을 거냐?” 하며 하는 달야(밤다리) 등이다.

밤달애 용어의 경우 황주남(남, 68)씨와 양권삼(남, 77, 1938)·윤희봉(남, 73, 1942)·고형식(남, 72, 1943)씨는 ‘밤다리’ 라고 한다. 그리고 조규진(남, 78, 1937)씨와 성성진(남, 78, 1937, ‘다리’ 라고도 함)씨는 ‘달야’ 라고 한다. 조규진씨는 마을 사람이 “달야 하러 가세” 한다고까지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규진씨의 의견을 따라 밤달애를 ‘달야’ 로 하되, 달야(밤달애)라고 표기하고, 문장에서 밤다리, 다리 등도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달야 (밤달애)	10년 전까지 한 밤다리	황주남 (남, 68)	자은면 구영리 391-6번지	2014. 02.19	현지공동조사
		출상 전날에 상주를 위로하는 밤달애	김정룡 (남, 72, 1942)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119번지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3~4년 전까지 상주가 안자게 노래하는 달야	조규진 (남, 78)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초상 때 유족을 위로하는 달야(다리)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08.26~27	현지개별조사
		“울상만 지을 거냐?” 하며 하는 달야(밤다리)	양권삼(남, 77), 윤희봉(남, 73), 고형식(남, 72)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 (1) 10년 전까지 한 밤다리

구영리 황주남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황주남(남, 68)씨는 밤다리(밤달애)는 10년 전까지 했다는 전한다.

### (2) 출상 전날에 상주를 위로하는 밤달애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남, 72, 1942)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밤달애와 산다이는 옛날에 집에서 어울려 논다는 점에서 같으나, 밤달애는 명절(추석, 설), 보름 15일 저녁부터, 제사지낼 때 밖에서 하는 산다이와는 달리, 출상 전날에 상주를 위로하는 점에서 다르다.

### (3) 3~4년 전까지 상주가 안자게 노래하는 달야

구영리 장고마을 조규진(남, 78, 1937)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자은도 사람들이 상주가 안자게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등을 노래하는 것이 달야이다. 달야는 3~4년 전까지 행해졌고, 지금도 달야를 하는 집이 있기도 하다.

3일장을 치를 때 하루 저녁 동안 달애를 한다. 마을사람이 “달야 하러 가세” 한다. 목적은 상주가 안자게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화투할 때처럼 규칙이 있다. 참석자는 대개 자유곡을 부른다. 신안(하의, 장산, 자은)이 진도와 같아서 〈상여소리〉,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등이 비슷하다. 현재는 장례를 할 때 일손이 없으므로, 목포에 있는 장례예식장으로 나가서 하는 상황이다.

### (4) 초상 때 유족을 위로하는 달야(다리)

고장리 고장마을 성성진(남, 78, 1937)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달야는 상가집에서 마을사람이 유족을 위로하는(달래는) 것이다. 초상 때 다리한다고 말한다. 마을마다 상두계가 있고, 계원인 상두들이 다한다.

### (5) “울상만 지을 거냐?” 하며 하는 달야(밤다리)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남, 77, 1938), 윤한봉(남, 73, 1942), 고흥식(남, 72, 1943) 등이 제보한 내용이다. 마을사람이 초상집에서 “울상만 지을 거냐?”고 하며 행하는 달야이다. 밤다리라고도 한다. <육자백이>, <홍타령>, <아리랑>, <도라지타령> 등을 부른다.



〈사진 7〉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남, 77)씨(2014.08.27.오후 촬영)

## 6. 활용방안

이번에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의 구비전승물은 두 가지 방향에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자은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 각 편들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는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자은도 사람들의 해석·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의 구비전승물은 크게 이야기, 소리, 관용어, 민요공동체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야기의 경우 지명(地名)설화(9리 25개 마을), 인물설화[4유형 9편(관련 34편)], 경험담(16편) 등, 소리의 경우 민요(노동요, 의식요, 비기능요), 판소리 등, 그리고 관용어의 경우 속담(3수), 금기어(2수) 등, 민요공동체의 경우 산다이(4회), 달야(밤달애)(5회) 등이다. 필자는 이에 따라 구비전승자원의 활용 방안을 크게 세 방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1) 자은도 구비연행자의 육성방안 : 이야기와 노래의 구연(口演)

우선 자은도 구비연행자의 육성방안이다. 구비문학의 담당층인 구비연행자에 관한 육성방안이다. 구비연행자는 ‘구슬도 껴야 보배’ 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다.

### ■ 자 원

자은도의 보물은 구연되는 이야기, 노래 등이다. 또한 이를 구연하는 구비연행자이다. 이를 중심으로 구비전승물 자체, 마을, 연행조직이나 개인<sup>1)</sup>과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 보면서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자은도 사람들의 지역·해역의 정서를 연구할 수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할 때 자은도의 구비전승물을 제보한 구비연행자들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경험과 아는 이야기, 그리고 소리들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 민속공동체의 의식을 표현했다. 자은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말한 것이다. 또한 소리를 하면서 생활현장의 기능을 환기하고, 실생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비연행자들은 실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원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섬의 공간에서 자원의 획득·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와 소리, 그리고 관용어란 구슬을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소리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물론이다.

### ■ 상 태

이야기의 경우 필자가 만난 지명설화의 구비연행자는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씨, 유각리 백길마을 윤용진씨 등이고, 인물설화의 구비연행자는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

1 허경희·나승만, 「Ⅳ. 완도지역의 민요와 민요사회」, 『완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7~97쪽 중 69쪽.

룽씨(용소(龍沼), 두봉산(斗鳳山)),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용소),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두봉산), 고장리 고장마을 우귀철씨(두봉산),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 윤한봉씨, 고행식씨(두봉산) 등이다.

그리고 경험담의 구비연행자는 여러 사람과 장래를 위해 뜻을 판 고 송용근 공덕비 이야기를 제보한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 6·25 때 좌우익의 싸움으로 2,300명이 죽은 이야기를 제보한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 윤한봉씨, 고행식씨, 대울리에서 객지사람이 잘 된 이야기를 제보한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 송산마을과 둔장마을 간 물의 갈등심화·해소 이야기를 제보한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씨, 지관들이 찾아 다닌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를 제보한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 등이다.

소리의 경우 민요의 구비연행자는 벽산리 분계마을 김동철 소리(의식요의 상여소리),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비기능요인 청춘가) 등이고 필자가 만났으나, 판소리는 면전리 김형준씨 부인 박은숙씨가 판소리 공부를 한다고 필자가 들었다.

#### ■ 활용

자은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비문학과 관련하여 이야기와 노래를 구연하는 것을 이야기하되, 섬사람의 창조력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물론 이 방향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sup>2)</sup>이 요망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국가나 개인이 아직 남은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비문학의 전통을 현대 예술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민속예술의 하나인 구비문학과 대중 예술을 가능한 한 접근시키는 것이다.

## 2) 자은도 구비전승물의 활용 방안

다음은 자은도 구비전승물의 활용방안이다. 구비연행자에 의해 구연된 구비전승물인 이야기(지명설화, 인물설화, 경험담), 소리(민요, 판소리), 관용어(속담, 금기어), 민요공동체(산다이, 달야) 등에 관한 활용방안이다. 구비전승물은 ‘구슬도 꿰어야 보

2 조동일, 「구비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배' 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사람이 만든 구슬이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자은도 이야기 중에서 필자가 선별·정리한 주제는 두사춘(斗四春), 용, 매, 팽나무, 두봉산 등이었다. 두사춘(일명 두사춘)은 두봉산, 두모동 등과 관련된 인물이다. 두봉산은 객지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낳는다. 용소는 섬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물을 놓고 둔장마을간 싸움이 일어나고, 신안군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양상이다. 매는 팽과 함께 지관들의 관심인 복치혈의 지점에 있어 왔다.



〈사진 8〉 자은면 유각리에 있는 우물을 보여준 최문중(남, 73)씨, 최승주(남, 83)씨(2014.09.30.오후 촬영)

한편 소리는 민요(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비기능요), 판소리 등이 있었다. 현단계 민요의 경우 노동요인 들노래는 의식요인 상여소리와는 달리, 모찌는 소리, 논매는 소리만 확인되었다. 소리의 온전한 구연과 변화에서 장산도 들노래에 비해 부족하지만, 원래 소리가 없어서 미흡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은도 소리에서 유희요 내지 비기능요의 활성화는 다른 갈래의 활성화를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 의식, 유희의 현장에서 부르는 민요뿐만 아니라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부르는 민요, 그리고 이것의 외연이 확장된 소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되, 민요 자체의 수립과 함께 노래를 생산하는 터전인 마을과 노래부르는 주체인 연행조직이나 개인까지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 자은도 사람들의 물관리[우물터, 방조제]와 용소(龍沼)이야기

#### ■ 자 원

자은도의 보물은 우물터, 방조제, 용소 등과 관련 물이야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용소는 섬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물과 지원을 받아 축조된 방조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용소이야기는 승천한 용이 자기 만든 용소에 물이 마르지 않게 비를 내린다는 전설이다. 전술한 바 있는 백산리의 용소이야기(4)는 자은민이 일제 말엽에 용소에서 비금에서 날아온 용을 잡겠다고 한 이야기여서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살필 일이다.

■상 태

용소이야기는 와우리 표재환씨, 백길리 김형섭씨, 장고리 주갑순씨, 두모동 김만용씨, 자은도 박찬억씨,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 고장리 고장마을 김성국씨 등의 제보로 8편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 9〉 자은면사무소 면장 박찬억(남, 57)씨의 현황설명(2014.02.18.오전 촬영)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용소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설화	백산리의 용소이야기(1) (134)	표재환 (남, 76)	자은면 와우리 거주, 채록	2002. 07. 16	이준곤 2009:132~140
		백산리의 용소이야기(2) (134)	김형섭 (남, 55)	자은면 백길리 거주, 채록	2002. 07. 16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설화	용	백산리의 용소이야기(3) (135)	김형섭 (남, 55)	자은면 백길리 거주, 채록	2002. 07.16	이준곤 2009: 132~140
			백산리의 용소이야기(4) (135)	주갑순 (남, 80)	자은면 장고리 거주, 채록	2002. 07.16	
			백산리의 용소이야기(5) (135)	김만용 (남, 70대)	자은면 두모동 거주, 채록	2002. 07.17	
			용소	박찬익 (남, 57)	자은면 내	2014. 02.18	현지공동조사
			〈자은의 용이 비금의 용소 에 갔다는 용소 이야기〉	김정룡 (남, 72)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119번지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자은용과 비금용이 교미 하러 갔다는 용소이야기〉	김성국 (남, 62)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10.01	현지개별조사

■ 활용

자은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과 관련하여 갈등을 이야기하되, 섬의 역사에서 자기들의 생업과 관련된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문화활동을 예로 들어 말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2) 신안군의 산과 자은도 사람들의 두봉산(斗鳳山) 설화

■ 자원

자은도의 보물은 신안군의 산맥에 따른 자은도 사람들의 두봉산과 그 설화이다. 물에 잠긴, 말(斗)크기 만큼 솟은 자은땅은 물이 점차 줄어들자 그 말(斗)크기의 바위덩어리가 큰 산이 되어 '두봉산' 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상 태

두봉산이야기는 백길리 최재봉씨, 장고리 주갑순씨, 두모동 조사복씨, 대울리 신흥마을 김정룡씨, 구영리 장고마을 허금자씨, 고장리 고장마을 우귀철씨, 구영리 구영마을 양권삼씨·윤한봉씨·고형식씨 등의 제보로 8편이 확인되고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두봉산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설화	사물	두봉산	두봉산이야기(1)	최재봉 (남, 77)	자은면 백길리 거주, 채록	2002. 07.16	이준곤 2009:136
				두봉산이야기(2)	최재봉 (남, 77)	자은면 장고리 거주 → 구영리 채록	2002. 07.16	이준곤 2009:136
				두봉산이야기(3)	주갑순 (남, 80)	자은면 두모동 거주, 채록	2002. 07.17	이준곤 2009:137
				〈두봉산(斗鳳山, 부영산) 이야기〉	조사복 (남, 75)	자은면 대울리 신흥마을 119번지	2014. 08.26	현지개별조사
				〈말봉산[斗鳳山] 고동곶데기 (증거물) 이야기〉	김정룡 (남, 72)	자은면 구영리 장고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말봉산[斗鳳山]에서 인물이 안나온 이야기〉	허금자 (여, 75)			
				〈자은 두봉산(斗鳳山)과 암태 승봉산(升鳳山) 이야기〉	우귀철 (남, 79)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두봉산(斗鳳山) 이야기〉	양권삼 (남, 77), 윤한봉 (남, 73), 고형식 (남, 72)	자은면 구영리 구영마을	2014. 08.27	현지개별조사

■ 활용

자은도 사람들이 자은도의 산과 암태도의 산을 대비하여 말하도록 한다. 특히 풍수 지리설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두봉산 설화<sup>3)</sup>의 줄거리는 이것의 참고가 된다.

“천지개벽하는 때에 모든 섬이 다 물에 잠겼는데, 자은도의 두봉산(斗鳳山)은 말(斗) 만큼 수면 위아 솟아 있었고, 암태도의 승봉산(升鳳山)은 되(升) 만큼 솟아 있었으며, 임자도의 함박산(函朴山)은 술잔(函) 만큼 솟아 있었다는 것이다.”

(3) 자은면의 산세(山勢)와 자은도 사람들의 지명(地名)풀이

■ 자원

자은도의 보물은 자은도 사람들이 산세에 따라 지명을 풀이하는 것이다.

■ 상태

지명풀이는 자은면 고장리 성성진씨(자은도 임득수씨 포함), 송산리 송산마을 김복숙씨, 유각리 백길마을 윤용진씨의 제보로 한운리(한운, 둔장, 고교), 송산리(송산, 두모), 대울리(대울, 신흥, 진천), 유천리(유천, 옥지, 창촌), 유각리(유각, 문평, 금포, 백길), 면전리(면전, 구래), 백산리(백산, 와우, 신성, 분계), 구영리(구영, 장고), 고장리(고장, 외기) 등의 이야기가 확인되었다.

■ 활용

자은도 사람들은 산을 풍수지리설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자은도의 자연과 함께하는 자은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봉룡, 「2) 자은도의 자부심-두봉산 설화」, 「4. 스토리텔링-자은도의 설화」, 「자은면의 관광자원」, 강봉룡 외 [10인 9편 공저],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자은면 편』, 신안군·도서문화연구원, 2015.

#### (4) 마을의 인물[두사충(일명 두사춘)] 설화와 마을사람들의 스토리텔링

##### ■ 자원

자은도의 보물은 마을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 설화와 설화와 이것의 구연행위이다. 두사충(일명 두사춘) 인물과 두봉산 사물이 만나서 탄생된 두봉산 전설이 대표적인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병졸 두사충(일명 두사춘)이 탈영하여 자은의 큰산에 올라온 것을 기념하여 ‘두봉산’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 상태

두사충(일명 두사춘)이야기는 두모동 조사복씨, 자은도 박찬역씨 등의 제보로 2편이 확인되고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자은도 두사충(일명 두사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인물설화	두모동(斗毛洞)의 유래	조사복 (남, 75)	자은면 두모동 거주, 채록	2002. 07.17	이준곤 2009:1340
		두사충(일명 두사춘) [천혜방]	박찬역 (남, 57)	자은면 내	2014. 02.18	현지공동조사
		천혜방 전설	성성진 (남, 78)	자은면 고장리 54-4번지	2014. 02.19	성성진·임득수 1997: 32

##### ■ 활용

자은도 사람들은 자은도라는 섬의 공간에서 삶의 언어와 문학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자은도 사람들은 지금도 지명과 인물, 그리고 섬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2014년 2월 19일,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에서 성성진씨를 만나 얻은 자은도지(慈恩島誌)에도 천혜방 전설<sup>4)</sup>이 있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의 천혜방 이야기이다. 두봉산 남쪽 중턱 해발 126m 지점에 있는 천혜방은 탈영하여 자은민의 도움으로 자은도에 은신한 두사충(일명 두사춘)이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감사히 여겨 붙인 바위굴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4 성성진·임득수, 「천혜방 전설」, 「제4편 전설」, 앞의 「자은도지(慈恩島誌)」, 32쪽.

“자은도에는 두봉산 남쪽 중턱 해발 126m 지점에 있는 바위 속에 2평 남짓한 방 모양의 바위굴이 있다. 이를 일컬어 ‘천혜방’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휘하 군사였던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이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 원정군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었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본래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탈영을 하여 자은도에 피신하였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당시 자은민의 도움으로 은신하였다. 이 은신한 곳이 천혜방이었다. 그 후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원정군의 회군 때 고국으로 되돌아간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무사히 은신하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겨 이곳을 천혜방이라고 하였다.”

### 3)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의 정책제안

끝으로 자은도 구비전승자원의 정책제안이다. 현단계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자은도 사람들과의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생활의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비전승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구슬도 꺾어야 보배’ 라는 말로 비추어보면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 구슬을 전승시키는 길을 찾는 일이라든지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그 구슬을 전승시키는 일을 찾는 일이라든지 등이다.

#### (1) 생활현장의 구비연행자와 국가의 무형문화재 지정확대

필자는 고장리 고장마을 지관 김성국(남, 62, 1953) 씨<sup>5)</sup>와 함께 2014년 10월 1일(수) 오후 5시, 백산리 분계마을 김동철(남, 91)씨를 만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

장구를 김성국씨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 김동철씨는 장구의 여러 장단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상여소리를 구연했다. 가쁜 숨을 내리쉬는 김동철씨였지만, 그 가락과 소리는 여전히 공간을 가르며 뻗쳐 나갔다.



〈사진 10〉 백산리 분계마을 김동철(남, 91)씨(2014.10.01.오후 촬영)

5 홍순일 조사, 김성국(남, 62, 1953)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외부인이 자은에 들어와 살면 득이 된다는 이야기, 지관들이 찾아 다닌 응암산의 복치혈 이야기, 김동철씨택 안내하기〉, 자은면 고장리 고장마을, 2014.10.01(수) 13:33~17:00.

필자는 이때 무형문화재시대에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발굴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문화재정책의 방향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보증기관이 되어 국가, 도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듯이, 신뢰할 만한 또 다른 기관이 보증기관이 되어 군, 면, 리 무형문화재를 확대·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지를 모으지 않을 수 없다.

## (2)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기획출판과 연구자의 자료조사

실제로 자은도 사람들은 보배를 알아보았고, 그 보배를 만들기 위해 구슬을 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책을 만드는 일이었다. 즉 생산면에서 일기 및 가계부로부터 면지, 단행본까지, 교육면에서 생활현장의 연행부터 순회 공연까지 등 양면에서 문학예술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자은면 고장리 성성진(자은도 임득수 포함)씨의 『자은면지』 발간 시도<sup>6)</sup>는 이것의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자은도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자기화해 내는 일이 구상·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문학면에서 갈래별 이야기(지명설화, 인물설화, 경험담), 소리(민요, 판소리), 관용어(속담, 금기어), 민요공동체(산다이, 달야)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벽산리 분계마을 김동철씨의 장구장단 및 상여소리<sup>7)</sup>를 전승하는 일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무가를 수집하는 일도 급해진 상황이다.

다음에 예술면에서 민요공동체(산다이, 달야)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깊어져야 한다. 자은도 사람들은 실생활의 연중행사인 세시풍속에 따라 산다이를 하고, 삶의 흐름을 유지해 나갔다. 또한 이와 짝하여 자연과의 생산의례와 인생과의 통과의례를 교직해 나가면서 “달야 하러 가”자고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학술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6 성성진·임득수, 『자은도지(慈恩島誌)』, 1997. 미발간.

7 홍순일 조사, 김동철(남,91)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장구와 장단, 상여소리>, 자은면 벽산리 분계마을, 2014.10.01(수) 17:00.

## [참고문헌]

### 강봉룡

『자은면의 관광자원』, 강봉룡 외,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 - 자은면 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201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780&cid=50223&categoryId=51052>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자은면 공동답사 자료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일대, 2014.02.18.~19.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3.

### 성성진 · 임득수

『자은도지(慈恩島誌)』, 자은면사무소, 1997. 미발간.

### 신순호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대한민국 도서백서』, 행정안전부, 2011.

### 이준곤

『Ⅵ. 자은도의 용신신앙과 해양문화의 변용』, 『서남해 도서지역 해양설화와 해양문화』, 국토해양부 호남지역 씨그랜트 사업단, 117~132쪽, 2009.

### 최성환 편저

『용이 만든 연못 자은 용소』,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 · 신안문화원, 두김디자인, 2008.

###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http://encykorea.aks.ac.kr/>

### 허경희 · 이승만

『Ⅳ. 완도지역의 민요와 민요사회』, 『안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특성 - 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9, 남도민속학회, 281~325쪽, 2009. 12.

### 홍순일

『도서민요의 공동체와 구비연행』, 민속원, 2012.

### 홍순일

『Ⅵ. 구비전승』, 강봉룡 외,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자은면 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2015.



# VII

## 방언문화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202
2. 조사과정	202
3. 지명	203
4. 바넷소	204
5. 택호	206
6. 친족어	208
7. 물고기이름	211
8. 게, 고둥, 굴, 해초, 새우	214
9. 지형	216
10. 기타어휘	216
11. 결론	219

## VII. 방언문화

### 1. 머리말

자은면은 압태도, 팔금도, 안좌도와 다리로 이어져서 하나로 섬으로 통합되었다. 비록 지금은 섬이지만 육지와 연륙이 되어 더 이상 섬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은면은 9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갖추고, 땅콩과 대파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웃 섬들과 다리로 이어짐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훨씬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방언 자료 가운데 관광객 등 일반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휘들을 골라 제시하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표준어나 다른 지역과 다른 이 지역만의 독특한 말, 표현법, 의미 등을 발견한다면, 자은면을 찾는 외지인들로서는 낯선 지역의 독특함을 경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조사 과정

조사는 2014년 2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압해도 송공항을 떠난 것은 2월 18일 아침 10시경이었다. 승선 후 30여 분만에 압태도에 도착하였고, 이어 승용차편으로 자은면으로 이동하였다. 자은면사무소에 모여 면장님으로부터 자은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면사무소

근처에서 점심을 하였다. 이어 자은문화원 이사 김정용님과 함께 대울리로 이동하여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대울리 경로당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제보자는 노인회장 김자수(76세), 전 노인회장 및 전 군의원 이종성(82세)님이었다.

대울리에서 1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한운리로 이동하여 역시 한운리 경로당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운리 경로당에는 10여명의 여자 노인들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자은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이정애(72), 조옥진(74), 강두월(78) 등이다.

다음날인 2월 19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정도 숙소에서 문화원 이사인 김정용님(73세)과 다시 조사를 하였다. 김정용님은 대울리 신흥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날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새로운 어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였다.

결국 자은면에서는 대울리와 한운리의 두 지역을 조사한 셈이 되었으며, 총 조사 시간은 4시간 정도이다.

### 3. 지명

지명은 현지인들이 부르는 이름과 행정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예를 들어 ‘대울리’는 한자로 ‘大栗’로 적는데, 그 뜻은 ‘큰 밤’이다. 이러한 한자 지명은 이곳의 애초 명칭이 ‘한배미’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한배미’를 ‘한’과 ‘배미’로 분석하고, ‘한’은 ‘大’, ‘배미’는 ‘栗’로 해석한 것이다. ‘한’을 ‘大’로 해석한 것은 옳지만, ‘배미’를 ‘栗’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 아니할 수 없다.

‘한밤’에 굳이 접미사 ‘-이’가 붙을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배미’의 ‘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이 하나하나의 구역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한배미’는 곧 ‘큰 배미’일 것이다. 제보자 김종성님은 ‘한

배미'의 옛 한자 이름이 '寒夜'이었다는 사실도 제보해 주었다. '한배미'의 '한'을 '寒'으로, 그리고 '배미'를 '夜'로 해석함으로써, '추운 밤'이라는 뜻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역시 전혀 잘못된 해석이다. 한자어와 순수 우리말을 함께 합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잘못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寒夜'를 나중에 '大栗'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순수 고유어 지명의 어원을 굳이 한자어로 바꾸려는 시도가 안타깝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다. 우리말보다 한자어를 더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관청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처럼 순수 우리말 지명을 한자어로 잘못 바꾼 예로는 '자라지'를 '新興'으로, '참새골'을 '眞泉'으로 바꾼 경우를 더 들 수 있다. '자라지'를 아마도 동사 '자라다'와 관련시켜 '새로 자라다'의 뜻을 갖는 '新興'으로 바꾸었을 터인데, 실제 전남 지역에서는 '자라다' 대신 '크다'라는 동사를 쓴다. 따라서 '자라지'의 '자라'를 동사 '자라다'와 관련 짓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참새골'의 '새'를 '샘'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眞泉'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泉'은 '샘'이 아닌 '새미'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眞泉'이 되려면 '참새밧골'처럼 되어야 할 텐데 지명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 역시 어원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4. 바넷소

씨앗 갖다 키워서 새끼 낳면 쉬양치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린 쉬양치를 가져다 한 2년 정도 키워서 고놈을 팔아갖고 주인하고 절반씩 돈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 돈으로 나눈 것보고 '바넷소'라고 그러고. (=배넷소 가져다 키워서 새끼 낳으면 송아지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린 송아리를 가져다 한 2년 정도 키워서 그것을 팔아갖고 주인하고 절반씩 돈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 돈으로 나눈 것보고 '바넷소'라 그러고.)

농경 시대에 소는 농사일을 돕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집이 소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의 소를 키워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그

런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집에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약 2년 정도 키운 뒤,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자신이 갖고 원래의 소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2년 동안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을 정도로 자랐으니 원 주인도 이득을 본 것이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송아지를 갖게 되었으니 소를 빌려 키운 사람도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를 표준어로는 ‘배넛소’라 하는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씨압’이라 한다. ‘씨’는 종자(種子)를 말하는 것이고, ‘압’은 ‘아비’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씨압’은 ‘종자소를 줄 수 있는 부모 소’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한편 송아지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 있다. 가져온 송아지를 약 2년 정도 키우면 송아지는 어느덧 큰 소로 자랐을 텐데, 이 소를 장애다 팔아서 받은 돈을 주인과 키운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소 값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에 따라 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것이므로, ‘씨압’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큰 방식이다. 이를 신안의 자은면에서는 ‘바넛소’라 부른다.

표준어 ‘배넛소’는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하고,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배내’라고 하므로, ‘배넛소’는 신안의 ‘씨압’이나 ‘바넛소’의 두 가지 방식에 다 적용되는 말인 셈이다. 신안의 ‘바넛소’는 표준어 ‘배넛소’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어원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바넛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반(半)엿소’에서 온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배내’의 뜻을 갖는 한자어에 ‘반양(半養)이 있어, ‘바넛소’를 ‘반엿소’로 볼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하다.

이처럼 신안 자은도의 ‘씨압’과 ‘바넛소’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씨압소’와 ‘갈라먹기’의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씨압소’는 신안의 ‘씨압’과 같은 경우이고, ‘갈라먹기’는 신안의 ‘바넛소’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암소를 키워 송아지를 얻는 방식만을 취하는데, 이를 가리켜 진도에서는 ‘어시소’, 영암에서는 ‘도짚소’, 그리고 보성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배넛소’를 사용한다.

## 5. 택호

택호란 집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처가나 본인의 고향 이름 따위를 붙여서 그 집을 부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남편이 마을의 이장 일을 맡아 하는 집이라면 ‘이장댁’이나 ‘이장네’ 처럼 부르는 것은 벼슬 이름을 사용한 경우이고, 전남의 경우, 부인의 친정인 ‘담양’ 일 경우 ‘담양떡’은 해당 집의 부인을 부르는 택호가 될 것이고, ‘담양양반’은 그 집의 바깥주인을 부르는 택호가 될 것이다. 이처럼 택호란 결혼한 성인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 이름 대신 사용하는 호칭법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남의 내륙에서는 여자의 경우 ‘-떡’, 남자의 경우 ‘-양반’이라는 접미사를 붙인다. ‘떡’은 아마도 ‘-스댁’에서 발달한 말로 보인다. 표준어와 달리 사이시옷이 개재되고 모음이 달라진 것이 차이로 하겠다. 이러한 육지 지역과 달리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접미사가 ‘-스댁’이 아닌 ‘-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선행하는 요소는 부인의 친정 지명이 아닌 자식의 이름이다. 따라서 아이의 이름이 ‘영숙’이라면 ‘영숙이네’가 된다. 이 뒤에 母나 父를 가리키는 다양한 방언형, 예를 들어 ‘어메/아베’, ‘어메/압씨’, ‘엄/엄’ 등이 덧붙기도 한다. 따라서 ‘영숙이네’의 경우, ‘영숙이네 어메/영숙이네 아베’, ‘영숙이네 어메/영숙이네 압씨’, ‘영숙이네 엄/영숙이네 엄’과 같은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네’와 후행하는 모음이 축약되어 ‘영숙이너메/영숙이나베’, ‘영숙이너메/영숙이납씨’, ‘영숙이넴/영숙이남’(신안 비금, 팔금, 여수 거문도 등)과 같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아이 이름에 접미사 ‘-네’를 사용하여 택호를 만드는 방법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진다.

진도와 신안의 섬 지역에서는 아이의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집안에서 속되게 부르는 이름이 발달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차례를 따르거나, 아이의 외가 즉 엄마의 친정 지명을 따르는 방식이 있다. 차례를 따르는 경우, ‘첫째, 둘째, ...막둥이’와 같은 아이의 호칭 방식은 다른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진도의 경우 특정한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이 새롭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남자이면 ‘-바’, 여자이면 ‘-단’ 또는 ‘-심’을 붙인다. 그래서 ‘큰놈, 두바, 시바, 니바, 오바,...’ 등은 이들의 속명이고, ‘큰년, 이단이, 시단이...’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한편 외가 지명을 따를 경우, ‘대삿

꿀'에서 시집온 여자가 낳은 첫째가 아들이면 '대바', 딸이면 '대단이'나 '대심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진도 조도에서는 아들의 경우 접미사가 '-바'가 아닌 '-수'로 바뀐다. 그래서 '볼매섬'에서 시집온 여자의 첫째가 아들이면 '볼매수'가 되고, 딸이면 '볼매단'이 된다. 한편 신안의 하의도에서는 딸의 접미사가 '-니' (모음 다음에서는 '스니')가 되어 '뒷개'에서 시집온 여자의 첫째가 아들이면 '뒷개수', 딸이면 '뒷갯니'가 된다.

이상과 같이 진도, 조도, 신안의 신의도나 하의도에서는 첫째의 속명이 아이의 외가 지명(다시 말하면 엄마의 친정 지명)에 특정의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성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택호가 결정된다. 따라서 첫째가 아들이면, 조도, 신안의 신의도와 하의도에서는 '-수네'가 되며, 딸일 경우 '-단네' 또는 '-스니네'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섬 지역의 일반적 택호 방식을 고려할 경우, 자은면의 택호는 어떤 것일까? 조사에 따르면 우선 이 지역은 첫째의 성별에 따른 접미사의 구별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와 '-단' 또는 '-수'와 '-니' 등의 대립은 없었다. 다만 아이를 낳기 전의 부인들을 부르는 방식은 부인의 친정 지명에 '-수네'를 결합시키는 것이어서, 만약 대울에서 시집온 여자라면 '대울수네'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자은면에서는 '-수네'가 더 이상 분석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택호 접미사처럼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애초 조도 등지에서 수립된 아이의 성별에 따른 구별 방식이 지리적으로 점차 멀어지면서, 자은면에 이르러서는 그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기본형인 '-수네'가 쓰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금면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같은 마을에서 혼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네 이름을 다시 쓰기보다는 특별한 택호를 사용한다. 신안 신의면에서는 '한몰수네', 하의면, 장산면에서는 '본토수네'라 하는데, 자은면에서는 '본촌수네'라 하였다. '본촌'은 '本村'이니 '그 마을'이라는 뜻이다. '본촌수네'는 자은면 외에 비금면에서도 사용된다. 참고로 광양에서는 '제동떼기', 경남 통영에서는 '제곳에택'이라고 하며 속되게는 '맷돌택'이라고 한다.

자은면의 경우, 여자의 친정 지명을 이용하는 택호 방식은 현재 50-60대 부인네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어머니 세대에 사용되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렇다면 오늘날 젊은 부인네들을 부르는 택호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사용되는가? 일차적으로는 아이 이름을 이용하여 ‘아무개네 어메’ 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남편의 이름에 ‘각시’ 를 붙여 ‘아무개 각시’ 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름을 이용하는 호칭법은 아마도 아이를 낳기 전의 방식일 것이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남편 이름이 ‘영식’ 인 경우, 갓 시집 온 새댁은 ‘영식이 각시’ 라고 부르며, 첫애를 낳으면 그 애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네 어메’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 6. 친족어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즉 어머니, 아버지, 동생, 누나, 할아버지 등을 가리키는 말들을 통틀어 ‘친족어’ 라 한다. 자은면의 친족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전남의 육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부모는 ‘아버지’ 와 ‘어메’ 라는 말을 쓴다. 운을 맞추기 위해 ‘아버지’ 대신 ‘아베’ 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라고 한다. 이렇게 부와 모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메’ 는 ‘아버지’ 에 비해 더 친밀한 느낌을 주는 친족어인 셈이다.

조부모는 ‘하나씨’ 와 ‘할메’ 라는 말을 선호한다. ‘하나씨’ 는 ‘한압씨’ 에서 /ㅂ/이 탈락한 형태이며 ‘할메’ 는 앞서 언급한 ‘어메’ 와 끝 음절의 운이 맞는 형태이다.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의 남부 지역에서는 ‘하나씨’ 외에 ‘조부씨’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은면에서는 이러한 친족어는 쓰이지 않는다.

형제를 지칭하는 말로는 우선 ‘동승’ 과 ‘성’ 또는 ‘성님’ 을 들 수 있다. ‘동승’ 은 ‘동생’ 의 변이형인데, 말갈이가 남자나 여자인 경우 가리지 않고 사용된다. 여자들은 손아래 동서를 부를 때도 ‘동승’ 이라는 말을 쓴다. 다만 가리킬 경우에는 ‘동세’ 라 한다. 한편 ‘성’ 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사용할 수도 있다. 표준어 ‘언니’ 에 대응하는 방언형인 셈이다. 여자가 손위 남자 형제를 가리키기 위해 표준어는 ‘오빠’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은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래비’, ‘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랍씨’ 등을 사용해 왔다. 특히 ‘오랍씨’는 신안의 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형태인데, 자은면에서도 과거에 많이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오늘날에는 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신안의 남부 섬에서 사용되는 ‘오랍’이란 말은 자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성님’은 여자들이 손위 올케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쓴다. 물론 남자가 형을 존경스럽게 부를 때도 쓰일 수 있다. 손위 올케에 대해 전남의 육지 지역은 ‘오라부덕’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자은면에서는 그러한 말은 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언니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는 ‘성부’가 쓰인다. 하의도에서 확인되었던 ‘아잠’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어 ‘아저씨’와 ‘아주머니’에 대응하는 자은면의 말로 ‘아저씨/아자씨’, ‘아제’, ‘아잠’ 등이 있다. 자은면에서 ‘아자씨’와 ‘아저씨’는 함께 쓰이는데, 아마도 ‘아자씨’가 토착적인 어형으로 생각된다. ‘아자씨’는 어원적으로 ‘앗’과 ‘압씨’의 합성어 ‘아잡씨’로부터 변화된 어형이다. 자은면에서 ‘아자씨’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낱말이라는 점에서 표준어 ‘아저씨’와는 그 지위가 다르다. 여자들이 시동생을 부르거나, 남편 또래의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흔히 사용한다. 시동생을 가리킬 때는 ‘아자씨’라고도 할 수 있지만, ‘씨아잠씨’라 하기도 한다.

한편 남편의 형인 시아주버니는 자은면에서 ‘시숙’이라 하고, 이 말은 남편 또래의 동네 남자들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도 쓸 수 있다. ‘시숙’이나 ‘시숙님’은 ‘아자씨’보다는 더 높이는 말이다.

‘아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사용하는데, 남자들이 사용하는 ‘아제’는 아버지 또래의 남자 어른이나 숙향 향렬의 친척 남자 어른들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쓴다. 반면 여자들은 ‘아제’라는 말로 시아버지 또래의 동네 어른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아잠’은 어머니 또래의 친척 즉 숙모 향렬의 여자 친척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범주 안에는 외숙모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용법이 확대되어 어머니 또래의 동네 여자 어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자들의 동서를 지칭할 때는 ‘동세’라 하고, 호칭으로는 ‘성님’이나 ‘동승’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모부는 이 지방에서 ‘작숙’이라는 말로 지칭과 호칭을 겸하고 있다.

시집간 딸을 부를 때에는 육지에서는 ‘-실이’ 라는 접미사를 사위의 성에 덧붙여 말한다. 예를 들어 김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은 ‘김실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이러한 용법은 없으며, 대신 딸이 시집간 시댁의 지명과 ‘아이’의 방언형 ‘아그’를 합성시켜 말한다. 예를 들어 자은면에서 이웃 섬인 암태도로 시집간 딸은 ‘암태다그야’라고 부른다. 이 말은 지명인 ‘암태’와 ‘아그’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암탸아그’의 음성 실현형이다.

육지에서는 장성한 남자 동생이나 남자 조카 등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손’이라는 접미사를 해당 동생이나 조카의 처가 지명에 결합시켜 부르는 용법이 있으나(예: ‘양지’라는 말이 처가인 동생을 ‘양지손’이라 부르는 것 등), 자은면에서는 이러한 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처남댁’을 ‘처나무댁’, 외숙을 ‘외삼춘’, 그리고 ‘시누이’를 ‘시누’라고 부르는 용법은 전남의 육지 지역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친족어는 아니지만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댁네’와 ‘누삼네’ 등을 들 수 있다. ‘댁네’는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자어 ‘댁’(宅)과 고유어 ‘네’로 이루어진 말이다. 여자들의 태호로 사용되는 접미사가 육지에서는 ‘-똥’(宅), 섬 지역에서는 ‘-네’가 사용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댁네’는 이 두 접미사가 합성된 것이 특이하다.

또한 자은면을 비롯한 신안의 여러 섬에서는 인칭 대명사로서 ‘그삼네’, ‘저삼네’, ‘이삼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삼네’는 지시어 ‘그’와 ‘사람’의 축약형 ‘삼’에 복수접미사 ‘-네’가 결합된 것으로서 표준어 ‘그 사람네’에 형태적으로는 대응된다. 그러나 신안 지역어에서 ‘그삼네’는 표준어 ‘그 사람네’와 달리 마치 ‘그이’와 같은 삼인칭 대명사로 기능한다.

(예) 그삼네가 와서 멋이락 허드만 {그이가 와서 뭐라고 하더구먼}

‘그삼네’의 이런 형태나 용법은 신안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지시어 ‘이, 그, 저’ 외에 의문대명사 ‘누’와 결합된 ‘누삼네’가 쓰이기도 한다. ‘누삼네’는 발화 현장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표준어로는 ‘아무개’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누삼네 어메’는 ‘아무개 엄마’로 번역할 수 있다.

## 7. 물고기 이름

자은면은 비록 섬이지만 농업이 주를 이루고 어업은 극히 일부 지역(예를 들어 한우리 정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은면 토박이라기보다는 고흥이나 완도 등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바닷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특별히 바다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한우리 지역에서 조사된 몇 가지 어휘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자은면에서 나는 생선으로는 ‘숭어, 운저리, 장:대, 짱어’ 등을 들 수 있다. ‘운저리’는 망둥이의 방언형이고, ‘장대’는 정확히 어떤 표준어에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짱어’는 물론 ‘장어’의 방언형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은면에서도 물고기의 성어(成魚)와 치어(稚魚)를 구별한다. 아래에 몇 가지를 제시한다.

- ▶ 깔떡/깔떡구 - 농어
- ▶ 민둥이 - 통치 - 민어
- ▶ 가느리 - 풀치 / 풀갈치 - 갈치

그리고 ‘멸치’에 대해서는 보통의 크기는 ‘멜’ 또는 ‘멜치’라 부르고, 손가락 굵기만큼 큰 것은 ‘통멜’이라 한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숭어’이다. ‘숭어’는 훈몽장회에 ‘슈어(秀魚)’가 보이고 이것이 ‘숭어’를 거쳐 오늘날의 ‘숭어’가 되었다. 숭어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 년 내내 잡히는 아주 흔한 고기이다. 이런 흔한 바닷고기인 까닭에 크기나 나이에 따른 다양한 이름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은면에서는 숭어를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별하여 7가지를 구별하는 신의면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도 숭어는 일반적으로 ‘참숭어’와 ‘개숭어’를 구별하며, ‘개숭어’를 하의도나 신의도에서는 ‘쓰랭이’ 또는 ‘씨랭이’라 하기도 하는데, 자은면에서는 이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 ▶ 자은면 : 곱싸리 - 문치 - 거머리 / 땡가리 - 동에 - 송에(자은면)
- ▶ 신의면 : 쌀모치 - 보릿모 - 모치 - 외손재비 - 누렁모 - 무걸모 - 송에(신의면)
- ▶ 무 안 : 모치 - 참동어 - 손톱배기 - 땡가리(네살) - 무구력(다섯살) -  
눈부럽떼기(여섯살) - 송에

한편 무안에서도 7가지를 구별하는데, 크기보다는 송어의 나이에 따라 구별한다. 그래서 ‘땡가리’는 네 살 먹은 송어를 말하며, ‘무구력’은 다섯 살, ‘눈부럽떼기’는 여섯 살, 그리고 7년 이상 자란 것이어야 ‘송에’라고 부른다고 한다(김준 2013:48). 자은면은 특히 제일 작은 송어를 ‘곱싸리’라 부름으로써 ‘쌀모치’ 또는 ‘모치’라 부르는 신의면이나 무안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자은면에서도 ‘모치’의 변이형 ‘문치’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곱싸리’보다 더 큰 송어를 가리키는 점에서 제일 작은 송어를 가리키는 무안과 다르다. 그리고 신의면에서 ‘모치’는 7단계 가운데 4번째의 송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과연 자은면의 ‘문치’와 같은 크기인지가 궁금하다. 참고로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안 지역에서 ‘송어’를 부르는 이름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장태진1981:195-199).

### [전남 지역]

- ▶ 무안 : 모치 - 참동애 - 땡가리 - 묵시리 - 소송애 - 송애
- ▶ 해남 : 모치 - 시렁이 - 거머리 - 송애 - 갯송애
- ▶ 완도 : 쌀모치 - 모랭이 - 동어 - 소송애 - 송애 - 묵시리
- ▶ 강진 : 모치 - 동어 - 모쟁이 - 준거리 - 송어
- ▶ 작천 : 모치 - 동애 - 이설치 - 송애
- ▶ 영암 : 모치 - 묵은뭇 - 땡가리 - 모그락 - 송애
- ▶ 전남 명산 : 모쟁이 - 모치 - 무글모치 - 땡가리 - 묵시락 - 송애
- ▶ 전남 독대 : 쌀모랭이 - 조도리 - 덜거리 - 송애

**[서해안]**

- ▶ 평북 사략도 : 모랭이 - 덩어 - 엇덩어 - 시숭에 - 무덩어 - 중숭에 - 간재비 - 숭에 - 대숭에/차리
- ▶ 평남 평양 : 모치 - 산마루 - 마룩쟁이 - 구마루 - 숭어
- ▶ 평남 한천 : 모쟁이/모치 - 초간모쟁이 - 글거지 - 전어 - 숭어 - 나모래기 - 나모리
- ▶ 평남 진남포 : 모쟁이 - 또물치 - 모치 - 둥글모치 - 이릅숭어/둥어/중숭어 - 방치숭어 - 사릅숭어 - 나모르기
- ▶ 황해도 연안 : 동어 - 애정어 - 정어 - 사릅 - 나모래기
- ▶ 황해도 은율 : 모릉이 - 이릅모치 - 이릅 - 사릅모치 - 사릅 - 숭어
- ▶ 황해도 곡천 : 저투리/글거리 - 적저투리/아정어 - 사릅 - 옷사릅 - 반봉이
- ▶ 서울 : 동어 - 모쟁이 - 숭어 - 대다리 - 똑다리
- ▶ 경기도 행주 : 동어 - 셋메기모쟁이 - 억그물모쟁이 - 덜미 - 똑다리
- ▶ 경기 황산도 : 모치 - 동어 - 글거지 - 애정어 - 묵은정어 - 애사슬 - 묵은사슬 - 패 - 미령이 - 덜미 - 나무레기
- ▶ 경기도 월간 : 동아 - 굴거리 - 언지
- ▶ 충남 서산 : 모치 - 모쟁이 - 숭어
- ▶ 전북 김제 : 모치 - 말어/마룩쟁이 - 숭어

**[동해안]**

- ▶ 함북 부포동 : 고투어리 - 숭어
- ▶ 강원 강릉 : 수치 - 모치 - 숭어
- ▶ 강원 고저 : 고투어리 - 숭어
- ▶ 경북 강구 : 모치 - 솟치 - 숭어
- ▶ 경남 봉암도 : 모치 - 모쟁이 - 숭어

물고기 가운데 갈치의 작은 것을 ‘폴치’ 나 ‘폴갈치’ 라 하지만 ‘가느리’ 라 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주로 젓갈을 담그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한편 민어의 새끼인 ‘통치’ 외에 ‘민둥이’ 라는 것도 있다. ‘민둥이’ 는 통치보다 더 작은 민어 새끼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 밖의 물고기로는 ‘강다리’ (=황석어), 송에(=밴댕이), 짱뚱이, 꼬록(=꿀뚜기) 등이 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자은면에서는 보통 ‘날개’ 라 하며 ‘날각지’ 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아가미는 ‘구섬파리’ 라 한다. 배쪽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도 ‘날개’ 라고 할 수도 있고 ‘지느레미’ 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느레미’ 는 아마도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어형으로 보인다. 꼬리는 ‘꿀랑지’ 라 한다. 그리고 물고기의 창자는 ‘창사’, 또는 ‘창사구’ 라 부른다.

물고기를 잡는 배에서 ‘치파리’ (=키)를 잡는 사람은 ‘선장’, 밥을 하는 선원은 ‘화장’, 그 밖의 선원은 ‘뱃사람’ 이라 부른다.

## 8. 계, 고등, 굴, 해초, 새우

### 1) 계

자은면에서 조사된 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대체로 신안의 다른 섬에서 조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빨끼, 수통기, 꽃기/논계, 빨떡기, 살끼(어린 것)/당살끼(큰 것=꽃계), 뜰짱기, 방기

### 2) 고등

고등에는 ‘사막고등, 멩지고등, 포가리고등, 매운고등, 갈고등(갈고시)’ 등이 있다. 또한 소라는 이 지역에서 ‘소룽’ 이라 한다.

### 3) 굴

굴은 자은면에서 ‘꿀’ 이라고 한다. 전남의 내륙 지방에서는 ‘석화’ 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굴 껍질은 ‘찍’ 이라 한다. 그리고 바위에 붙은 굴을 따러 가는 것을 ‘굴 좇이로 간다’ 고 표현한다. 여기서 동사 ‘좇다’ 는 표준어 ‘쫓다’ 와 어원을 같이 하는 말이지만, 전남 방언에서 ‘좇다’ 는 의미적으로 ‘쫓다’ 외에 ‘다지다’ 와 같은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꿀 좇이로 간다’ 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바위에 붙어 있는 굴의 껍질을 열어 그 속에 있는 굴을 떼어낸다는 뜻이다. 동사 ‘좇다’ 의 의미가 이처럼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를 ‘조새’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동사 ‘좇다’ 에 접미사 ‘-애’ 가 결합한 것이다.

### 4) 해초

바웃: 아마도 ‘바우웃’ 에서 축약된 말로 보인다. 바위에 끼는 이끼를 전남 내륙 지방에서 ‘바우웃’ 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은면에서도 바닷가 바위에 끼는 해조류의 한 종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바웃’ 은 끓여서 고면 엉기는 특징이 있어 마치 ‘우뭇가사리’ 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 까사리: ‘가사리’ 라고도 하며, 된장국을 끓일 때 함께 넣어 끓여 먹는다.
- ▶ 포래: ‘파래’ 의 방언형이다. 포래에는 ‘찍’ 에 붙어 있는 ‘찍포래’ 와 고둥에 붙어 있는 ‘고둥포래’ 그리고 ‘갈포래’ 의 세 종류가 있다.
- ▶ 뚝북: 뚝부기
- ▶ 툽/툽: 툽을 이 지역에서는 ‘툽’ 이라고 한다.,
- ▶ 해우: 김을 말하며 한자어 海衣에서 온 말이다.  
전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 ▶ 싱갱이: 매생이

그밖에 ‘우무’ 와 ‘미역’ 등이 있다.

## 9. 지형

물가의 지형을 가리키는 이름은 다른 신안 지역과 비슷하다.

- ▶ 장불(곤독): 갯벌의 모래밭
- ▶ 짝지: 갯벌의 자갈 있는 곳
- ▶ 물각단: 바닷물이 빠져 나갈 때의 끝 지점
- ▶ 뎨동: 개펄 중에 땅이 단단하고 물이 빠지면 좀 높게 솟아 있는 곳
- ▶ 진창/진참: 개펄 가운데 물이 질퍽한 곳. 이 '진참'은 '뎨동'과 대조되는 지형이며, 이런 지형에는 다양한 게가 살 수 있다. 아마도 형용사 '질다'를 포함한 말로 보인다.
- ▶ 갯뜰/개웅(더 일반적): 개펄 안에도 내처럼 물이 흐르는 곳.  
이곳은 바닷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 10. 기타 어휘

- ▶ 윗놀이: 험 - 독 - 석 - 막  
험: 말 하나. 첫 번째 말. (예) 험 하나 푸다  
독: 두동. (예) 독 만들어서 간다. 독 찼다.  
석: 석동  
막: 막동  
부끄대(말 2개가 동시에 붙는 모습)
- ▶ 향참: 경계(밭과 밭 사이, 그밖에 산과 산 사이 등 일반적인 경계를 가리킬 수 있다.)
- ▶ 식혜 - 감주 - 단술  
식혜: 만들 때 엿밥 사용  
감주: 엿기름 들어감. 꽃감 넣어서 달게 만든 음료수. 수정과와 같음.  
단술: 식은밥(주로 쌀밥)에 누룩 넣어서 삭힌 것. / 술에 감미료를 탄 것.

- ▶ 한주: 집에서 내린 소주
- ▶ 푸령등 앙겼다: 멍이 들었다
- ▶ 배추 폭: 배추 포기
- ▶ 나락 끝팅/나락 폭지: 벼 베고 남은 밀동
- ▶ 팽매질: 물수제비
- ▶ 콩눈: 우박
- ▶ 장닥꽁: 수평
- ▶ 암딱꽁: 암괭
- ▶ 자물싸지다: 까무러치다
- ▶ 답사리: 작은 머슴
- ▶ 에기께: 업저지
- ▶ 안질가리 깔앙그다: 양금이 가라앉다.
- ▶ 자장게비: 삭정이
- ▶ 썩타리: 나무 꼭대기가 잘려서 남은 부분이 썩은 것. 그루터기가 썩은 것.
- ▶ 꼬작: 꼭대기
- ▶ 소두랑: 솔뚜껑
- ▶ 시리벤다구: 시룻번
- ▶ 성문/장게미: 정강이
- ▶ 송쿠리(재 담는 것, 재송쿠리): 삼태기
- ▶ 메꾸리: 먹서리
- ▶ 몰랑가지: 꼭대기 미처 못 간 곳. 산봉우리 아래 부분.
- ▶ 빨쪼리: 물부리, 빨부리
- ▶ 묻이: 만이
- ▶ 묻아들: 만아들
- ▶ 묻사우: 말사위
- ▶ 나락모개: 벼이삭
- ▶ 집회: 기 / 헤: 기: 새패기

- ▶ 멧독 옷짱 / 아랫짱/ 밑짱: 멧돌 수쇠 / 암쇠
- ▶ 도르다, 돌아오다: 훔치다, 훔쳐오다.
- ▶ 더꺼머리 총각: 떠꺼머리 총각
- ▶ 바우웃: 바위에 끼는 이끼
- ▶ 녁장 들리다: 갑자기 놀라다
- ▶ 나람: 이영. 마람
- ▶ 용나람: 용마람
- ▶ 국떡: 가래떡
- ▶ 군뒤: 그네
- ▶ 꿏밥: 귀지
- ▶ 날싸다 / 날랍다: 날싸다 / 날래다
- ▶ 우찌지: 옷기, 제사상에 놓을 때 맨 위에 놓은 떡이나 고기
- ▶ 정지: 부엌
- ▶ 부삭: 아궁이
- ▶ 부송: 부뚜막
- ▶ 원동재비: 원손잡이
- ▶ 마루: 판자나 시멘트로 바닥을 깔고 곡식 따위를 넣어 두는 방. '곳간방' 과 같음
- ▶ 물리: 마루
- ▶ 솔때우리: 솔 때우는 사람
- ▶ 개: 똥불: 반딧불
- ▶ 벌거지: 벌레
- ▶ 주벽: 주걱
- ▶ 놀살: 물걸
- ▶ 비거리: 비 오기 전에 급하게 걷는 것
- ▶ 비모리: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며 걷는 것

## 11. 결론

### 1) 특별한 방언의 예

방언은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나 있는 언어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한 어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 주는 매개체이다. 섬 지역도 육지와 다른 독특한 섬 문화가 있는데, 방언을 통해 이런 문화를 섬을 찾는 외지인들에 소개함으로써 섬을 이해시키고, 섬의 특별한 가치를 알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로서 두 가지 방언을 들어본다.

#### (1) 택호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낙네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택호이다. 신안이나 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아이 이름에 접미사 ‘-네’를 결합하는 택호를 사용하여 접미사 ‘-떡’(<< -떡)을 사용하는 육지와 차이를 보인다. 장산도의 모개 마을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따로 택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이나 ‘동승’과 같은 친족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어머니 시절에는 안좌도에서 시집온 여자를 ‘안좌수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하였다. 현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장산면에서는 여자 아이를 속명으로 부를 때, ‘-니’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니’는 하의도에서도 확인된 접미사이다. 그래서 ‘시물’이나 ‘자라도’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는 ‘시물니’나 ‘자라똥니’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듯이 접미사 ‘-니’ 앞에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하의도의 경우와 같다. 다만 장산도에서 특이한 것은 아이의 외가 지명뿐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달과 같은 시간 표현에도 접미사 ‘-니’가 붙을 수 있었다. 그래서 8월에 낳은 아이를 ‘팔월니’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접미사 ‘-니’가 붙은 아이 이름에 다시 접미사 ‘-네’를 덧붙여 그 아이 엄마의 택호로 삼았다. 그래서 ‘팔월니’의 엄마는 ‘팔월니네’가 되고, 자라똥니의 엄마는 ‘자라똥니네’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장산도의 제보자들은 임자도나 무안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택호 대신 ‘-택’과 같은 접미사를 사용한다고 인지하였다. 이것은 무안과 같은 육지에 가까운 섬 지역은 섬의 전형적인 방식 대신 육지와 같은 택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니’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수’를 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니’에 비해 ‘-수’의 접미사로서의 생산성이 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수네’와 같은 복합형식은 여자의 택호 접미사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자은면과 마찬가지로 ‘-수네’가 하나의 택호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한편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가는 경우의 택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모개’에서 ‘모개’로 시집간 여자는 ‘모개수네’라 하였다고 하나, 제보자에 따라 ‘본토수네’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본토수네’는 하의도에서도 사용되었던 어형이므로 아마도 장산도와 하의도가 이 점에서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소와 관련된 어휘

### (2.1) 교배를 가리키는 말

종자가 좋은 수컷으로부터 씨를 받는 일에 대해 표준말은 ‘교배하다’와 같은 말을 쓰지만 전라도말은 ‘불붙이다’, ‘수붙이다’, ‘대붙이다’, ‘갓붙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불붙이다’나 ‘갓붙이다’는 담양 등지에서 쓰이고, ‘수붙이다’는 함평 지역에서 쓰이는 반면 ‘대붙이다’와 같은 말은 신안, 진도, 해남, 무안 등지에서 쓰인다. 따라서 장산도에서도 ‘대붙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밖에 ‘부대붙이다’와 같은 말을 쓰기도 한다. ‘부대붙이다’의 ‘부대’는 아마도 ‘불붙이다’의 ‘불’과 ‘대붙이다’의 ‘대’가 합성된 말로 보인다.

전라도말 ‘불붙이다’의 ‘불’은 ‘불알’, ‘불까다’, ‘불두덩’, ‘불거웃’, ‘불줄기’처럼 생식에 관련된 신체기관에 사용되는데, 이로 미루어 아마도 종족의 번식을 위한 교접이나 교미, 또는 생식 등을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붙이다’의 의미는 명확하다. 씨돼지로 쓰이는 수 돼지에 암돼지를 교미시키는 것이므로 수컷을 뜻하는 ‘수’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한

것이다. ‘불붙이다’와 달리 품질이 좋은 씨를 주는 수컷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전남의 담양 지역에서 쓰이는 ‘갓붙이다’는 그 어원이 조금 복잡하다. 향토 방언 학자인 오홍일 선생이 펴낸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무안문화원 간행)에는 ‘갓내’, ‘갓쌈’과 같은 낱말이 실려 있다. ‘갓내’란 암컷이 발정기에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냄새, 곧 ‘암내’를 가리키며, ‘갓쌈’이란 한 남자를 두고 여자들끼리(아마도 본처와 첩끼리) 벌이는 싸움을 뜻한다. ‘갓내’와 ‘갓쌈’으로부터 우리는 ‘갓’이 동물의 암컷이나 여자(또는 부인) 등을 가리키는 말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라도말 ‘갓붙이다’의 ‘갓’은 ‘불붙이다’의 ‘불’이나 ‘흘레붙이다’의 ‘흘레’와 달리 단지 암컷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며, 여기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시킴으로써 암컷을 종자가 좋은 수컷에 붙이는(교미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수붙이다’와 방향이 반대인 셈이다.

장산도에서 쓰이는 ‘대붙이다’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한자어 對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 (2.2) 소를 길러 나눠 가지는 방식

농경 시대에 소는 농사일을 돕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집이 소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의 소를 키워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집에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약 2년 정도 키운 뒤,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자신이 갖고 원래의 소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2년 동안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을 정도로 자랐으니 원 주인도 이득을 본 것이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송아지를 갖게 되었으니 소를 빌려 키운 사람도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를 표준어로는 ‘배넛소’라 하는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씨압’이라 한다. ‘씨’는 종자(種子)를 말하는 것이고, ‘압’은 ‘아비’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씨압’은 ‘종자소를 줄 수 있는 부모 소’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한편 송아지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 있다. 가져온 송아지를 약 2년 정도 키우면 송

아지는 어느덧 큰 소로 자랐을 텐데, 이 소를 장애다 팔아서 받은 돈을 주인과 키운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소 값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에 따라 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것이므로, '씨압' 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큰 방식이다. 이를 신안 지역에서는 '바넷소'라 부른다.

표준어 '배넷소'는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하고,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배내'라고 하므로, '배넷소'는 신안의 '씨압'이나 '바넷소'의 두 가지 방식에 다 적용되는 말인 셈이다. 신안의 '바넷소'는 표준어 '배넷소'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어원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바넷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반(半)엿소'에서 온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배내'의 뜻을 갖는 한자어에 '반양(半養)이 있어, '바넷소'를 '반엿소'로 볼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하다.

이처럼 신안의 '씨압'과 '바넷소'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씨압소'와 '갈라먹기'의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씨압소'는 신안의 '씨압'과 같은 경우이고, '갈라먹기'는 신안의 '바넷소'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암소를 키워 송아지를 얻는 방식만을 취하는데, 이를 가리켜 진도에서는 '어시소', 영암에서는 '도깃소', 그리고 보성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배넷소'를 사용한다. 장산도에서는 송아지를 가져와 키워 반반씩 나누는 '바넷소'라는 명칭은 있으나, 큰 소는 주인이 가져가고 기른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가는 '씨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넷소'가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활용 방식

- 섬 지역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무형 문화재로서 방언적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전시한다.

- 언어 문화는 단순히 글로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음성으로 실현될 때에야 제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관에는 이 지역 방언을 드러내는 녹음된 음성 파일을 준비하여 외지인들에게 들려 준다.

- 택호나 소에 관한 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외지인들에게 소개한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택호를 가진 사람이나 택호에 관련된 에피소트를 발굴한다. 또한 소를 교배시키는 과정이나 이에 관련된 일화를 발굴하거나 소를 길러 나누는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지역 문화를 생생하게 외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준

바다맛 기행, 자연과 생태, 2013.

장태진

국어사회학연구, 195-199, 과학사, 1981



# VIII 주거문화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     |
|---------|-----|
| 1. 개요   | 226 |
| 2. 민가조사 | 228 |
| 3. 활용방안 | 240 |



## VIII. 주거문화

### 1. 개요

#### 1) 민가 개요

자은도의 민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륙과 달리 도서는 그 특수한 환경으로 근대화가 더디게 시작됐고 살림집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역 대부분의 민가는 1960, 70년대까지 조선후기의 민가형태를 유지했다. 삶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주거만큼은 전 근대적이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민가에 근대화가 도입된 이른바 근대한옥도 건립이 되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일부 계층 즉, 대지주 등 경제적으로 상류층에서만 지었다.

개략 1980년대부터는 획기적으로 자은도 민가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신축의 경우 목조는 사라지고 주로 벽돌, 시멘트 등을 사용한 내륙의 도시형 주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살림집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다. 원인은 과거 목조집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그들은 목조집이 더 이상 현대적 편의성을 수용할 수 없고 또한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멘트집은 흙과 나무로 된 친환경 목조집과는 정서와 환경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경관 측면에서도 벽돌조 슬라브집은 농어촌의 자연경관에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한편 오래된 기존의 목조집도 지붕개량과 함께 내부를 현대생활에 편리하게 크게 수리했다. 내부에 화장실과 입식부엌을 설치하고 방도 크게 넓혔다. 창호도 옛 목창호를 철거하고 플라스틱 창호로 교체했다. 즉 전혀 새로운 집이 됐다. 최근에 들어서는 80년대 지붕개량의 주 재료였던 스테이트나 골합석이 크게 노후되어 강판으로 새로 교체하는 민가가 크게 늘고 있다.

자은도는 다행히도 필자가 1980년대 후반에 조사한 전통민가 4가옥이 있다. 조사 당시 이 가옥들은 모두 180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민가로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자은도 주거의 한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즉 공간 하나 하나에서 과거 이 지역 주민의 생활사를, 그리고 구조나 재료 측면에서 당시의 살림집 축조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7채의 민가가 조사 되었다.(1989년 조사 4채 포함)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2채의 근대한옥이 있다. 두 한옥은 모두 규모도 크고 거의 건축 당시의 원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 이 지역 근대 주거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조사 일정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조사내용
2014. 06. 27. ~ 06.29	자은도	김지민(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장지영(목포대 건축학과 5학년) 정은지(목포대 건축학과 4학년) 정다운(목포대 건축학과 4학년) 박효관(목포대 건축학과 3학년) 강웅선(목포대 건축학과 3학년)	민가 연혁 민가 실측 민가 현황

## 3) 조사 민가 목록

순서	민가명	위치	건립년도	건물 구성	비고
1	최00 민가	자은면 유각리 228-1	1800년대	안채, 사랑채	훼손(1988년 조사)
2	양00 민가	자은면 구영리	1849년	안채	훼손(1988년 조사)
3	백00 민가	자은면 고장리 606	1800년대	안채	훼손(1988년 조사)
4	이00 민가	자은면 고장리 811	1800년대	안채	훼손(1988년 조사)
5	두모길 13 민가	자은면 송산리 두모길13	일제 강점기	안채, 사랑채	
6	둔장길 44 민가	자은면 한운리 둔장길 44	일제 강점기	안채, 행랑채	
7	송산마을 28-3 민가	자은면 송산리 28-3	1900년대 초	안채	

## 2. 민가조사

### 1) 최00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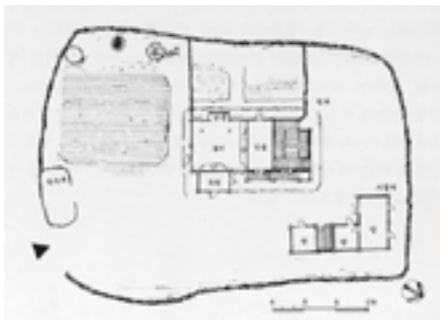
건축년도 : 1800년대 말

유각마을의 좌측면 높은 곳에 북동향으로 위치한 본 가옥은 崔氏 할머니(73才)의 시할아버지 代에 건축한 가옥이라고 한다. 건물로는 申坐寅向으로 앉힌 안채와 그 전면으로 ㄱ字形의 사랑채가 있고, 이 외에 측간 1채가 가옥 門間 좌측 편에 있다. 사랑채는 본래 ㄷ字形 건물로 안채 우측면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인데 약 30년 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이 된 것이다.

안채는 전후와 우측으로 退間을 둔 ㄷ字形 초가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고 정지 앞쪽으로는 1間 모방을 드렸다. 뒷마루는 안방과 마래 전면에 설치하였는데 그 중 우측 退間 쪽에는 뒷주를 시설하였다. 구조는 1高柱5 樑架로서 막돌초석 위에 方柱를 세웠다. 그러나 전면의 退柱만은 직경 12cm의 두리 기둥을 사용하였다. 벽면은 심벽구조의 흙벽이다. 안방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 천장으로 현재 종이로 마감되어 있다.

사랑채는 ㄱ字形의 초가로 평면구성은 안채와 마주보고 있는 긴 부분에는 창고와 뒷주를 배치하고 짧은 부분에는 2間방을 꾸몄다. 구조는 3樑 형식의 민도리집이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민가 배치도



안채 전경

## 2) 양00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건축년도 : 1849년

부속건물 없이 안채만이 壬坐丙向으로 배치된 가옥이다. 대지 경역은 강담으로 둘러져 있고 안채 후면과 전면 오른쪽으로는 넓은 삼밭이 조성되어 있다. 건축연대는 상량문에 “道光參拾年己酉· . . . .”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道光參拾年(1850)과 己酉(1849)라는 干支의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가 1980년대 신안도서지역의 민가 조사 시 많은 민가에서 ‘道光’(1821~1850)이란 중국 연호의 상량문을 볼 수 있었다. 여하간 이 집은 19세기 중엽에 지어진 140여년 된 가옥이다.

평면구성은 정지 앞으로 모방을 드리고 정지 옆으로는 차례로 안방과 우물마루를 깔 마래를 배치한 이 지역의 일반적인 평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방과 정지 측면으로는 외양간과 정지방이 증축되어 있고 마래 옆으로도 최근에 흙벽돌로 헛간을 꾸몄다. 뒷마루는 전면 退間에 시설하였다. 마래는 後退를 포함한 2間 규모로 비교적 크다. 그 중 전면 退間 한쪽 부분에는 알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뒤주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전후로 退間을 둔 2高柱5樑架로서 막돌초석위에 方柱를 세우고 납도리를 걸었다. 그러나 안방 전면 退柱만은 직경 18cm의 두리기둥을 썼고 또한 전면 처마도리를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지붕은 초가지붕이며 백체는 흙벽으로 꾸몄다. 안방의 전면 피살문 옆으로는 이 지방의 민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봉창이 설치되어 있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민가 배치도



안채 전경

### 3) 백00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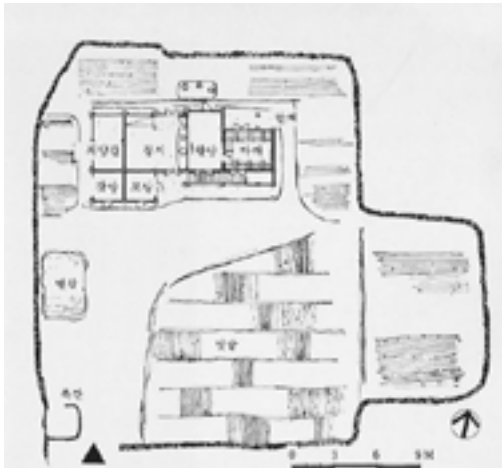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606(고장마을)

건립년도 : 1800년대 말

白氏(女 60才)의 曾祖父께서 건축했다는 약 100年 정도 된 가옥으로 현재 넓은 대지위에 안채만이 壬坐丙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지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출입구는 역시 大門間이나 어떠한 장치물 없이 자연스럽게 전면 좌측 편에 나있다. 이 지역 전통민가의 출입구는 대부분이 大門間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2~3m 정도 폭으로 마을길과 이어져 개방된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많은 민가에서는 측간채의 측면을 끼고 집안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안채는 전후와 머리 측으로 退를 둔 정면 6間 규모의 초가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외양간,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며져 있다. 한편 외양간과 정지 앞쪽으로는 본채에서 약간 돌출시킨 갓방과 모방이 나란히 드러져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침실이

####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민가 배치도

이 3개가 된다. 침실 3개설치는 신안도서지역 민가의 안채에서 최고로 방을 많이 드린 것으로 그 이상의 민가는 볼 수 없다. 안방과 마래 안쪽의 退에는 툃마루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끝으로는 뒤주(고방)를 설치하였다. 마래는 後退까지 넓혀져 있지 않고 그 부분은 土方으로 처리하였다. 본 가옥에서는 이 부분을 「진광」이라고 한다.

구조는 2高柱5樑架 형식으로 호박돌 초석위에 14x14cm 크기

의 方柱를 세웠다. 창호 구성은 띠살과 판장문(정지와 마래전·후문), 그리고 대나무로 살을 짠 죽살문(정지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셋문과 안방 뒷문, 모방 측문) 이 쓰였다.

#### 4) 이 ∞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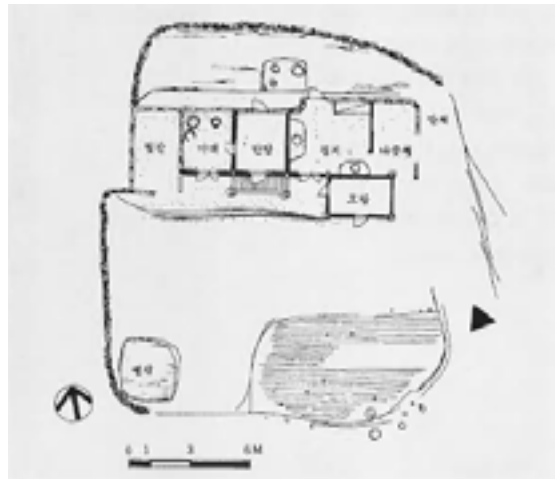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811(외기마을)

건축년도 : 1800년대 말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외기 마을(1988년 현재 56호로 구성)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이라고만 마을 노인들이 전한다.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옥은 현재 안채만이 癸坐丁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헛간, 마래, 안방, 정지 그리고 나뭇청 순으로 되어 있고 정지 앞으로는 모방을 드렸다. 여기에서 헛간은 최근에 죽담구조로 증축된 것이며 모방과 나뭇청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후에 새로 드러진 것으로 여겨진다. 退間은 전면에만 두었는데 안방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시설하고 마래부분에는 土房으로 처리하였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민가 배치도

구조는 前退를 둔 4樑형식이나 뒷면은 기둥 없이 죽담구조가 아닌 土壁으로만 처리하였다. 이렇게 순수한 흙벽구조는 이 지역 민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이다. 기단도 土壇으로서 이 구조 역시 이 지역 민가에서 간혹 보이는 형식이다. 본 가옥과 이웃한 이씨의 초가도 土壇이다.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기둥은 方柱를 사용하였고 처마도리는 전면 중앙 칸만 납도리이고 나머지는 거칠게 다듬어진 자연 그대로의 원목을 걸었다.

본 가옥은 마래의 흙바닥구조, 곳곳에 竹窓설치, 토벽 등 구조면에서 열악하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반 서민의 가옥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5) 두모길 13번지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두모길 13

건립년도 : 일제 강점기

두모마을 서쪽 편에 야산을 등지고 평탄한 지형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건립은 일제강점기 중반쯤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주는 당시 이 마을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본 가옥의 건립 또한 그러한 경제적 받침에서 비롯됐다.

본 건물은 본래 있었던 작은 초가를 헐고 같은 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다.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 2동이 있다. 두 건물 모두 같은 양식으로 건립됐고 규모도 크며 세부 장식 등도 우수한 편이다. 배치는 ‘ㄱ’ 자형 배치이며 마당에는 정원수가 심겨져 있다.

안채는 정면 8칸(좌우 반 칸 퇴 포함), 측면 3칸(전면 반칸 퇴 포함)의 비교적 규모가 큰 ‘ㄱ’ 자형 주택이다. 평면은 중앙 칸의 안방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장마루가 깔린 대청이 있고 우측으로는 주방과 작은방이 있다.

전면 반 칸 퇴는 복도식으로 뒷마루가 있고 그 전면으로는 유리가 끼워진 4짝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다. 초석은 높이 210mm의 마름모 사각뿔형이다. 기둥은 120x120mm 크기의 각주를 사용했고 높이는 2,420mm(퇴주)와 2,880mm(안기둥)이다. 전면 주심도리는 120x180mm 크기의 납도리이며 그 아래로 75x1,110mm의 장혀를 댔다.



민가 배치도

사랑채도 ‘ㄷ’ 자형 으로 규모는 정면4칸, 측면 3칸 (전후 반칸 퇴 포함)이다. 현재 후면으로는 넓게 조적조로 증축이 되어 주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 구성은 중앙 2칸이 방(침실)이고 그 좌우로 대청과 주방이 있다. 전면 툇마루 앞에는 안채와 같이 미서기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다. 기와는 두 건물 모두 일본식 기와이며 제작은 전남 나주에서 했다고 한다.



안채 평면도



사랑채 평면도

두 건물은 모두 일종의 근대풍 민가로 이 지역 전통민가의 구조 및 형식 등과는 큰 차이가 난다. 신안 도서지역 근대민가 연구의 좋은 현장이 되고 있다. 현재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민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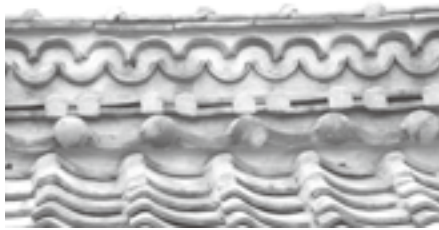
안채 전경



사랑채



안채 전면 기둥상부



안채 용마루 기와



안채 퇴간



안채 대청과 안방사이 창호



안채 대청

## 6) 둔장길 44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둔장길 44

건립연도 : 일제 강점기

둔장마을에 남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민가로 건립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일제강점기 정도로 추정되는 가옥이다. 현재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다. 건물은 “—”자형 목조인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이외 마당 전면과 후면 등에 조적조로 건립된 창고와 헛간 등이 있다. 안채는 정면 6칸(우측 반 칸 퇴 포함), 측면 3칸(전면 반 칸 퇴 포함) 규모의 겹집형 팔작집이다. 평면은 부엌이 좌측 후면에 있고 그 전면과 중앙으로는 온돌방이 드러져 있다. 우측 끝 1칸은 상하로 분리된 마루방이 있는데 후면 방은 곡식 등을 보관하는 일종의 ‘마래’ 방 역할을 한다. 우측 반 칸 퇴도 마루방과 연결된 일종의 고방 기능을 하고 있다. 전면 퇴는 모두 뿔마루가 놓여 있으나 우측 퇴 앞으로만은 별도의 ‘뒤주’를 마련했다.

기둥은 120x120mm의 각주를 사용했고 높이는 2,500mm(전면 퇴)와 3,100mm(안기둥)이다. 도리는 110x110mm 납도리이며 도리 밑 장혀 크기는 70x120mm이다. 서까래는 직경 90mm로 간격은 400mm, 내밀기는 1,100mm이다.

이 건물은 평면 형식과 목구조 등이 지역 전통 민가와 그 모습이 크게 다른 일종의 근대 한옥이다. 규모도 크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자은면에 얼마 없는 근대기 한옥으로서 향후 적절한 보존대책이 요구되는 가옥이다.



민가 배치도



안채 평면도



사랑채



안채



안채 퇴간 (툃마루)



안방 후면 출입구



안채 마래



안채 마래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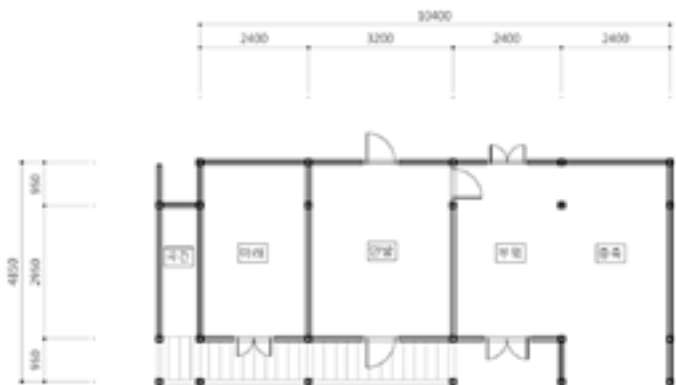
## 7) 송산마을 28-3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283-3 (송산마을)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송산마을 중앙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만이 있고 약 10년 전부터 거주자 없이 비어있고 이웃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 전면의 넓은 마당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송산마을에서 제일 고가로 알려져 있으며 건립연도는 19세기 말 내지는 20세기 초 즈음으로 추정된다.

우진각 초가지붕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된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전후 퇴 반 칸 포함)의 작은 규모의 가옥이다. 면적은 48.1 평방미터(14.6평)이다. 부엌 측면 1칸은 1990년대 초에 과거 본체에 부속으로 딸렸던 헛간을 부엌으로 확장(증축 개념)한 곳이다. 평면구성은 마래, 안방, 부엌으로 구성된 이 지역 3칸 민가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신안 도서지역 민가 구조에서 아무리 작은 3실형도 마래만큼은 반드시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마래 옆으로 반 칸 규모의 측면 퇴를 두어 곡간을 설치했는데 이러한 형식은 다른 3칸 민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전면 퇴기둥 크기는 110X110mm 이며 높이는 2,400mm이다. 안방 전·후면 출입문 폭은 640mm, 마래는 760mm로 매우 좁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부엌 전면

### 3. 활용방안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다양한 유무형의 전통요소가 깃들여 있다. 즉 민가에는 한시대의 총체적 문화가 담겨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민가는 특별한 보존 마을에 있는 문화재 민가를 제외하고는 놓어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은도나 장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화 이후 전통민가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민가를 일상의 살림질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1) 개별 전통민가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 3~5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찾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특히 자은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도서관광의 명소로 그 지명도가 다른 도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민가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1차적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민가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끔 한다.

## 2) 집단 전통민가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 3) 문화재 지정

전통민가는 민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때문에 개인이 살림집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 전통민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다. 즉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가치가 있는 민가로는 다음과 같이 2가옥이 있다.

### ① 자은면 두모길 13민가

### ② 자은면 둔장길 44민가

위 두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대풍의 민가다. 비교적 규모도 크며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소위 ‘근대한옥’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민가는 이 지역 전통민가와 평면 및 양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 IX

## 관광자원화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 |                             |     |
|-----------------------------|-----|
| 1. 자은도의 자연과 역사              | 245 |
| 2. '해수욕장의 섬', 자은도           | 249 |
| 3. 자은도의 명품 길 :<br>해님이길과 등산로 | 254 |
| 4. 스토리텔링 -<br>자은도의 설화       | 256 |

## IX. 관광자원화

자은면의 관광자원-생태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자은도, 은빛 모래사장이 아름다운 자애롭고 은혜로운 섬”

〈사진 1〉 두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성제봉과 두모마을



## 1. 자은도의 자연과 역사

### 1) 다채로운 자연생태

자은도는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28.5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52.71km<sup>2</sup>, 해안선 길이가 80.8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큰 섬이다. 자은면은 유인도 1개(자은도)와 무인도 43개로 되어 있다. 자은도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을 띠고 있어, 섬 동쪽은 두봉산, 두모산, 꽃갈봉, 송곳산 등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저평한 농경지가 펼쳐진다. 동쪽 해안은 육지도를 중심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고, 서쪽은 사구와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으며, 북쪽은 갯바위와 혼합 갯벌이 발달해 있어,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을 자랑한다.

특히 두봉산(363.8m)은 가거도 독실산(639m)에 이어 신안군에서 두 번째 높은 산으로서 신안 다도해의 비경을 관망할 수 있는 섬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 2) 연면히 이어온 역사문화

자은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청동기시대부터였다. 청동기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4개소 19기가 확인되었고,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지표유적인 옹관고분도 확인되었다. 이는 자은도 사람들이 청동기시대 이래 고대시대까지 영산강유역과 문물 교류를 진행하면서 사회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2〉 고장리 지석묘

한편 자은도에서 도기요지가 3개소 확인되었는데, 신안 도서지역에서 발견된 도기요지가 총 4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자은도 역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운리 분묘군도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구영리 두모산 정상부에 조성한 ‘구영산성’과 유천마을 마장산 일대에서 흔적이 찾아지는 자은목장지 등이다. ‘구영(舊營)’이란 지명은 ‘옛 군영’이라는 의미로서 이곳에 조선시대 수군영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영산성은 그 수군영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관방시설이었고, 구영리 장대석우물은 수군영에서 사용한 우물이었다.



〈사진 3〉 구영산성석축



〈사진 4〉 구영리 장대석우물

자은도에는 20개소의 방조제(국가관리 1, 도관리 5, 군관리 14)가 있듯이 자은도 사람들은 일찍이 갯벌을 간척해서 너른 농경지를 확보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자은도 소작쟁의(1925~1926)는 간척 농경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 폭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진 5〉 한운리들

한편 한운리 뒷산 7부 능선에는 27개의 콘크리트 토굴이 발견되었다. 이는 일제가 1940년대에 일본군의 서해 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방어와 예비 보급창고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토굴 굴착을 위해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자은도에 상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자은도 용소 주변에 ‘일본해군용지(日本海軍用地)’라 새겨진 경계석 3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은도에는 일본 해군도 상주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6〉 한운리 뒷산 토굴



〈사진 7〉 토굴조사



〈사진 8〉 한운리 뒷산에서 내려본 해변

## 2. '해수욕장의 섬', 자은도

자은도는 모래사장이 발달하여 신안군에서 해수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가장 풍부한 섬이다. 그중 둔장해수욕장, 분계해수욕장, 백길해수욕장이 자은도 3대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밖에 면전해수욕장, 신성해수욕장, 양산해수욕장, 내치해수욕장, 외기해수욕장, 신돌해수욕장 등도 활용 가능하다. 여기서는 3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본다.

### 1) 둔장해수욕장(한운리 둔장마을)

#### ■ 현황

자은도에서 가장 넓은 해수욕장이다.(2.8km) 모래와 갯벌이 공존하여 대합 등 어패류가 풍부하다. 앞에 떠있는 자그마한 할미섬과 두리도가 연출하는 바다의 경관은 절경이다. 할미섬과 해변을 이어 조성한 독살의 면적은 약 10만km<sup>2</sup>에 달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썰물 때 독살에서 숭어 등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고, 갯바위 틈에서 소라, 고동 등을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둔장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 다양한 어촌체험을 실시한다. 특히 곰솔 방풍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체육공원(축구장 등)과 해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숙소도 빌라형 3채, 텐트형 20여 채가 구비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사진 9〉 둔장해변 전경



〈사진 10〉 둔장독살



〈사진 11〉 둔장해변의 아름다운 갯벌무늬

### ■ 활용방안

자은도 최대의 해수욕장으로서 최대 규모의 독살도 있고, 자은도 ‘해님이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명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래와 갯벌이 혼재되어 있어 해수욕장으로는 적합도가 떨어지므로, 해수욕보다는 어촌체험과 해변레저의 공간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둔장어촌체험마을’의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미 조성된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을 보강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는 해변레저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해양절경-어촌체험-해변레저-해님이길 일몰’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을 둔장해수욕장의 매력 포인트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 2) 백길해수욕장(백길리)

### ■ 현황

자은면 최고의 해수욕장 입지를 갖추고 있다. 양질의 고운 모래가 1.8km의 백사장에 펼쳐져 있고, 바닷물도 깨끗하고 바다 경관도 절경이다. 주변에 곰솔 숲이 울창하여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야영하기에 적합하다. 썰물 때면 백사장이 70m 정도의 너비로 늘어나고, 경사도 완만하고 수심도 얇아서 해수욕장 입지로는 안성맞춤이다.



〈사진 12〉 백길해변 곰솔숲



〈사진 13〉 백길해수욕장 전경

■ 활용방안

가족단위의 명품 해수욕장으로 특화·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최상급의 샤워장과 파라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보장하며, 물놀이 도구 대여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섬 해수욕장으로 발전시킬 매력 포인트가 존재한다.

### 3) 분계해수욕장(백산리)

■ 현황

응암산과 우각도가 감싸고 있는 반월형의 모래사장(1.0km)을 형성하고 있다. 건너편에 철새서식지로 유명한 칠발도가 바다에 보이는 바다 경관은 최고의 절경을 연출한다. 배후에 조성된 방풍림은 거목 곱솔과 팽나무가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부문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수려하다. 특히 각선미가 뛰어난 여인이 물구나무로 서있는 듯한 형상의 ‘여인송’은 이 숲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일명 ‘여인송숲’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진 14-1〉 분계앞바다 전경



〈사진 14-2〉 분계해변 명품숲



〈사진 14-3〉 여인송



〈사진 14-4〉 분계해수욕장 사구유실현상

#### ■ 활용방안

분계해수욕장은 배후의 ‘명품 숲’이 중심을 이루는 해변으로 특화·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수림생태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다. 이와 함께 인근에 있는 용소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하다. ‘명품 숲’이 중심을 이루더라도 모래사장의 상태가 최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래유실이 심하게 일어나 해수욕장의 입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구 쪽에 조성한 석축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할 뿐 아직 원인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숲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백사장의 모래유실을 막지 못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3. 자은도의 명품 길 : 해님이길과 등산로

#### 1) 해님이길

##### ■ 현황

자은도 해님이길은 ‘송산-한운-둔장-두모’를 연결하는 12km의 해안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 28일 자은도 해님이길을 새로운 ‘대한민국 해안누리길’로 지정하고 7월 17일 걷기 대회를 가졌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 언론인,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 걷기 대회는 해님이길을 명소로 공표하는 행사였다.

‘대한민국 해안누리길’이란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걷기 여행에 좋은 해안길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선정하는 길이다. 자은도 해님이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등이 있고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으며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되어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활용방안

해님이길은 대한민국 대표 ‘해안누리길’ 5선에 선정될 정도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해안누리길’ 지정 당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언론의 깜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명소로 안착하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느낌이다. 차후 신안군 차원에서 해님이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은도 알리기를 병행한다면 많은 명소를 보유한 자은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섬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자은도를 알리는 적합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두봉산 등산길

### ■ 현황

두봉산은 온통 암석산이다. 중생대 백악기 말기(약 6천 5백만년전)에 마그마가 암석층을 뚫고 들어와 형성된 화강암 덩어리다. 높이가 해발 363.8m에 달해 100~200m 정도의 산들로 이루어진 주변 다이아몬드군도(비금·도초·암태·팔금·안좌·중도 등)의 올망졸망한 다도해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다. 등산로는 ①도명사-정상-구영저수지, ②유천리-천혜방-정상-형제봉-자은초교의 두 코스로 나누어진다.

### ■ 활용방안

두봉산은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안전장치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서 등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여기에 두봉산의 생태지식과 자은도의 역사문화적 식견을 제공할 수 있다면 두봉산은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닌 생태문화의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다. 두봉산의 암석과 식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두봉산의 전설로부터 자은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들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등산 코스 중에 있는 ‘천혜방’을 두봉산의 상징 장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진 15〉 두봉산 등산길

## 4. 스토리텔링-자은도의 설화

### 1) 우아한 이름 ‘자은도’와 천혜방(天惠房) – 두사충(일명 두사춘) 설화

자은도(慈恩島)는 ‘자애롭고 은혜로운 섬’이라는 뜻이다. 섬 이름 치고는 우아하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의 섬 이름을 모두 열거해보아도 이보다 더 우아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섬 이름과 관련하여 무언가 사연이 있을 성 싶다. 두사충(일명 두사춘, 杜師忠, 杜思忠, 斗四春, 杜四春) 설화는 자은도 이름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답을 준다. 설화의 대강은 이러하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휘하로 임진왜란의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반역죄로 몰려 막하에서 탈출하여 표류하다가 이 섬에 표착한다. 처음에 그는 두봉산에 있는 굴에 은신해 있다가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안착하게 된다. 그는 은신해 있던 동굴을 천혜방이라 명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섬 주민들의 인정에 감격하여 섬 이름을 자은도라 지어준다. 마을 이름도 지어준다. 부락의 형상과 산세가 구름이 하늘에 뜬 것처럼 아름답다 하여 한운(閑雲)라 명명하고, 큰 밤덩어리 같은 산이 셋이 있다 하여 대율(大栗)이라 명명했다 한다.」

두사충(일명 두사춘) 설화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 누군가가 섬 이름을 자은도라 명명하고 주위의 섬 이름과 특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고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두사충(일명 두사춘)의 설화는 자은도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파다하게 퍼져 있다. 전승의 시간이 길고 많은 이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왔다면, 그 전승은 자은도 주민들에게 나름의 역사성을 갖게 된다. 두사충(일명 두사춘)의 설화는 선조가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래서 남달리 우아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자은도 주민들에게 제공해온 역사적 원천이 되어왔던 것이다. 여기에 두사충(일명 두사춘) 설화가 갖은 역사성과 의의가 있다.

### 2) 자은도의 자부심 – 두봉산 설화

두봉산 설화의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천지개벽하는 때에 모든 섬이 다 물에 잠겼는데, 자은도의 두봉산(斗鳳山)은 말(斗) 만큼 수면 위에 솟아 있었고, 암태도의 승봉산(升鳳山)은 되(升) 만큼 솟아 있었으며, 임자도의 함박산(函朴山)은 술잔(函) 만큼 솟아 있었다는 것이다.」

두봉산 설화는 자은도 주민들이 가장 높은 산을 가진 것을 내세워 주위의 섬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삼았을 터이다. 결국 두봉산 설화는 두사춘(일명 두사춘) 설화와 함께 자은도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을 제공하는 원천인 셈이다.

### 3) 용이 승천한 마르지 않는 생태 연못 - 용소 설화

자은도 분계해수욕장 인근의 백산리에 용소라는 연못이 있다. 용소에는 용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용소에는 승천을 앞둔 한 쌍의 용이 살았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모래가 밀려와 용소가 점점 메워져 가자 암룡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숫룡을 졸랐다. 숫룡은 곧 승천할거니 조금만 참자고 설득했지만, 암룡은 이를 거부하고 이웃 섬 비금도 용소로 떠나버렸다. 마침내 숫룡은 꼬리를 쳐서 승천하면서 용소의 물이 지하에서 솟도록 하였다. 그래서 자은도 용소는 지금도 물이 솟아나 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



〈사진 16〉 '대일본해군용지' 표시석

용소는 넓이가 약 1만여평에 달하고 수심이 깊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자연 연못이다. 분계해수욕장에 인접해 있고 주위에 하얀 모래산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용소는 주민들에게 신비스런 일로 비쳐졌을 것이다. 결국 용소 설화는 섬에서 이례적으로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존재한다는 신비성이 유난히 모래사장이 발달한 자은도의 생태적 환경현상과 만나 만들어진 설화인 셈이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자은도에 일본 해군이 상주하고, 용소 주위를 ‘일본해군용지’로 지목한 것도 마르지 않는 용소의 물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용소의 설화는 일본 해군의 자은도 상주라는 역사적 사건에도 은밀하게 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7〉 백산리 용소 전경



# 부 록

- |                    |     |
|--------------------|-----|
| 1. 자은면 신문기사 자료     | 262 |
| 2. 자은면 구비문학 자료(설화) | 286 |

## 부 록

### 1. 자은면 신문기사 자료

1924. 5. 16.

岩泰爭議 擴大

警官은 地主만 擁護

소작인은 강경히 대항하는 중이오

다주는 락중한 모자리를 갈어엿혀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와 동디 문디주(文地主)와 충돌되야 서로 쟁투하는중 동면인민이 문디주의 비석(碑石)을 빼어버림으로 문디주는 더욱 분토하야 목포(木浦)경찰서에 무고한 집과 소작회간부 십삼인을 구류케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그자세한 보도를 들은 즉 문재털(文在喆)이는 자기부친 문태현(文泰炫)이 기소작인에게 구타를 당하야 죽게되얏다는 말로 목포경찰서에

무고하여 무장경관이십여명이 출장하였는데 전기 문태현은 자기의 아들이 경찰서에 무고한 사실을 몰로 경관을 환영하라고나옴으로 경관과 기타가는 문재털은 자기부친이 나옴을 보고 경관에게 무고함이 탄로될까 녀려하여 배에 나리는길로 즉시 사용인 장운재(姜允載)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부친에게 머리를 동이고 고통하는테하라고 단속하여놋코 녀려업시 들어간즉 문태현은 반가운기운에 이기지못하여 출문환영하는고로 문재털이가 붓그럽고 분하야 자기의 부친이 배히고잇는 퇴침으로 장자(障子)를 후려쳐서 퇴침도 부셔지고 장자도 상하였스며 그후 장운재를 비밀히 시켜서 장자를 더 부스라고하여놋코 경관에게 말하기를 소작인들이 부스것이라고하는등 자은순사(慈恩巡査)의 도사에 폭로된사실과 나중예 환자를 진단내인일과 멀췌한살에 빅로지를 붓치고 항하였다고하는등이 (현장에서 발각되야 경관도 췌췌우스것)각종의 음모로 활동한집과 싸린디주편은 죄가적고 마진소작간부는 죄가잇다하야 련속검거하야 서태석(徐邵皙)와 십이인을 검거하였는데 소작인으로 데일중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험한 박종남(朴宗南)은 문디주를 살인미수(殺人未遂)로 고소하였는데 목포경찰서에서는 그 고소장을 문디주에게 경유한후 암태순사에게 보내여 볼수리케하여버리는등 그와ㄹ튼 경관의 압박과 디주의 무리로 소작인은 무한한 고통을 받는중이던바 문디주는 암태면 민을 위협하여서 안이 췌인 비석을 췌엿다는 서류에 비밀히 도장을 바다다가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소작회에 가서 문디주의 협박에 못이긔여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낫낫치 설명하고 변명서를하야 노히슴으로 문은 할수업시 줌디하였스며 경관들은 각디주를 보고 소작료(小作料)를 작명한대로 록봉하라고 충동을 하고 단인것이 발각되야 서로 구슈가티보며 절대행동을하딘중 근일에는 각디주가 소(牛)와 췌기(霧具)를 가지고 이십여명식 작당하야 단이면서 작년소작료를 디주가 작명하는대로 주지안이하면 락종한 모자리(秧坂)를 갈어버린다함으로 일반소작인들은 더욱 맹렬한 주장으로 사할로 하기전에 논 한되를 주지안이하기로 불납동맹(不納同盟)을 날날이 선던한다는데 문디주가 협박하는 증거로 말하면 지나간 일일경에 문태현의 가족십여명과 고용인 십여명이 소와 장기를 가지고 동면오리동(五里洞)에서서 박용현(朴用玄)이란 소작인에게 엉터리업는 소작료를 내라함으로 박용현은 귀가막혀 안졌는데 그 고용인들이 소를 몰고 락종한 모자리로 들어감을보고 겁이나서 가옥문서를 췌서췌엿다함들은 소작인간부는 급히가서 그무리협박함을 말한즉 문디주의 일파는 오히려 양심이 잇던지 집무서를 도로 내여췌고 도망하였는데 이러한 디주의 폭행과 소작인의 대항은 점점 격렬하야 암태소작쟁의는 날로 확대되야가는 터이라더라. (전남특파원) **[조선일보]**

1925. 1. 1.

南一社長橫暴로 各青年團體奮起

네단체가 결속하여 항의제출

남일운수주식회사(南一運輸株式會社)에서 개업당시에 암태취급점(岩泰取扱店)을 암태청년회(岩泰青年會)에 맞기었으므로 청년회에서는 박리다매함을 불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모아 교육비에 보충할까하야 빈한한회에서 거액을드러 종선(船)까신제하야 취급을하야 나오든중 귀회사장문재철(文在喆)은 단순히 암태소작인회에 대한 감정으로 자기의 사임간사인들을 모아 교육협회(教育協會)라는 간판을부치어 이취급점을 경영케하고서 암태청년회로 돌연히 해약통지(解約通知)를 발하얏습으므로 청년회에서는 이무리한 행위에 복종치안코 지금것투쟁해나온다함은 루보하얏거니와 문재철의 흉악한행위와 회사의 전횡무쌍한 행동에 목도하야 본 각사상단체에서는 크게 분개하야 자은청년회(慈恩青年會) 비금청년회(飛禽青年會) 도초청년회(都草青年會) 목포무산청년회(木浦無産青年會) 사개단체가 오는 이십구일에 해회사에 대하여 질문을 개시하기로 각대표자가 목포에 나왔다는 소식을듯고 회사에서는 이십팔일에 미리 경관과 각신문기자를 초대하야 다과회를 열고 사장 문재철은 사건의 경과를 말하며 자기의 주장은 여전히 고집하고 이문제는 사회에 공개하겠스니 내일단판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얏다고한다. [시대일보]

1925. 12. 29.

「搾取에 忞假差押은 斷不容貸」

木浦慈恩面 小作農民의 憤怒

괴어히 地主의 差押을 解題케해

數百群衆執達吏를 包圍

전남무안군자은면(全南務安郡慈恩面) 소작농민(小作農民)과 가차압(假差押)하러간 집달리(執達吏)사이에 분쟁이 생기어 일시 험악한상태에 빠졌다는데 그리유를 들건대 자은면 소작회는 언제든지 괴회규(會規)에 돈에대하여는 사할제(四割制)를 주장하든바 금년에도 사할문제로 지주측과의 승강이 실사이가업시 교섭하여야오든 한편으로 소작농민들은 말성된 지주의 소작료는 지정한 장소에 수합하여야두고 지주들에게 수봉하여 가라는 통지를하여도 아모 소식이업다가 지난이십사일에는 돌연히 지주 문재철(文在喆) 중도청태랑(中島淸太郎) 천후빈(千后彬) 삼인의 백여건의 가차압으로써 집달리인인과 다도농담회(多島農談會) 간사 삼인이 이대(二隊)로 난호와 일대는 동면동부(東部)로 일대는 동면서부(西部)로 새벽부터 오후세시까지 칠팔곳이나 차압을 하였는데 이소문을들은 소작농민들은 크게 분개하여 불괴이히로 사면으로 모아든 수백의 군중은 기분이 극도로 긴장하여 「인혈(人血)에 목이마른 악마의종자를 구제하라 우리의 고혈을여지업시 착취하고 쏘부족하여 가산까지 터러가라하는 횡폭무도한 행위는용서할수업다」하며 집달리와 농담회간사를 포위하고 차압해제를 요구하며 집행을 방지하였다는데 집달리들은 형세가형세임으로 차압을 전부 해제하고 금후로는 다시집행을 아니하겠다고 돌아갔다하며 소작농민은 그이튿날 오전구시경에 긴급총회를 열고 선후책을 강구하였다는바 이일이 여하히 전개될는지 일반은 주목한다고 한다.

#### [시대일보]

1926. 1. 3.

全南 務安郡에 又復小作爭議勃發

문제의 디주 문재철, 중도, 천털호등이 소작료를 강제로 집행하려다가 큰 소동  
木浦署에서 景觀十七名을 現場에 急派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全南 務安郡 慈恩面)에서는 목포지방법원(木浦地方法院) 집달리와 동면면민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아직 까지도 종식이 되지 안혔다는데 그사실은 동면 소작인회에서 작년 사월부터 사할제(四割制)를 승인치안는 디주에게는 소작회에서 이를 한 번 감명하여 수봉하였다가 그디주가 승낙하는 세에 지불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디주중에 문재털(文在詰) 중도청태랑(中島淸太郎) 천털호(千喆鎬) 등은 쫓까지 승인치안코 농담회(農談會)에 의뢰하여 소작료를 룡할 내지 팔할을 감명하야 덤허노코 이를 집행하라고 지난달 이십사일에 집달리 두명과 다도농담회(多島農談會)고원 세명이 두대로 논하서 일대는 동부(東部)로 일대는 서부(西部)로 백여건의 차압을 단행하라고 착착진행중에 잇슴으로 농민들은 이소문을 듯고 이백여명의 군중이 집달리와 농담회고인들을 포위하고 요구하기를 「우리소작들은 디주와의 알룩을 업새기 위하여 미리부터 소작료를 수합하여 노흔 것을 일언반사도 업시 차압한 것을 해제하라」 하엿슴으로 집달리들은 군중의 압력에 엇질 수가 업시 차압하여 둔 표지를 자기들의 손으로 해제하고 곳 목포로 도라가서 고발수속을 하는 중이며농담회고인 세명은 이백여명의 군중이 자은진(慈恩津)까지 대려다가 암태면(岩泰面)으로 보내엿다는데 이급보를 접한 목포경찰서(木浦署)에서는 경찰관 다섯명이 사실을 조사키 위하여 동월이십오일 동면에 드리오는 것을 미리부터 탐지한 오백여명의 군중은 쫓다시 모혀서 다섯명의 경관을 포위하고 자유를 용서하지안흔 까닭에 목포서에서는 이십칠일에 십칠명의 경관을 경비선에 태여서 현장에 출동케하야 방금까지 동명은 혼란한 상태에 잇다더라 **[조선일보]**

1926. 1. 4.

務安小作爭議에 二百警官急行

무안군 자은면 소작쟁의에 목포에서 백팔십여명급파

전남 무안군 자은면(務安郡 慈恩面) 소작쟁의에 대하여 그현장으로 삼일아츨 목포(木浦)경찰서로부터 빅팔십명의 경관이 경비선으로 출동하엿더라.

(목포지국특던) **[동아일보]**

1926. 1. 5.

殺氣彌滿한 慈恩面一帶!

세디주의 무리로 이리난 군중 백여경관이 출동하야 진무중

人心은 자못 戰戰兢兢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全羅南道 務安郡 慈恩面)에 일어난 소작쟁의(小作爭議)로 인하여 법원(法源) 집달리(執達吏)와 및 진상도사로 출동한 경관 오명까지 오백여명 군중에게 포위르 당하고 그자유를 일헛다하는 보도를 접한 목포(木浦)경찰서로부터 열일곱명의 경관대가다시 급거 출동하엿다함은 본지에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에도 문데의 디주(地主) 문재털(文在喆) 중도청태랑(中島清太郎) 천털호(千喆鎬)등은 소작인들의 가산을 차압하고자 함으로이에 한층 격앙한 소작군들은 적극덕으로 그요구에 대항코자 괴세를 더한 결과 자은면 일대는 실로 살기가 넘치는 수라향이 되고 말며 그혼란함이 극도에 이르게 되였는바 이보도에 접한 전남 경찰부(警察部)에서는 돌연 담양(潭陽) 장성(長城) 라주(羅州) 광주(光州)등 각경찰서로부터 경관백여명을 증발하는 일변 다른 관하 각경찰서로부터도 다수한 경관을 비상소집하야 총수일백팔십명의 경관대를 조직한후 삼일새벽 다섯시에 목포경찰서를 썩나 경비선(警備船)으로써 현장에 급행시키엿다더라. (목포지국던보) [조선일보]

1926. 1. 7.

全島를 包圍하고 二十餘名 檢擧

량도교통까지 두절식혔다

務安慈恩島의 小作爭議와 出動한 二百餘警官隊

전남 목포(木浦)에 사는 디주문재털(文在喆) 천털호(千哲鎬) 일본인 중도청태랑(中島清太郎)등이 바들 소작료에 대하여 강제차압을 하고져 전남 무안군 자은도(務安郡

慈恩島)에 드리갓든 집달리들에게 그 섬에 사는 소작농민 수백명이 모히여 차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하여 목포경찰서에서 서당이하 이백칠십명의 경관이 모다 무장을 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그 무장경관들은 지난 삼일 오전 열시경에 경비선 금강환(金剛丸)에 발동기를 달아가지고 전과 자은도 남강포(南江浦)라는 곳에 급행하여 자은도 전면을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무안군 자은 소작인회(慈恩小作人會)간부 이십여명을 검거하는 한편으로 자은도(慈恩島)와 암태(岩泰)사이에 교통을 차단시키는 등 동도주민으로하여곰 씹작을 못하게 함으로 그 섬안의 일반인심은 극도로 불안과 공포중에 싸히어 잇다더라.(목포) [동아일보]

1926. 1. 8.

水火不通의 務安慈恩面 檢舉負傷八十餘名

경관대와 농민충돌로 농민 사십명은 중경상을 당하고 사십명은 검거되어  
小作爭議에 交通遮斷!

전남 무안군 자은면(全南務安郡慈恩面)소작농민이 지주 문재철(文在喆) 중도횡태랑(中島橫太郎) 천철호(千哲鎬) 삼인의 가차압으로 집달리와 큰 분쟁이 생김에 대하여 목포경찰서에서 무장경관대까지 출동하였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 삼일 오후 한시경에 무장경관 일백오십명은 경비선(警備船) 두척과 발동기선 해남환(海南丸)에 난화타고자 자은면 남진(南津)에 도착하여 본부는 남진에 두고 경관 육삼대로 난호야 문제인물을 체포하기에 착수하였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일천사오백명의 소작농민들은 구영리(舊營里) 소작회사무소에 비상소집이 되어 그날밤 팔시경에 군중과 경관대가 일대 충돌이 되어 농민측으로 중경사자 사십여명을 내고 그 이튿날에는 삼사차나 충돌이되어 사십여명의 농민이 체포되었는데 경관은 소작회대표 인물을 모르며 군중은 각자 소작회대표라고 달려들므로 이와 가티 살벌의 공기에 차여잇슬 뿐만아니라 군중은 「우리가 한푼 두푼 모아 세금(稅金)을 바쳐 소위관현을 먹여 살리건마는 돌이 어 악지주의 호신(護神)이 되어 다수의 민중을 억압함은 그것도 또한 용서할 수 업다」

고 하며 사생을 불고하고 달려드는 참상은 보는자로 도눈에서 피가 쓰다질듯하다하는 데 자은일대(慈恩一帶)는 교통차단(交通遮斷)을 하여 수화가 불통중에 앓다고 한다.

### 新聞記者까지 監禁

#### 상륙을 못하도록 선중에

이 급보를 듣고 진상을 조사코저 출장한 신문기자까지 상륙(上陸)을 못하게 선중(船中)에 감금하였슴으로 그 가련한 농민들은 어떠한 참극에 처해 있는지 그 진상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듣는바에 의하면 대약 이러하다하며 지나 오일에 체포된 소작농민 사십여명을 목포경찰서로 압송하여 검속하였다는데 그중에는 후원으로 갖든 암태(岩泰)소작회 간부 두사람도 잇다하며 아즉도 자은 남진에는 삼십여명의 경관이 수비하고 잇다한다. [시대일보]

1926. 1. 9.

百五十名の 武裝警官隊와 千餘名小作民의 大亂鬪

當夜重輕傷者 四十餘名

아해맨 부녀외 사십여명을 검속

島民 全部에 差押(慈恩小作爭議 後聞)

전남 무안군 자은면 소작쟁의(務安郡 慈恩面 小作爭議)가 돌발되어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서는 도경찰부와 연합하여 전남 각디 경찰의 응원을 어더 지난 삼일에 경비선 금강환(金剛丸) 작환(鵲丸) 해남환(海南丸) 세척으로 자은도(慈恩島)에 출동한 일백오십여명의 무장경관대는 삼일정오경에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로 자은 일대를 포위하고 괴왕가차압하려든 농담회(農談會)사용인과 집달리등에게 대항하였다는 범인 을때 이광경을 듣고 본 민중들은 경관대의 본부인 자은부두에 천여명이 모혀 검속자를 방면하여 달나고 애원을 하다가 필경은 밤열시경에 대충돌이 일어나 인민측에는 중경상자가 사십여명이 잇섯고 그후 해산되었스며 경찰은 사일 아침 까지 약사십명을

검속하였든바 이튿부터 인민측에서 다시 경관대의 본부로 모히기 시작하여 약사백여 명에 달하매 형세가 각각으로의 험하든중 경관편의 필사덕 경계로 겨우 해산되었는데 뒤를 니어 집달리와 농담회 사용인은 사대로 논히어 각경관 약삼십명식의 보호를 바 드며 가차압을 행하다가 현장에 서 차압을 방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출생한지 오개월에 불과한 유아를 둔 여자한명을 검속하고 정조약이백석을 차압하였다하며 오일 오후 세 시경에 검속자를 실흔 경비선은 목포로 도라와 방금취조중이러는데 아직도 자은도에 는 약삼십여명 경관이 엄중히 경계하고 있다하며 금번 테포된 사람의 성명은 아래와 갖다더라.(목포) [동아일보]

徐應烈, 徐南哲(徐應烈子), 徐相旭, 徐光云等 四十餘人

1926. 1. 9.

### 應援團도 檢舉

#### 암태소작간부량인

자은의 린접디인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의 태도를 비상경계하든중 사일 오후 다섯시경에 암태편으로 오는 목선 한척을 억류하고 소작회 간부 두사람과 회원 두사람을 검거하였다는데 검거한 내용은 알 수 업스나 자은소작쟁의에 후원하고자 한 혐 의인듯하다더라.(목포) [동아일보]

1926. 1. 10.

#### 慈恩小作爭議에 勞總委員特派 위로조사차로

전남 무안군 자은면(全南務安郡慈恩面) 소작쟁의가 격렬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에 대하여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서는 그진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참담

한 지경에 빠진 소작인을 위로하기위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신동호(申東浩)씨를 현장에 특파하였다고 한다. [시대일보]

1926. 1. 13.

### 慈恩小作爭議 검속자씨명

무안군 자은면(務安郡慈恩面) 소작쟁의로 인하여 무장경관 일백오십여명이 출동하여 소작농민 사십여명을 검거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이거니와 자은농민운동(慈恩農民運動)에 중요 인물 송기화(宋起華) 암태농민조합 간부 박복영(朴福永) 량씨도 목포경찰서에 검속되어 취조중이라 하는데 그 검속된 소작농민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시대일보]

崔東福 成信杓 李稱石 成判奇 朱仁順 朴根春 成大根 姜炳守 金容福 徐永澤 成○洙 孫今斗 金奉○ 郭南基 禹敬道 金鐵基 表在三 表仁彦 李時保 梁元焚 禹判東 吳良元 朴良仲 金云淑 孫惠岩 許應喆 許玉允 崔福云 徐光云 表敬泰 金昌洙 李明喆 成一同 徐應烈 崔基先 崔南喆 黃佶鉉 徐相旭 黃生周 安昌和 李奉伊 朴成禮 宋起華 朴福永

1926. 1. 14.

### 慈恩島小作爭議

#### 家家戶戶에 食糧까지 差押

무안군 자은소작쟁의(務安郡 慈恩 小作爭議)로 소작인 사십여명이 검거되야 목하 취조를 받는중이라함은 루보한바 어니와 근일 그섬안으로부터 새여 나온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그후에도 그섬안에는 무장경관 사십여명으로 섬안을 엄중히 경계케하는중 이라하며 그한편으로 집달리(執達吏)들과 농담회(農談會)간부등 디주의 주구배들은

그경관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자은 소작인회에서 모도아 주엇던 소작료곡물들을 차압  
하야 즉시 목포(木浦)로 수송한후 또한 그섬안에 잇는 소작인의 집집마다 두루다니며  
멧츨먹을 량식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조리 차압하는 동시에 집달리 비용이라고 매집  
에 덮허노코 돈팔원식을 강제로 징수하는데 만일 내이지 아니하면 추상가튼 호령을  
하며 단장으로 함부로 두다리고 밧어낼 썩아니라 사실 돈이업서서 못내는 사람에게도  
주재소(駐在所)로 가자고 의협과 공갈을 함으로 자은도 소작인 삼천여명은 괴근과 불  
안공포에 싸이여 신음하는 중이라는데 지난 십일일에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서는  
무슨일이 잇는지 경비선 금강환(金剛丸)으로 무장경관 이십여명을 무안으로 쫓파송하  
엿하였다하며 그섬안에는 전혀 밧것과 통신이 두절되야 좀처럼 소식을 들을 수가 업  
는형편이다.(목포) [동아일보]

1926. 1. 14.

特派入島禁止

경성로동회특파원

자은소작쟁의에 대하여 경성로동회(京城勞動會)에서 그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  
무집행위원 리항발(李恒發)씨를 자은으로 급파하였든바 목포서에서는 리씨를 자은도  
로 드러가지 못하게 금지하였다더라.(목포) [동아일보]

1926. 7. 30.

被告三十一名에 最高二年求刑

慈恩小作爭議 被告三十一名에 檢事로부터 最高 二年을 求刑해

慈恩小作爭議公判

루보=무안군 자은도(務安郡 慈恩島) 소작쟁의사건(小作爭議 事件)으로 수십명 소작회원이 그간 반년동안이나 광주지방 법원예심에서부터 잇던중 최근에 예심이 종결되야 소요급공무집행방해(騷擾及公務執行妨害)죄로 공판이 열리어 지난 이십륙일 오전 열한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데일호법정에서 내산재판장의 심리로 송(宋) 안전(安田)량 배석판사와 횡전(橫田)검사의 립회로 데일회 공판이 개명 되엿었는데 방청석에는 광주 목포를 위시하여 전남 각지의 각단체의 대표들이 만히 모혔는중 재판당으로부터 삼십여명피고들에게 차례로 주소성명년령직업등을 물은 후에 검사로부터 기소사실과 예심종결서를 랑독하고 다시 재판당으로부터 사실 심리를 맞친후에 검사의 론고가 잇섯스며 변호사 리의연(李儀衍)씨의 열열한 변론을 맞치자 재판 으로부터 오는 팔월 십륙일 에 판결 언도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오후 세시에 폐명되엿더라. (광주)[동아일보]

朴福永, 表聲大 各懲役 二年 崔福云, 朴永善, 金俸南 各 一年 宋箕華, 安昌化, 文五山, 金玉石, 金進云, 李玉京, 朴德淇, 黃珍淑, 成慶燮 各八個月 金昌洙, 禹判道, 李時甫, 孫岳岩, 黃生周, 梁奉伊, 金鳳珏, 成樂杓, 梁石岩, 徐應三, 表生圭, 崔明鳳, 金尙列, 徐蘭洙, 徐玉奉, 安甲天, 成權洙, 各六個月

### 1928. 2. 3.

岩泰, 慈恩間覆船 十四生命魚腹葬

삼십명승객중 십륙명은 구조

頻頻한 南海의 慘死

지난이십칠일(二十七日) 제주도(濟州道)의 종선이 던복되어 이십오명의 생령(生靈)이 무참히 몰사하였다는 비참한보도가 우리의 기억에 채살아지기도전 동이십팔일 오후네시에 다시 동전남무안군(全南務安郡) 암태도(岩泰島)와 자은도(慈恩島)사이에서 나룻배가 던복되어 이십팔명의 남녀가 일시에 참몰되엿섯는데 그대안인 자은삼진변에 잇는 경관주재소(警官駐在所)에서는 즉시 두사람의 경관과 여덟사람의 마을사람이 구조선을 잡아타고 현장에 급행하여 생명을앗기지안코 구조에 노력한결과 겨우십륙명은 구조되고 그외는 전부행방불명이라는데 시테는 두명만 발견되엿다더라. [중외일보]

1928. 8. 15.

島嶼巡禮

荷衣島方面(3)

第五隊 任鳳淳

外人은 寸土不犯

文盲은 完全退治

삼백여명 투사가 활동하는 중

岩泰島의 文化

산미하는 암석엽해 조선제일의 큰 어장에 바위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스니 바위틈에서는 그절에 있는 중들이 먹을만한 쌀이 항상 나왔다고한다 그러든 것을 중년에 욕심만흔 중이 한꺼번에 만히 나오라고 불새든 부지갱이로 쌀나오는 구멍을 쭈시엇더니 그뒤부터는 쌀이나오지 아니하얏다 이섬에 소속된 초란도(草蘭島)의 어장(漁場)은 전조선에서 제일 큰 것 이엇스나 십년이래로는 출어가 줄어들어서 근년에는 년산액이 일이만원에 불과하다한다 이섬의 호수(湖水)는 일천삼백여호요 인구(人口)는 약 칠천인이라는데 토디가 비옥(肥沃)하야 농산물(農產物)이 비교덕 풍부한 데다가 부업으로 어업까지 겸하고 소작료(小作料)는 전부사할(四割)이오 대금리자(貸金利子)는 이분오리(二分五厘)가 최고이며 토디(土地)는 전부도민의 것으로 외디사람 더욱이나 일본인의 소유는 촌도(寸土)가 업슴으로 일반도민의 생활은 안명하고 풍족하다한다.

外人은 寸土不犯

文盲은 完全退治

사년전의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는 아즉도 세상사람의 기억에 새롭거니와 조선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소작쟁의는 이것이 효시라한다 희생자 백여명쟁의자 금만여원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사건이엇든 것을 넉넉히 련상할 수 잇다한다 그이전에는 디주가 칠할(七割)대금업자가 오분(五分)내지 대동(倍)변을 바닷다하니 이소작쟁의의 효과를 엿볼수 잇는 것이다 년래로 도민들이 어찌나 단결이 되엇든지 일본인재벌이 들어와서 다른섬과가티 토디를 살야고 사오차나 계획하다가 번번히 실패를 하얏다

는데 이것은 도민들의 자각으로 외래재벌을 절대 배척하고 팔드래도 그섬안에서만 서로서로 매매됨으로 외디사람은 발을 부칠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동리마다 농민야학(農民夜學)이 잇서 남녀로 소할것업시 모두 배움으로국문편지한장식은 다볼줄알며 쓸 줄도 안다고한다 그러므로이곳에는 문맹타파운동(文盲打破運動)가튼 것은 벌써 시대지(時代遲)의 운동이라한다.

### 岩泰學校의 偉功

#### 三百餘鬪士活動

이와가티 이섬만이 다도해(多島海)섬중에서 제일 먼저 각방면으로 깨이게된 원인을 차져보면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에 유지몇분의 발기로 암태사립학교(岩泰私立學校)란 학교를 설립하여 삼백여명의 총준자데를 보통정도로 중등정도까지 길러내어 그청년들이 각방면으로 활동하여 농민운동에도 전위분자(前衛分子)가 되었으며 문맹타파운동에도 선봉이 되었다한다 다도해방면 다른섬에서는 이섬을 가르쳐 리상향이라고 부른다 흡사이 중국혁명(中國革命)에 황포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가 원동력이 된것과가티 암태사립학교는 암태의 오날이 잇게한 원동력이라고 한다 오-교육의 위대한 힘이어!

### 臥牛里龍沼中에 不精탄 龍이 移住

암태도 북편에 잇는 자은도(慈恩島) 암태도 만치나 큰섬이다 모든 것이 암태도와 흡사하나 외래자본(外來資本)이 침입한것만이 다르고 문화의 정도로는 암태도의 영향을 입었슴인지 청년회(靑年會)도잇고 소작회(小作會)등도 잇으며 농민야학(農民夜學)도 잇다고 한다 그만한 운동이 잇는 관계로 그만치는 깨엇다한다 별반 풍경(風景)등에도 이러타할것이 업으나 이섬 누우리(臥牛里)에 룡못(龍沼)이란 소(沼)가 잇는데 주위가 약이덩가량이고 수심이 이십여척이라한다 이섬에 대한 우수한 전설이 잇스니 지금으로부터 약칠십년전에 그 이웃섬 비금도(飛禽島) 룡소리(龍沼) 룡못에 잇드 룡(龍)이 해산(解産)한 부인네가 해산 썰래(洗溜)를 그못에가서 하얏다고 부정을 보앗다하야 갑작이 퇴성벽력을 하며 비가퍼붓고 룡이란 것은 돌(石)을 보지못함으로 그룡이 비금도 룡소리뒤산봉(山峯)을 쫓코 바다를 건너 자은도로 옮겨와서 지금 그곳못에 거점중이라고한다 섬중에는 이와비슷한 룡에 대한 전설이 만흐나 미들만한 아모증거도 발견할 수 업다.

### 飛禽島는 뒷 期約을 悲壯한 詩一首만!

비금도의 룡뭇 까지 보았스면 조켓스나 시일관계로 보지못함은 유감천만이다 그런 데 비금도 뒷바다에는 큰 어장(漁場)이 잇서 강달이(肥料兼用)가 데일 만히 나고 그외 잡어 등을 합하여 년산액 팔만원가량을 수입한다고 한다 비금도 남편에 인구 오천여 나 사는 도초도(都草島)도 잇스나 역시 유감이나마 디귀약을 둘 수 밧게 업다 암태도 남강(南江)배머리에서 서군(徐君)의 근일 심리상태를 말하는 「울어볼까 우서 볼까 산 을 넘고 쏘 넘어도 압혜는 더큰산이오 물을 건너고 쏘 건너도 압혜는 더 큰 물일다 이 산이 물 쏘건너도 쏘산 쏘물이 잇스려니 갈가보나 말가보나 험한 산 험한 물길을 가 고가고 쏘가오면 진리가 말하는 그 「유토피아」는 웅당잇는 줄은 아지마는 피곤한 팔 다리 더 갈줄바이업다 오냐! 동무야 가자가자 쏘가보자 무쇠다리 돌팔 쪽에 풀린힘을 다시너허 칼산넘고 칼물건너 쉬지말고 쏘가보자 이팔과 이다리 부서져 일 육일지골 (一點肉一支骨)이 다업서 질 그 쎄까지」란 시한장을 바다들고 쏘 다시 목포로 향하얏 다. [동아일보]

1931. 4. 12.

慈恩島에 漂着한 빈 漁船二隻

全南近海를 襲來한 暴風의 遭難船인 듯

【光州】지난 六일에 자은도(慈恩島) 선 이척이 표착하였는데 선중에는 사람의 그림 자도 업고 빈배만 표착하였는바 이도 역시 폭풍의 조난선이 안인가한다. [매일신보]

1934. 6. 15

文盲兒童을 모아 한글, 산술을 教授

務安郡 柳川里의 夜學會, 兩徐氏에 稱頌 藉藉

무안군 자은면 류천리(務安郡 慈恩面 柳川里)에서는 서용열 서용삼(徐鏞烈, 徐鏞三) 량씨 주선으로 야학회를 열고 동리 남녀의 문자미해자를 수용하여 매야 二시간씩 조선문과 산술을 교수한다는 바 이는 三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므로 그동안 사람으로는 남녀를 물론하고 문자를 대개 알게 되어 문맹퇴치에 성공하였다고 하며 그에 대한 경비는 서용열씨의 단독부담으로 하고 교수는 서용삼씨가 전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내 인사의 칭송이 자자하다. [중앙일보]

1935. 1. 31

遭難된 三隻船에 五名이 犧牲

세명은 닳다 죽고, 두명은 건지다. 務安 近海의 暴風慘禍

지난 二十五일 오후 3시경 폭풍우가 습래한 이래 전남 무안군 자은도(務安郡 慈恩島) 근해에서 규사(珪沙)를 만재한 운반부선(運搬浮船) 五척이 조난을 당하였다는 기보한바이어니와 전기 운반선은 동일 오후 九시경 발동기선에게 끌리어 목포로 귀항하는 도중 한척이 침몰된 채 선원 二명이 행방이 불명되고 이어 운반선 한척은 줄이 끈혀져 유실되는 동시 선원 一명과 함께 종적이 묘연하다하며 운반선 한척은 암초에 걸려 침몰되고 그외 二척과 선원은 무사하다는데 유실된 운반선이 지난 二十六일 오전 十一시경 동군, 임자면 소암(荏子面 小岩)에 표착하자 동리 정우중(丁又宗五五), 정봉중(丁奉鍾 五二) 양명은 표착된 운반선을 끌어올리려다가 흡쓸려드는 격랑에 문혀 익사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48. 3. 6.

### 木浦署管内에 暴動八件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 발표에의하면 지난일일관하 무안군(務安) 지도(智島) 임자(荏子) 자은(慈恩)의 각면에 폭동사건이 발생하여 동서에서는 응원대를 파견목하 주모자를 수사검거중이러는데 폭동의 개황은 다음과같다한다. [조선일보]

- 智島面 一日하오八시 三백명의 폭동자가 지서(支署) 주임숙소를 습격하였으나 이는 격퇴되었고 폭동자측 二명이 사망하였다.
- 荏子面 一日하오二시경 폭동자 二백명이 지서및서원사택 一部를 파괴하였는데 서원一명이 경상을 당하였다.
- 慈恩面 一日하오十二시경 폭동자 約三백명이 지서일부민 경찰관사택 一部를파괴하여 경관 一명이 피해를 당하였다.

1947. 6. 4.

### 慈恩支署 襲擊코저 農民을 煽動!

#### 成基彦等 未然被檢

지난 五月 二十四일 무안군 자은면 지서에서는 자은면 남로당원 성기언(成基彦, 二九) 김창해(金昌海) 선병수(宣炳洙, 二三)외 약 四0명을 검거취조중이라는바 전기 성기언(成基彦) 등은 지난 二十九일을 기하여 자은면 지서와 면사무실을 습격파괴할 목적으로 농민을 선동하여 송산리(松山里)저수지로 모○려고 활동을 한 것이 폭로되어 그와 같이 검거를 한 것이라 한다.[동광신문]

1955. 8. 17.

### 劉議員 聲討大會

#### 木浦驛前 廣場에서

務安乙區 출신 劉옥우 민의원의 모종 부정사실을 알게된 무안군민들은 지난 12일 지도면을 비롯하여 임자·하의·장산·안좌·암태·자은·도초·비금등 각면 선거 유권자들이 劉의원 소환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하며 그 이튿날 13일에는 각면 대표가 또 다시 목포역전 광장에 모여 [反動민의원 劉옥우 召喚 務安乙區 郡民大會]를 개최코 劉의원이 무안일대의 염전을 전부 자기것이라고 허위 문서를 날조하여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임의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모은행과 결탁코 다액의 부정대부를 받은 사실 그리고 병역기피자를 은신케하여 노자를 착취한 사실등을 지적하여 劉의원을 즉시 국회로부터 소환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자유당총재, 민위원의장, 내무·법무 장관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유권자들은 ‘당국은 劉의원을 조속 처단하라’고 절규하면서 시위를 하였다는바 경찰에서는 劉의원 가택을 보호하고 시위군중을 제지하여 공기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전남일보]

1961. 3. 5.

### 救護品 팔아 遊覽한 面長

#### 宗教系서 보낸 것 絶糧農家 안주고

(木浦)기독교 세계봉사회로부터 굶주림에 허덕이는 절량농가에 보내온 구호양곡을 부정착복하여 서울등지로 유람하고 다니는 면장이 있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무안군 자은면장 김언중(45)씨는 지난해 세계봉사회로부터 태풍 및 한재민을 위하여 보내온 4백여만환에 해당하는 구호양곡(옥수수가루 85袋 소맥분 15袋)을 현품으로 바꾸어

대맥을 구입해서 구호자에게 대치 배급해 주겠다고 해놓고 어떤 영문인지 동봉사회 전남지구 대행원 李炳효씨에게 지난달 2월 19일 39만7천5백환만을 받고 부정 매각처분 했다한다. 그런데 전기 김면장은 매매한 돈을 갖고 서울등지로 돌아다니면서 써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일보]

1968. 5. 17.

慈恩에 白蛤展示어장

8千평방M 規模

우리나라 처음 月內完工

(木浦)무안군 자은면 면전리 지선의 천해 간척지에 8천 평방미터의 백합전시어장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월내에 완공된다.

수산진흥원 남해구 시험소에서 지난 14일 어장 정리를 마친 慈恩면 백합전시어장은 수출용으로 전망이 가장 좋은 여건과 무안군관내에 무진장한 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적인 양식을 하지 못하고 자연채취만을 하고 있던 종래방식을 지양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전시어장을 마련케된것이라는데 이 전시장은 백합종패는 각장 2-3 센티미터의 크기를 1평방미터당 약1리터씩 살포케되리라한다. [전남일보]

1968. 10. 15.

구영리서 파낸 陶磁器5点

文化研究資料로 選定

(木浦)작년 12월 무안군 자은면 구영리에서 묘를 파다 발견된 도자기 5점을 감정의

뢰 했던바 10개월만에 도교위로부터 지난 10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 연구자료로 선정됐다. 동부락 梁斗주씨가 발견한 이 도자기는 사발 2개와 접시 한개는 파기되었고 중발 2개만 원모형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때 것인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남일보]

1970. 10. 4.

施策확인 · 특수사정 發掘위해

新安郡서 移動郡廳

신안군은 군시책 침투와 지역주민의 특수사정을 발굴 해결키위한 일환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각면에 이동군청을 신설한다.

1, 2반으로 편성된 이동군청 임원은 1반= 군수 수산 산업 공보실장과 행정 세정 농지계장, 보건소장, 지도계장으로 편성 6일 지도면 7일 임자면 8일 자은면 9일 암태면 10일 흑산면으로 이동하며, 2반=내무 재무 건설과장과 농지 어정계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사무장등으로 편성 6일 도초면 7일 비금면 8일 안좌면 9일 하의면 10일 장산면으로 이동하며 압해면은 5일에 1, 2반을 합동으로 이동군청이 신설된다. 이동군청은 특히 주민의 원성을 청취, 이해 및 해결하여 군정 수행의 원활을 도모한다. [전남일보]

1973. 1. 9.

自力으로 마을會館

금포리 住民 50餘萬원 投入

신안군 자은면 금포리 거주민들은 자체자금으로 건평 25평의 마을회관을 건립했다. 금포리는 60호에 3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 전부락민들이

30만원의 자체자금을 모으고 노력동원을 하여 품삯으로 변동 20만원을 합하여 5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마을회관을 세웠다. [전남일보]

1975. 6. 14.

누에고치 收買불편

供販場1곳뿐 經費 많이 들어

신안군관내 잠업농가 농민들은 누에고치 수매공판장이 목포에 단 1개소밖에 없어 막대한 경비를 써가며 목포에까지 나와 판매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동군관내에는 흑산면과 자은면을 제외한 안좌면등 9개면에서 잠업을 하고있다. 참여농가는 201호이며 이들은 389상자의 누에를 기르고 있다. 봄누에고치 판매시기는 6월중으로 보리베기와 모내기가 겹쳐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생산농민들은 이같은 불편과 경비 절약을 위해 면별순회 공판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전남일보]

1977. 5. 3.

새마을사업...船着場완공

慈恩面閑雲里 1백75만여원 들여

1百80m 幅3m로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선착장이 지난달 29일 완공됐다. 이선착장은 77년도 새마을사업으로 175만4천원을 투입, 지난 2월10일 착공 2개월반만에 길이 180m에 폭 3m로 완공한 것인데 면직원姜태용씨와 새마을 지도자李복용씨등이 공사에 커다란 추진력이 돼 힘썼다. [전남일보]

1977. 5. 19.

舉郡的 落島電化推委구성

事業可能확정 通報따라

17섬에 鐵塔 34개 세워

신안군관내 安佐권 전화사업이 한국측의 기술적 분석끝에 섬과 섬에 철탑을 세워 송전선을 연결 전화사업이 가능하다는 확정통보가 됨에따라 거군적으로 전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실시하게될 이사업이 안좌면과 암태·자은·하의·장산·비금·도초등 7개면내 17개섬에 34개의 철탑을 세워 압해면에서 송전선을 연결하게 된다는 것. 대상호수는 16,045호이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관계요로와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게 된다. 구성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남일보]

- 고문 = 姜起千 · 崔英喆 · 金敬仁 · 朴日出 · 金永斗 · 朴越信
- 위원장 = 鄭根燦(통일주체국민회의 신안군출신대표 대의원)
- 부위원장 = 徐信培(군자문위원) 黃良男(都草출신대의원) 金福洙(농조 군조합장)
- 위원 = 崔哲根 朴鍾南 李在南 李民錫 金權彬 崔玉天 鄭求相 金鈴仁 黃圭年 姜柱遠  
(이상 통일주체대위원)  
李百宰(군농협장) 金宗一(군수협조합장) 崔進明(군산조장) 全國祥(마을금고군지회장)  
趙東均(서울신문기자) 金玉採(전남일보기자)
- 간사 = 裴日斗(군산업과장)

1986. 2. 18.

### 連島橋공사 본격추진

#### 百83억들여 6개섬 연결

(木浦)낙도로 형성된 신안군의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건설부는 올해부터 모두 183억3천만원을 들여 신안군에 안좌면과 팔금면, 비금면과 도초면, 암태면과 자은면등 6개섬을 연결하는 연도교공사를 실시 오는 9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 안좌면과 팔금면간에는 모두 31억2천만원을 들여 480m의 다리를, 비금면과 도초면간에는 88억4천만원을 들여 760m의 다리를, 암태면과 자은면간에는 63억7천만원을 들여 704m의 다리를 각각 가설하게 되는데 1차연도인 올해는 모두 4억7천4백만원을 투입, 안좌면과 팔금면간의 다리공사가 착공된다. [광주일보]

1992. 5. 30.

### 22億들여 우물 54개소 開發

#### 섬지방 渴症 해소

#### 島嶼물줄기 찾기 대대적 전개

#### 食水 · 農業용수 해결

(新安)신안군은 섬지방 식수와 생활용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억3천6백만원을 투입, 24개 우물을 개발하는등 22억5천6백만원을 들여 모두 54개소의 우물을 개발하는 「島嶼물줄기 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계속된 가뭄과 함께 섬지방의 地勢여건상 지표용수원이 부족,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상습적으로 곤란을 겪어옴에 따라 대대적인 우물개발에 나선 것.

군은 올해 들어 가뭄이 극심해 흑산도등 일부지역의 수원지가 바다, 비상급수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등 용수난이 심각해지자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과 계약, 3억3천6백만원을 들여 24개소의 우물을 개발기로 했다.

군은 증도·임자·자은·하의·암태·압해면등을 중심으로 우물을 개발한뒤 이미 지하수 탐사가 끝난 30개소에 4억2천만원을 들여 추가로 우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끝나면 지도읍 鳳리동 14개읍면의 용수난 우심지역 63개소 4천8백여가구 2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되고 농경지 3천3백여ha도 해갈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군은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다. [광주일보]

## 2. 자은면 구비문학 자료(설화)

※참고문헌 : 이준곤·이경희, 「자은면 설화자료」, 『도서문화』 2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3.

### (1) 할미섬 1

#### 자은면 둔장리, 2001. 황판석(남, 76세) 씨

둔장리 앞 바다의 할미섬에 할미 모양의 입석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도승이 할미바위의 머리를 없애버리면 고장리의 박씨 집안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했더니 박씨집안이 망해버렸다고 한다.

### (2) 할미섬 2

#### 두모동, 2002. 김만용(남, 70대세) 씨

할미섬에는 할미바위가 있고, 소들도 대들도 사이에 암초가 있는데 그것이 베틀여고 할미바위의 할미가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는 형상이다.

### (3) 한운리 입도조

#### 자은면 한운리, 2001. 최정규(남, 76세) 씨

한운리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다. 여기는 자연적으로 원이 막아져서 눈을 벌 수 있어서 자은면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와 산 곳이다. ‘한운리 쌀을 먹으면 송장도 무겁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 논이 좋은 곳이며, 한운리의 신머리라고 하는데로 사람이 들어와 처음으로 살았다. 처음 들어와 산 사람은 석씨였다.

### (4) 석씨가 망한 이야기

#### 자은면 한운리, 2001. 최정규(남, 76세) 씨

저 섬이 옥도라고 하요. 저 섬이 물이 나면 여기 마을하고 이어져요. 폭이 약 60m

되고 길이가 약 700m 되는데 물이 쓰면 길이나요. 구두 신고 가도 되요. 칫등이 드러나요. 한운리에 사는 석씨가 도조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거기 스님이 동냥하러 가지 박대하였다. 도조를 받으려 옥도의 칫등으로 가는데, 중하는 소리가 그 칫등을 찌르면 배도 다니기 좋고 큰 부자가 되겠다 해서, 거기를 짚르로 석씨 집안이 망했다고 그래.

### (5) 백산리의 용소이야기1

**자은면 와우리, 2002. 표재환(남, 76세) 씨**

용소라고 큰 못이 있어. 이무기가 방죽을 파고 용소의 바위굴로 들어갔다가 일인들이 가자 나가 버렸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 그 굴은 물 속에 있어서 들여다 볼 수 없어.

### (6) 백산리의 용소이야기2

**자은면 백길리, 2002. 김형섭(남, 55세) 씨**

이 못은 자연못인데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이 여기서 살다가 비금 가면 용소라는 데가, 거기도 용소인데 거기가 암용, 여기 솟용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장들 말을 들어보면 신빙성은 없겠지만은, 3년만 기다리면 인자 하늘로 올라갈 용인데, 3년을 못 기다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비금으로 건네가 버렸다고 그런 전설이 있지요.

### (7) 백산리의 용소이야기3

**자은면 백길리, 2002. 김형섭(남, 55세) 씨**

용소 위에를 가면요, 옷산에가 돌이 주욱 깔렸거든요. 거기를 가면요 돌을 발로 구르면 쿵쿵 울리거든요. 그 속에가 용이 살었다 그래요. (거기가 굴이요?) 굴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지요. 바위가 다른 데라고는 달리 울리거든요.

### (8) 백산리의 용소이야기4

#### 자은면 장고리, 2002. 주갑순(남, 80세) 씨

자은면 신성리에 가면 말이요. 용추라고, 용뚝병이 있어요. 용소, 용이 비금서 날아와 가지고 거기서 꼬리를 쳐서 용방죽이 생겼다고 그러는디, 일제 말엽에 사람들이 용을 잡는다고 물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디, 용자 즉 용새끼가 들어 있다고 해서 잡을 수 없다해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일제때 보면 원족이라고 해서 거기 가보면 물이 한정없이 깊고 그전에 거기서 해군정이라고 해서 해군들의 말이 먹고 그랬어요. 해군정이라고 생겼습니다.

거 비금 용소리라는 곳에서 물어보니까 용이 산에 바위를 뚫었습디다 해요. 거기 사람이 지게 지고 나무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비 올 때면 은신도 하고 그랬대요. 거기서 자은에 와 가지고 꼬리르 쳐버린 것이 방죽이 땀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 (9) 백산리 용소이야기5

#### 자은면 두모동, 2002. 김만용(남, 70세) 씨

전해오는 말은 거기서 용이 되면 승천을 해야 하는디, 용이 못된 이무기, 이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다고 용이 승천까지는 못하고 용 못된 이무기가 거그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근세에 와 가지고 한·일합방해 가지고, 저네들이 해군 군수기지를 해가지고, 해군에 물을 쓰려고, 돌에 새겨 표말까지 세우고 저네들이 군용지로 사용했어요.

**(10) 백길(白吉)의 옛이름은 “뱃길”****자은면 백길리, 2002. 최재봉(남, 77세) 씨**

옛날 이름은 뱃길이어. 옛날에는 해수가 여까지 들어왔어. 1952년에 제방을 막었으니깐 그 이전에는 여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옛날에는 여기다 배를 매고 짚도 실어내고 공공품 그런 것을 목포로, 소나무 가지를 실어냈어. 한문으로 부락명을 지을 때에 白吉로 바꿔 버렸어. 우리 할아버지 그런 분네들이 사십스러 그때 그런 한문 이름으로 바꿔 버렸어.

**(11) 두봉산 이야기1****자은면 백길리, 2002. 최재봉(남, 77세) 씨**

옛날에 천지개벽시에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두봉산을 말봉산이라고 하제, 해수가 짝 차 갖고 자은이 말만하게 남아드라 해. 저~기 해제 앞에는 승봉산이라, 되봉산이라 하제, 거기는 되만하게 남아드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전설에 내려온 말이어. 두봉산에 가보면 지금도 중턱에 짝개비가 있어라우.

**(12) 두봉산 이야기2****자은면 장고리, 2002. 주갑순(남, 80세) 씨**

제가 알기로는요, 암태는 승봉산, 자은은 두봉산, 말 두(斗)자 두봉산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노아홍수 시절에 암태 승봉산을 되만하게 남아 있었고, 자은 두봉산은 말만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높이가 363m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 어려서 자주 올라댕겼거든요. 그래서 산정애가 상봉 중봉 하봉 차근 차근 계단이 있어요. 상봉에 가보면 굴껍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바닷물이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 우리가 비가 안 오면 항상 기우제를 거기 가서 지내거든요. 기우제를. 하늘 뚫구멍 꼬실른다고, 뜨겁게 하면 비가 온다고 해서 나무를 한 못씩 지고 올라가서 태우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거기 성재요. 정쟁디, 고려 때 성이 있었든다 이조 때 있었든가 그것이 궁금해요. 돌로 싸진 성이 있어요.

### (13) 두봉산 이야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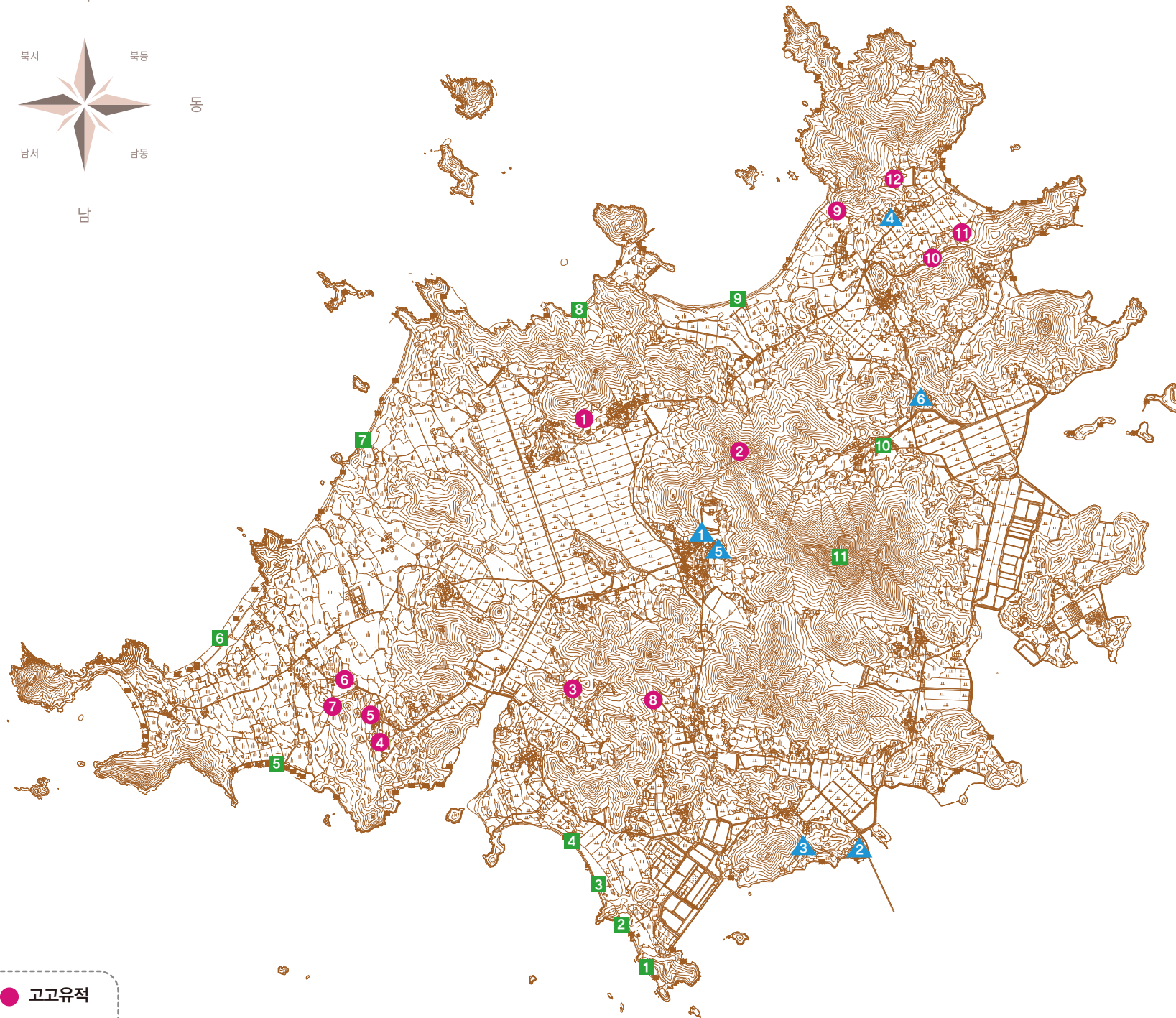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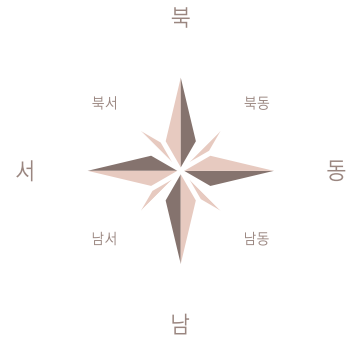
#### 자은면 두모동, 2002. 조사복(남, 75세) 씨

전설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옛날 영광 가면 칠산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가 않아요. 영광이 임자면 다음에가 영광 아납니까? (그렇죠) 칠산바다가 천지개벽을 했더라요. 그래서 인지 그 산이 꺼져 버리고 입곱 개 되어서 칠산이라 했다 그래요. 그런 전설이 있었고.

또 우리 자은면에 그때 당시에 저 두봉산이 말만치나 뽕족하게 보였고, 암태 승봉산이 되만치나 더 작아 보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은 큰산 보고는 두봉산이라 하고, 암태 큰산 보고는 승봉산이라 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고고문화유적]**

1. 고장 지석묘
2. 구영리 구영산성
3. 구영리 구영옹관고분
4. 백산리 백산 지석묘 1
5. 백산리 백산 지석묘 2
6. 백산리 신성유물산포지
7. 백산리 신성지석묘군
8. 유천리 목장지
9. 한운리 둔장도기요지
10. 한운리 한운도기요지 1
11. 한운리 한운도기요지 2
12. 한운리 한운 분묘군

**[역사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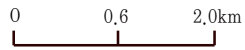
1. 구영리 구영장대석우물
2. 유각리 은암대교비군
3. 유각리 표한엽효열비
4. 한운리 한운제공로불망비
5. 구영리 서응렬기념비, 이화옥기념비
6. 허태주옹송덕비

**[생태문화자원]**

1. 백길해수욕장
2. 면적해수욕장
3. 양산해수욕장
4. 신성해수욕장
5. 분계해수욕장
6. 내치해수욕장
7. 외기해수욕장
8. 신돌해수욕장
9. 둔장해수욕장
10. 대울리 대울보호수
11. 두봉산(364m)

**범례**

- 고고유적
- ▲ 역사문화
- 생태자원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2

# 자은면 慈恩面

2014년 11월 발행

| 발행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신안군

| 인쇄 | 연기획

전남 무안군 창계면 창계공단길 141

TEL. 061) 452-3610

FAX. 061) 452-3683

출판신고 제 2013-000002 호



전남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TEL. 061) 260-1702~3

FAX. 061) 260-1704

<http://islands.mokpo.ac.kr>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 271-1004

FAX. 061) 240-8000

<http://shinan.go.kr>

